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 김엘리 · 문아영 · 윤보영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엘리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윤보영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사업(2/4년차)

한반도 평화 연구(2): 평화인식과 평화교육의 간극과 함의

KINU 연구총서 19-23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저자	조정아, 김엘리, 문아영, 윤보영
발행인	임강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ISBN	978-89-8479-981-3 93340
가격	12,000원

© 통일연구원, 201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례

요약	7
I. 서론	11
1. 연구 목적 및 내용	13
2. 연구 방법	16
II. 평화교육의 역사: 통일교육과의 만남	19
1. 평화교육의 모색과 싹틈(1980년대 - 1990년대 초반)	24
2. 평화교육의 구체화와 발돋움(1990년대 중반 - 2000년대 중반)	28
3. 평화교육의 세분화와 비균질적인 활성화(2000년대 후반 - 현재)	38
III.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태	51
1. 평화교육 프로그램 실태	53
2. 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태	93
3.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174
IV.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과 쟁점	197
1. 평화·통일교육: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전환?	199
2. 평화·통일교육의 쟁점	209

V. 결론: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점과 과제	225
1. 요약	227
2.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과제	239
참고문헌	251
최근 발간자료 안내	259

표 차례

〈표 I-1〉 전문가 및 교육활동가 협의회 실적	17
〈표 II-1〉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중반 평화교육 주요 프로그램 현황 ..	31
〈표 II-2〉 2000년대 후반 - 현재 평화교육 주요 프로그램 현황	41
〈표 III-1〉 주제별 평화교육 유형 및 교육기관	55
〈표 III-2〉 통일교육협의회 소속단체 및 통일교육 실시 단체	95
〈표 III-3〉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의 2018년 통일교육 프로그램	96
〈표 III-4〉 서울시 평화·통일 프로그램 공모 단체 수	148
〈표 III-5〉 2018년 서울시 통일교육 공모사업 참가단체 및 프로그램명 ..	149
〈표 III-6〉 평화교육 수행 단체 설립년도 및 주요활동	175
〈표 III-7〉 통일교육 수행 단체 설립년도 및 주요활동	184
〈표 III-8〉 2013년과 2018년 통일교육 프로그램 유형 비교	188

요 약

이 연구는 한반도 평화협력의 시대에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근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평화교육의 역사를 고찰하고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실태와 쟁점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은 분단의 역사 속에서 분단과 남북 간의 대립, 분단으로 인한 폭력과 비평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점을 형성하고 공동의 영역을 만들어왔다. 평화교육의 역사 고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평화교육은 그 태생에서부터 분단의 극복과 민족화해라는 문제를 중심에 놓았다. 한국에서 평화교육은 우리 사회의 폭력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분단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 점에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은 태생에서부터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이라는 출발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육실천과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육실천의 현재 모습 속에는 교육의 방향성, 내용, 주체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과 강조점이 나타난다. 특히 통일교육 영역에서 최근 평화·통일교육이라는 명칭으로 기존 통일교육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에서 통일의 위상, 통일의 당위성 문제, 적극적 평화와 안보문제, 학습자의 주도성 등을 다루는 관점에서 평화교육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쪽을 대체하거나 양자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 양자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한반도 분단과 통일문제를 평화의 관점과 가치에 입각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한 정책과

제로 ① 교육 방향성 정립과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 ② 역량중심으로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내용체계 개편, ③ 민간 영역의 자율성 확대와 거버넌스 구축, ④ 시대적 과제와 평화지향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관계 법령 정비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평화교육, 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

Abstract

The Status and Issues of Peace Education: Focussing on Its Interactions with Unification Education

Cho, Jeong-ah et al.

To lay the groundwork to explore the accessibility of peace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in an era of peace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takes a look at the history of peace educa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f both peace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education and peace education have been established as educational sectors of conflict resolu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of means of mediation for violence caused by the division. The two sectors have developed commonalities along the way. The origin of peace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is rooted on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ubsequent unification issues.

In the current educational practices, there are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emphasis in terms of the direction, contents, and subject of education between peace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Efforts of creating “peace·unification education” are recently being made which focuses more on issues of peace than existing unification education.

Peace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exhibit differences when it com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eace and unification in realizing a peaceful Korean Peninsula, whether unification is justified as an ultimate goal, how issues of ‘positive peace’ and security are handled, and how much initiatives the learners have.

This study asserts that the issues between peace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clarified and that the two sectors should expand the overlapping areas under the principal of dealing with unification issues on the basis of value of peace.

Keywords: Peace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Peace·unification education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내용

이 연구는 한반도 평화협력의 시대에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근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평화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의 실태 분석에 기초하여 양자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근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은 분단의 역사 속에서 분단과 남북 간의 대립, 분단으로 인한 폭력과 비평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점을 형성하고 공동의 영역을 만들어왔다.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근은 2000년대 전후에 한편으로는 통일교육 영역에서 평화교육적 시각의 도입,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평화교육 모색 및 영역 확장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대 후반 이후 통일교육이 안보 위주로 회귀함으로써 평화의 문제의식이 열어졌으나, 최근 들어 한반도 정세의 변화 속에서 다시금 평화의 관점에 입각한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은 한반도 정세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난 해이며, 변동의 방향은 남북한의 평화협력과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질서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통일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전환에 부응하여 새로운 방향성이 모색되고 있다. 한반도 질서의 전환을 반영하여 ‘평화’가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교육의 명칭은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바뀌었다. 통일부는 2018년 8월에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통일교육 지침을 새로이 제시하였으며, 교육부에서도 2018년 11월에 평화와 민주시민 양성에 방점을 둔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안보교육 중심

의 통일교육에서 평화 관점의 통일교육으로의 전환이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평화교육 현장에서도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탈분단 평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분단해소와 평화를 연결하는 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화교육에서 분단과 통일의 문제가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폭력의 원인이자 반평화의 근원이 되는 분단을 극복함으로써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¹⁾ 또한, 통일교육은 평화교육과 결합됨으로써 북한이해교육, 통일정책 홍보, 안보교육 등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통합과 평화·통일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삶의 가치와 사회문화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²⁾ 현시기 통일교육에서 평화교육적 관점의 결합이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남북간의 대결과 반목의 시대를 지나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대적 대전환기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은 그 역사적 태생이 각기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자가 모두 사회적 실천과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각 독자적인 교육 영역을 구축해왔다. 현재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 공히 ‘평화’와 ‘분단’과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통합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 갖고 있는 사회역사적 맥락과 교육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두 교육 영역을 통합하는 것은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 접근가능성을 모색하고 접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 또는 ‘분단’이라는 키워드를

1) 안승대,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연구』, 제10권 1호 (2018), p. 46; 정영철, “평화통일을 위한 길 찾기: 평화를 위한 통일, 통일을 위한 평화,” 『한반도 평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살림터, 2018), p. 67.

2) 이동기·송영훈, 『평화·통일교육 추진전략 연구』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p. 8.

공유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키워드들이 각각의 교육 속에서 어떻게 위치지어지고 어떻게 교육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 평화협력의 시대에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통일교육이 평화교육의 관점과 방법론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 현장과 이론적 논의의 장에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간에 어떠한 접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쟁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평화교육 역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평화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싹트고 발전해나가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문제에 대한 고민과 그 교육적 해결 모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평화교육 실천, 평화교육 연구, 평화운동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평화교육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III장에서는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현재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라는 명칭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각의 교육 실천들 속에서 양자가 어떻게 공통된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교육목적, 대상, 교육내용, 방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 시기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특히, 다양한 평화교육 실천 속에서 비평화의 근원으로서 분단문제를 다루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화·통일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통일교육 실천 속에서 평화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단, 이 연구에서는 정부주도 교육 및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은 다루지 못하였고, 사회교육 영

역에서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평화·통일교육’이라는 명칭으로 표방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앞 장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근에 있어 교육적 쟁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각 쟁점에 대한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내의 다양한 입장을 고찰하였다.

V장에서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점을 모색하고, 공통분모를 넓혀나가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II장은 김엘리, III장의 평화교육 부분은 문아영, III장의 통일교육 부분은 윤보영, IV장과 V장은 조정아가 책임 집필하였음을 밝혀둔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평화교육의 역사와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쟁점,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 및 문서자료 분석과 실태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한 평화교육 단체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자료 이외에도 각 단체의 평화교육 활동 파악에 도움이 되는 내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공개 및 미공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특히, 통일교육 실태 조사를 위해 통일교육협의회와 협조하여, 통일교육협의회 소속단체 중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28개 단체의 교육 실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평화교육과 서울시 공모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단체에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프로그램 실적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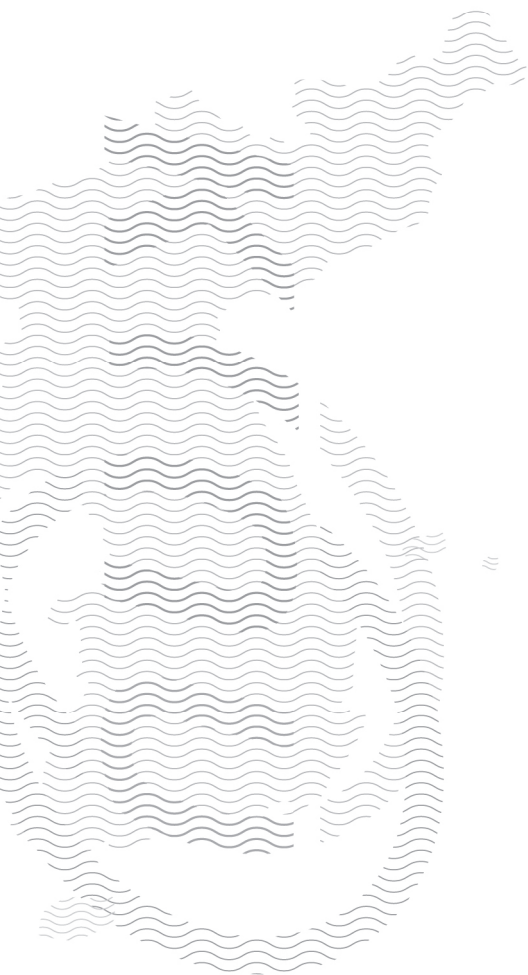
료를 요청하여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문서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평화교육의 역사와 흐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평화교육과 평화운동 현장에서 교육활동과 평화운동을 진행해 온 현장활동가와 교육자, 관련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협의회를 실시하였다. 현재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집담회를 실시하여, 특징적인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검토하고, 교육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이론 분야의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이론적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표 1-1〉 전문가 및 교육활동가 협의회 실적

회의 일시	자문자(소속)	주제
5/10	최혜경(어린이어깨동무), 서민규(통일교육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교육 현황 및 특성 • 시민단체의 평화·통일교육 실태
6/11	이대훈(성공회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평화교육의 역사 및 쟁점
7/2	이향규(한양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 프로그램 유형 분류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7/31	김정아(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현정(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 김효은(통일경제포럼), 이혜원(흥사단), 한순실(세계평화여성연합), 이향규(한양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교육 프로그램 사례 검토 •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사례 검토
8/9	김숙임(사단법인 조각보), 박정은(참여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이후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의 흐름과 동향
9/3	박보영(서울대), 윤철기(서울교대), 이대훈(성공회대), 정용민(자운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쟁점

II. 평화교육의 역사: 통일교육과의 만남



이 장에서는 평화교육 실천, 평화교육 연구, 평화운동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평화교육의 흐름을 파악하고, 각 시기별 특징을 분석한다. 평화교육은 무기의 발달과 전쟁의 대량살상이라는 현실 앞에서 사람의 삶과 평화를 사유하면서 시작된다. 평화교육은 대체적으로 평화를 촉진하려했던 종교적 가르침에 그 시원이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무력에 대해 반대하는 정치적 배경에서 추동된다.³⁾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평화교육은 크게 세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전통적 평화교육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예방해야한다는 차원에서 평화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표적으로는 1950년대 - 1960년대에 실시된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과 반핵교육을 들 수 있다. 전통적 평화교육에서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했으므로, 교육의 내용은 주로 전쟁 방지를 위한 것이었고 국가 간의 평화증진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통적 평화교육은 사람의 심성에 초점을 두어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다보니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두 번째 흐름인 비판적 평화교육이다. 비판적 평화교육은 1970년대 신사회운동과 비판이론, 평화학 이론의 영향을 받으며 등장했다. 그동안 평화는 국제관계에서 국제질

3) Ian Harris, "History of Peace Education," G. Salomon and Ed Cairns eds. *Handbook on Peace Education*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0), pp. 11~14. 이 글에 따르면, 평화교육이라는 말을 글로 표현한 첫 유럽인 중 한 사람은 17세기 체코의 교육자인 코메니우스(Comenius)이다. 또한 평화교육은 유럽국가의 교사, 학생, 대학교수들이 평화회를 조직해서 전쟁의 위험을 대중들에게 교육한 19세기 말을 거쳐 20세기의 유럽과 미국에서 상당한 성과와 교육의 성장을 이루었다. 이를테면, 1912년에 국제정의와 박애를 교육하는 학교평화연맹(School Peace League)은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 지부 형태로 있었다. 20세기 초 주도적인 평화교육자들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서를 잡고 통합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으로써 오히려 현재의 불평등한 체제를 지속시키는 효과를 냈다는 인식에서, 비판적 평화교육은 전통적 평화교육과 선을 그으면서 등장했다. 평화는 전쟁이 없거나 물리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빈곤과 차별 등 구조적 폭력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이해가 대두되었다. 비판적 평화교육은 개인의 심성에서 나아가 비평화적인 구조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비판적 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그리고 그 실천을 상상하는 능력에 관심을 두었다. 특히 앞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구상하고 만든다는 적극적인 평화의 차원을 내포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서구의 평화이론과는 다르게 아시아와 남미 등의 식민화된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평화교육이다. 여기서 평화는 민족과 계급 모순에 의해 일어나는 반평화적 요소를 제거하고 민중의 생존과 삶을 보장하는 사회정의라는 측면이 강조된다. 빈곤의 문제, 식민지 유산인 민족 갈등과 비민주적인 정치체제, 문맹 등 지역의 특성과 문화에 따라 특정한 평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에 영향을 받은 의식화교육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지금의 지구적 상황은 평화교육의 의미와 내용을 확장시킨다. 그 내용은 이주의 증가, 생태계의 변화, 다중적이고 글로벌한 시민성의 요구, 성평등의 강화, 성정체성의 유연성, 동물권의 관심 확대 등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자연, 동물과의 관계까지 포함하면서 문화적 다양성과 인권, 환경 등을 아우른다.

한국의 초기 평화교육 연구자들은 서구의 비판적 평화교육의 맥락 제3세계의 민족민중교육론의 입장에서 평화교육을 소개하고 한국 평화교육 이론을 펼쳤다. 그 시기가 1980년대이다. 그 후 한국사회에서 서구의 적극적 평화론과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교육방식

을 기조로 한 평화교육은 시대에 따라 변주된다. 갈등해결, 비폭력 대화, 회복적 정의교육으로 지속되는 갈등전환교육은 2000년 이후 평화교육의 또다른 축을 이룬다. 한국 평화교육의 세 번째 흐름은 기존의 통일교육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평화교육이다. 네 번째 흐름은 1980년대부터 거론된 생명론과 생명운동이 평화와 결합되어 생태평화교육으로 진일보한 평화교육이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경험과 젠더 관점에서 출발한 여성평화교육이 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평화운동은 평화교육의 주요한 산실이였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평화운동은 평화교육을 수반하면서 평화교육 발전의 토양을 형성했다.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는 평화 어젠다를 학습하고 회원과 시민을 위한 세미나와 강연회를 개최하는 교육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은 평화교육을 실행하는 현장이면서도 시대의 요구와 정세에 조응하는 평화교육을 기획하고 창출하는 공간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평화교육은 시대의 사회적 맥락에서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이 어울려져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화교육 자체가 지식과 태도 그리고 변화를 위한 행동을 그 구성요소로 지닌다면,⁴⁾ 연구와 교육, 운동을 함께 연결하여 보는 것은 평화교육의 흐름을 더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평화교육의 흐름을 아래와 같이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 (1) 평화교육의 모색과 싹틔는 시기인 1980년대 - 1990년대 초반
- (2) 평화교육의 구체화와 발돋움 시기인 1990년대 중반 - 2000년대 중반

4) 데이비드 히스 지음, 고병헌 옮김,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서원, 1993), p. 30.

(3) 평화교육의 세분화와 비균질적인 활성화 시기인 2000년대 후반
- 현재

1. 평화교육의 모색과 싹틈(1980년대 - 1990년대 초반)

이 시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의 평화교육을 소개하고 한국의 평화교육을 모색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둘째, 한국의 평화교육은 반평화적인 요인으로서 분단구조를 주요하게 보고 처음부터 분단 극복과 민족화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평화교육은 독립적 영역으로 현장에서 실행되는 정도는 약하나, 일부 학교 교사들의 의식적 노력과 시민평화운동을 토양으로 싹텄다.

가. 평화교육 소개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정부는 반공이라는 말 대신에 평화라는 말을 사용했으나 국가적으로 반공교육이 압도적이었던 분단현실에서 평화교육이 자리잡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었다. 국가가 국가안보를 절대적으로 내세우며 반공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군축이나 북한과의 화해교육은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국가정책을 위반하는 일로 여겨졌으므로 평화교육은 매우 제한되었다. 갈등해결이나 정의로운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둔 비판적인 평화교육도 대중적으로 활발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에 영향을 받은 민중교육이 지식인과 학생, 노동자와 빈민들에게 전파되어 야학운동 등으로 실천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⁵⁾ 특히 학교의 교사들은 교

육민주화 선언을 하고 학교 밖에서 교사 소모임을 조직하면서 민족 분단을 지속시키는 제도교육을 비판하고 탈식민적 교육을 주장했다.⁶⁾ 당시는 민족중심의 통일지향적인 교육을 인간화 교육이라고 간주하고 이 통일교육이 곧 평화교육이라고 보는 논리의 자장이 있었다. 이후 1990년대 교사운동은 분단과 비민주성 그리고 비인간화를 해결하는 교육을 참교육이라 보고, 이를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고 칭했다.⁷⁾

이 가운데 비민주적인 교육과 협소한 반공교육으로 점철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평화교육을 통하여 대안적인 교육을 모색하려는 글들이 간헐적으로 출현했다. 여기에 독일 등에서 유학을 한 연구자들이 서구사회의 평화교육을 소개하면서 한국사회에서 평화교육의 의미와 내용에 관한 논의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철학자 이삼열은 차이를 존중하며 어떻게 공존·상생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평화교육이라고 논하며, 갈등으로 인한 편견, 증오심, 적대감정, 폭력성을 문제화한다. 갈등을 평화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평화행위능력이라고 보는데, 이때 갈등은 개인 관계에서부터 남북의 갈등까지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것이다.⁸⁾ 교육학자 오인탁도 평화교육은 평화능력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보고, 여느 학자들처럼 한국사회에서는 평화교육이 불가능한 교육 환경이라고 혹평한다. 평화교육은 마음의 평화에서부터 관계의 평

5) 1980년대 당시 한국은 제3세계 국가들과는 문맹률이 낮고 국가주도의 획일적 이념성이 강했으므로 교육환경의 조건이 달랐다. 따라서 교육운동에서도 비제도권의 민중교육보다는 제도 안에서 실행되는 학교교육의 비민주성에 대한 강조가 컸다.

6) 이장원, “80년대의 교사운동,” 김진경 외, 『민중교육2』 (서울: 푸른나무, 1988), pp. 94~135.

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교육위원회, 『이겨레 살리는 통일』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출판국, 2001), pp. 230~231.

8) 이삼열, “평화교육의 철학과 실천방법,” 최상용, 『현대평화사상의 이해』 (서울: 한길사, 1992), pp. 265~294.

화, 갈등과 더불어 사는 능력, 건강한 환경을 가꾸는 능력 배양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통일과 민주화 그리고 경제안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이 절대적임을 주장한다.⁹⁾ 뿐만 아니라, 일부 평화교육론자들은 추상적인 교육이 아닌 생활과 결부된 구체적인 교육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외세의존적인 교육이 아닌 민족의 자주통일을 교육과정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

평화교육이란 특정한 사회맥락에서 구성되는 것인 만큼 한국사회의 평화교육은 분단과 통일의 요소들을 그 내용으로 내포하고 있었다. 한국의 평화교육은 처음부터 분단 극복과 민족화해를 염두에 둔 구체적인 맥락에서 구성된 기획이었던 것이다. 이는 평화교육이란 그 사회에서 반평화적인 요소를 해소할 능력을 고양시키는 교육인데, 한국사회에서 반평화적 요인은 분단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조건에서 오는 것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다양한 가치와 사상의 유연성, 획일적인 교육 풍토, 환경 문제까지도 분단사회와 무관하지 않음을 이 시기 평화교육의 역사가 말해준다.

나. 평화교육의 실행

이 시기에는 ‘평화교육’이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걸지는 않았지만 평화교육의 내용을 담은 교육사례들이 있다.

첫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각급 학교에게 실시한 경우이다. 이 교육은 다른 국가의 문화 이해와 국제이해 및 협력, 환경과 인권, 관용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9) 오인탁, “평화교육의 개념과 우리교육의 과제,” 『초등우리교육』, 10월호 (1991), pp. 38~43.

10) 이종태, “분단시대의 학교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교육출판기획실, 『분단시대의 학교교육』 (서울: 푸른나무, 1989), pp. 10~22; 장종철, “한반도의 평화신화 정착: 한반도의 기독교 평화교육,”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6권 1호 (1989), pp. 199~201.

유네스코는 172개국에 협동학교 사업을 지원했는데 한국에서는 학교교육 안에서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① 세계 문제에 관한 교사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② 세계 문제에 젊은이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 ③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제공하는 것, ④ 군축과 새로운 세계국제질서, 인권에 관한 교육 자료와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 ⑤ 각각 다른 국가에서 이 세 주제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것, ⑥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세계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¹¹⁾

둘째, 학교 교사들이 실시한 평화교육이다. 평화교육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표방한 참교육은 반전 반핵, 반공해, 성교육, 통일교육과 같은 평화교육의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참교육의 실천 자료를 만들고 연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과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또한, 서울과 인천 YMCA 평화교육 실천교사회는 통일, 생명존중, 평등, 화해공존 교육을 담은 평화이념을 교육이념으로 세우고 ① 평화의식을 키울 수 있는 교과 내용 선정, ② 평화의식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③ 교육제도과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¹²⁾

셋째, 시민단체들이 평화운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평화교육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한국YWCA가 있다. 이 두 단체의 회원들은 1974년, 1975년 각각 원폭피해자지원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반전반핵평화운동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 와서는 평화세미나에 이어 ‘반전·반핵·평화마당’을 3년 동안 연속 개최하였다. 이들은 강연과 반핵사진전, 슬라이드 상영, 자료집

11) Ian Harris, "History of Peace Education," pp. 17~18.

12) 김운용, "특집: 한국교육에서 평화교육의 가능성," 『우리교육』, 10월호 (1991) pp. 44~49.

발행을 통하여 핵의 위험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하여 피해자의 인권문제를 사회구조와 연결시키고 이후 민족통일운동으로 발전해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전쟁과 핵은 분단사회에서 극복해야할 요소로 인지되었다.¹³⁾

1980년대 진보적 여성들의 운동도 분단과 평화 그리고 여성문제를 연결시키며 등장했다. 1985년 3월 8일,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린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여성들은 분단구조는 군비증강을 가져오고 민족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며, 이는 곧 여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 보았다. 통일운동의 맥락에서 반전군축운동을 보고 여성들이 해야 할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비록 정기적인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대중의 참여를 이끄는 정책토론회나 핵이 식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쉽게 설명하는 대중적인 책자 발행 등을 통하여 평화교육의 효과를 냈다.¹⁴⁾

2. 평화교육의 구체화와 발돋움(1990년대 중반 - 2000년대 중반)

이 시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평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시민단체들이 출현했다. 시민단체들은 평화교육만을 활동의 목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지만, 평화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평화교육도 실시했다. 무엇보다 뚜렷한 특징은 평화교육의 지속성이

13) 이현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25년사』(서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2), pp. 110~232, pp. 319~348; YWCA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세기 외 공저, 『한국YWCA 80년사: 생명의 바람으로』(서울: 대한YWCA연합회, 2006) 참조.

14) 김엘리, “여성들이 하는 군축 반전운동,” 『한국여성평화운동사』(서울: 한올아카데미, 2005), pp. 141~145.

다. 둘째, 평화교육의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비록 총론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이 여전히 강하지만, 시민단체들의 평화교육은 평화에 관한 지식과 태도, 기술, 실천을 고려한 다양한 영역을 섭렵하고 개인에서 글로컬까지 관통하며 다차원으로 접근하였다. 셋째,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은 민주·민중·민족문제로 환원되는 거대담론에서 글로컬 사회에서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생활정치로 확장되고 이동했다. 일상에서의 비폭력성, 상생적 관계 형성, 다문화, 생태 보전, 젠더평등 등 다양한 관점을 살린 평화교육이 다원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었다. 넷째, 기존의 안보통일교육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평화적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평화교육이 구체적인 내용성을 갖추어가면서 성장한 시기라 말할 수 있다.

가.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행

1990년대 중반부터는 평화교육을 실행하는 특정한 시민단체들이 등장한다. 그 이전에는 단발적인 강연이나 세미나, 자료집 발간에 그쳤다면, 이 시기에는 지속성과 목적성이 분명한 평화교육운동이 일어났다. <또하나의문화>(1996), <어린이어깨동무>(1996), <평화를 만드는여성회>(1997), <비폭력평화물결>(1999), <평화인권연대>(1999) 등이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이 시민단체들은 독립적인 평화교육 단체는 아니지만 평화운동, 여성운동, 공동체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평화교육을 동시에 실행했다. 2006년 12월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평화활동가들이 한국평화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실제적인 실행을 위한 전략에 관해 논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평화교육은 구체적인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실행되고 이와 함께 비폭력적인 평화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시민사회가 평화활동 뿐 아니라 평화문화와 평화교육을 확산시키고 평화마을과 평화학교를 세우며 이를 위해 다양한 평화교육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과 전략들을 세웠다.

이 시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표 II-1>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① 평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 ②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프로그램, ③ 함께 살아가기 체험학습이 그것이다. 먼저 평화일반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취지로서 적극적 평화 개념에 포함되는 여러 주제들을 다루는 경향이 컸다.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 평화감수성, 차이와 사회적 차별 뿐 아니라 무력갈등, 국제관계, 남북 정치 상황까지 아울렀다. 또 하나의 축은 1999년부터 시작된 갈등해결교육과 비폭력대화, 의사소통훈련이다. 이러한 교육은 실제 관계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 나아가 비폭력적 방법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갈등과 문제들을 다루는 평화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강사와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함께 살아가기 체험학습은 차이의 인정과 존중, 문화다양성, 상호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주자와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에서 이를 모색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북한이탈주민과 이주자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표 II-1〉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중반 평화교육 주요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명	대상	단체명	실행시기
평화 일반	여성평화아카데미 움직이는여성통일학교	일반여성	평화를만드는여성회	1999~2003 2005~2006
	평화행진캠프	20~30대	평화인권연대	2000~2005
	평화카페 반핵평화교실	회원	평화네트워크	2004, 2005
	평화아카데미	일반인	평화외통일을어는사람들	1994~2001
갈등해결 의사소통훈련	갈등해결전문가훈련	단체회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자주평화민족회의	1999~2000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강사트레이닝	일반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3~2014
	갈등중재와 관용형성을 위한 워크샵	여성	한국여성사회교육원	2000, 2001
	평화행진캠프	20~30대	평화인권연대	2000~2005
	분쟁조정자 양성과정	일반인	동북아시아평화교육 훈련원	2006
	조정전문가 진행전문가 훈련	일반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 등해결센터	2006~
함께 살아가기 체험 학습	탈북여성과 대화모임 진달래와 무궁화모임	남북여성	평화를만드는여성회	1998~2000
	북한바로알기교육 및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상담원 교육	남한여성	한국YWCA연합회와 지역 회원 YWCA	2001~2004
	국경없는마을	외국노동자 지역주민	인산외국인노동자센터	1999~

이외에도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어깨동무평화교육’(〈어린이어깨동무〉), ‘평화학교’(〈YMCA〉), ‘외국인 과함께하는문화교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청소년평화리더십 훈련’(〈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

발 연구(<통일을생각하는서울교사모임>), 학교 평화통일교육(<서울 초중등통일교육연구회>)이 있다. 교육내용은 주로 다름과 차이, 차별을 이해하여 평화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거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혹은 비폭력과 화해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연습이다.

이 시기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첫째, 지식이나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평화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관계에 관한 교육이었다. 개인이 이웃과 사회, 국가 그리고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자세, 이질화를 극복하는 동질화가 아니라 이질성 속에서 공존을 모색하는 관계 맺기, 반평화적 상황에서 살아가는 소수자들과의 연대에 주안점이 있다. 셋째, 평화교육은 개인의 차원에서부터 글로벌 차원까지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미시적인 영역과 거시적 영역의 상호관련성을 인지하는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사회구조적인 인식 능력을 가지도록 할 뿐 아니라 일상의 실천이 글로벌 구조 속에서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보는 통찰력을 키우도록 했다.¹⁵⁾

나. 평화교육의 다원화

2000년대 접어들면서 평화교육은 구체화되면서 다양해졌다. 통일에 중점을 두는 평화교육이 있는가 하면 통일과 긴밀성을 가지지 않은 채 전개되는 평화교육도 있고, 민족주의에 기반한 교육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와 거리를 둔 교육내용도 전개됐다. 뿐만 아니라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민족 등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니 그

15) 정현백·김엘리·김정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서울: 통일부통일교육원, 2002), pp. 95~126.

내용의 초점도 다양해졌다. 노동자의 관점에서, 혹은 여성의 입장에서, 혹은 글로벌의 입장에서 그 강조점은 달랐다.

이 시기의 평화교육은 제3세계 민족민주론이나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론과 거리를 두고 사람들의 일상과 맞물린 평화와 생활 정치에서 출발했다. 당시의 사회적 정세는 1980년대와 달리 크게 전환되고 있었다. 1990년대 탈냉전 시대에는 군사안보의 절대성이 약화되고 일상에서 안보의 필요성이 부상하였다. 게다가 1994년 유엔이 선언한 인간안보는 국가의 영토를 보존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좁은 의미의 안보 개념을 확장하여 인권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 보장을 안보의 내용으로 삼았다. 경제, 건강, 식량, 환경의 문제가 일상에서 해결되고 안전하게 확보될 때 사람들의 진정한 안보는 획득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가 민주사회의 체제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일상의 안녕과 복지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더불어 글로벌 사회에 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개인의 삶과 한국사회의 비평화적 요소를 글로벌 사회와 연결시켜 생각하기 시작했다.

평화를 적극적으로 사유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계기는 9.11 테러 이후 이어진 전쟁과 파병, 반전운동, 고 김선일 피랍사건, 미군에 의한 여중생 압살 사건 등 2000년대 초반부터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가?”라는 국가에 대한 물음들이 사회적으로 터지면서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과 재사유가 점화됐다.¹⁶⁾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일어나는, 상대국가에 대한 폐쇄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무분별한 집단적 공세에 관해서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국가와 개인/국민을 구별하는 감수성 축구의 목소리도 불붙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결이 다른 평화담론

16) 박정은, “자문회의 발제자료” (통일연구원, 2019.8.19.).

을 생성하게 했다. 이를테면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와 <군사주의를반대하는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는 민족주의나 반미, 국가이익을 넘어서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담론을 초국가적인 보편성으로 내세웠다.¹⁷⁾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가 안보를 재해석하며 평화국가론을 논하는 물꼬를 열었다.¹⁸⁾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 글로벌 사회에 대한 인식 증대, 개인의 안전한 삶에 대한 강조, 성평등과 생태 보전, 다문화에 대한 인지 증대는 평화교육의 내용과 접근 방식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첫째, 평화교육은 비폭력 대화와 태도, 상호협력과 교류, 차이와 다름의 존중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2000년대 이후 평화교육의 한 축을 뚜렷하게 만들어가는 갈등해결교육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는 분단과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는 비폭력대화과 갈등해결훈련을 실행했다. 일상의 삶에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상호 협력하고 공존하는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평화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민족주의에 한정되지 않는 글로벌한 구조와 탈중심주의 문화현상, 다중적 정체성, 다문화와 다양성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다.

둘째, 여성의 주체적인 참여를 중시하면서 젠더 관점으로 평화 사안을 분석하고 전망하려는 평화교육이 지속되었다. 여성단체의 평화교육 사이에서도 접근하는 방법과 입장은 각기 다르나, 우선적으로 ‘여성’들을 조직화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 중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부계혈통으로 이어지는 가

17)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 2003. 자세한 내용은, 김엘리, “여성들이 하는 군축 반전운동,” pp. 190~195. 참조.

18) 이는 박순성 외, 『한반도 평화보고서2003』 (서울: 참여연대, 2003), 박순성 외, 『한반도 평화보고서2005』 (서울: 참여연대, 2005)에 이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편, 『2008 평화백서』 (서울: 아르케, 2008)의 출간으로 결실을 맺는다.

부장적 민족주의를 통해 여성을 차별하는 현상들을 비판하면서 민족적 동질성으로 차이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아닌 차이를 존중하며 평등을 성취하는 방법으로서의 평화를 강조하였다.

셋째,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등장한다. 교사들의 교육운동과 학교현장을 주요한 교육현장으로 여기는 시민단체들의 교육은 체제중심적 통일교육의 강압성을 넘어서는 운동의 일환으로 평화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대안적인 교육을 모색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결합시키고자 한 <어린이어깨동무>의 경우는 일상의 평화, 남북의 평화, 지구촌의 평화, 생태평화라는 범주 안에서 한국사회를 성찰하고 일상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대안적 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을 기획한다.¹⁹⁾

한편으로, ‘탈분단’이라는 용어도 등장한다. 1997년에 조한혜정의 연구자들의 ‘남과 북 문화프로젝트’에서 시작된 남북 문화 공존을 위한 모색은 남북의 문화를 들여다보고 남과 북의 만남을 상상하면서 탈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탈분단은 분단이나 통일이나는 이분법을 넘어, 분단 극복이 곧 통일을 뜻한다고 보는 기존의 논리를 비판하고, 분단으로 인해 뒤튼린 한국사회를 성찰하는 문화적 실천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는 북한을 타자화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폐쇄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반대하면서 평화, 인권, 생태, 복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 체계 안에서 분단과 통일 문제를 보려는 입장이다. 성평등, 민주주의, 다원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혁범은 분단구조 속에서 규정된 한반도 주민들의 의식과 정서를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일, 분단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건강성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탈분단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한다.²⁰⁾

19) 최혜경, “자문회의 발제자료” (통일연구원, 2019.5.10.).

다.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었다. 관심의 증대는 군축과 반전, 남북관계의 변화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시민단체들이 이를 평화운동으로 실천하는 정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요청의 반영이자, 평화교육 연구자들이 속출한 학계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평화교육 연구자들은 평화교육의 단순한 소개가 아닌 한국의 평화교육 이론을 구성하려는 다각적인 시도를 보이며 다수의 글을 출간하였다.²¹⁾ 일부 평화교육 연구자들은 교사모임이나 평화운동단체들과 상호 교류하며 평화교육의 깊이를 더했다.

무엇보다 2000년 6·15 선언과 함께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통일교육을 평화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을 접목시키는 시도로 나타난다. 평화적 접근으로 통일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할 필요성은 199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언급되고, 2000년대 접어들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자들의 논문은 2000년대에 부쩍 증가하였다. 한편, 학교현장의 통일교육을 평화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 교사들의 모임에서 주도적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초중등통일교육연구회〉의 교사들이 만든 통일교육 교안으로 결실을 맺는다.²²⁾

20) 탈분단 연구와 그 논지에 관해서는 조한혜정·이우영, 『탈분단시대를 열며』(서울: 삼인, 2000), pp. 1~13; 권혁범, “한반도 분단현실과 통일교육의 방향: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탈분단 시민교육을 향하여,”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2000) 참조.

21) 자세한 내용은 박보영, “한국의 평화교육연구사,” 『기독교교육논총』, 11집 (2005), pp. 157~196. 참조.

22) 〈통일을생각하는서울교사모임〉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999.1.12.), 학교 통일교육을 새롭게 정리하고 통일교육의 교수 학습 방법의 계발을 위해 창립한 〈서울학교통일교육연구회〉의 현장 사례들(창

〈서울초중등통일교육연구회〉에서 매년 발행한 학교통일교육 자율연수 자료집에 따르면, 교사들은 정치 경제 군사 차원이 아닌 일상의 삶 속에서 통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생활문화적 접근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그들은 남과 북의 주민들이 어떻게 만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미래의 사회통합을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고 연습해야 한다고 보았다. 차별을 극복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는 장애인이나 외국인노동자, 여성뿐만이 아니라 북한주민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시민의식의 바탕이라고 전제한다. 이는 평화적 가치가 남북통일문제에 접목되는 지점이다. 실제 교사들은 문화상대주의와 문화이해지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구체적인 통일교육 학습교재안들을 만들었다. 또한 남북한의 적대적 갈등을 전환할 방법으로 갈등해결교육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²³⁾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교육, 정부의 통일교육 방안에도 평화교육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정부주도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도 나타난다.²⁴⁾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주장하는 공통된 취지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우선,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평화를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로 상정한다. 이 보편적 가치가 남북관계와 통일에 관통해야 하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함으로써 극단적 대립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이는 평화를 분단 상황만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요청되는 가치이자 태도라고 보고, 이를 통해서 남북 간에 비폭력적인 공존의 삶을 만들 수 있다

립대회 자료집, 2000.3.24; 학교통일교육 자율연수 자료집 2001, 2002, 2004), 〈서울초중등통일교육연구회〉의 동영상 제작(2005) 등이 있다.

23) 정용민, “평화적 갈등해결의 학교 적용과 평화교육의 필요성,” 『학교통일교육 자율연수 자료집』(서울학교통일교육연구회, 2002.1.21.~1.22.), pp. 10~21.

24) 대표적인 연구물로 정현백·김정수,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참조.

는 주장이다. 실상 200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통일교육에서 언급돼 온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은 곧 평화지향성을 뜻했다.

둘째,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안보중심의 통일교육을 새롭게 정립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동안 안보중심의 교육은 남북한의 관계를 대립적 관계로 놓고 북한을 적으로 두면서 타자화하였다. 그리고 남북한의 체제를 비교하며 정치 제도적 통합을 중심에 두었다. 반면,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안보중심 교육은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 위에서 아래로 하달되는 이념성이 강한 교육이라고 비판하며,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교육내용과 방식을 제시한다. 즉,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이해를 도모하려는 입장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적대감을 가지고 경쟁하는 가운데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접근이 아니라, 남북한이 서로 이해하면서 상호협력과 공존을 추구하는 접근방식을 취해야 함을 제안한다.

3. 평화교육의 세분화와 비균질적인 활성화(2000년대 후반 - 현재)

이 시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평화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들이 출현하면서 평화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시기이다. 둘째, 프로그램 내용은 세분화되고 그 지향은 복잡성을 띤다. 평화교육의 주제들은 평화에 관한 총론에서 더 세밀하게 들어가 특정 분야별로 나누거나 심화되고, 프로그램 유형이 확대된다. 또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지향성에 있어, 다양한 가치와 비전들이

서로 어울려 중첩되거나 융합되고 있다. 주체성, 자아성찰, 인권의식, 생명존중, 다문화주의, 남북관계, 사회정의 등과 같은 가치와 지향들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부분적으로 혹은 다중적으로 결합된다. 셋째, 평화교육의 학습모델이 구상되고 교육매뉴얼이 생산되기 시작한다. 평화교육 시민단체들은 프로그램을 특정한 맥락과 사회적 관계, 주체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하고 상황에 따라 적실성을 갖는 평화역량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넷째, 시민단체들의 평화교육은 점차 학교, 공공기관, 지역 등으로 확산되고 적용된다.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을 넘어 평화교육을 실제 적용하고 실행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 다섯째,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논하는 정도는 증폭되었으나, ‘평화’의 개념과 범위를 둘러싼 상이한 입장들이 경합하면서 평화교육은 비균질적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을 띤다. 이를테면, 회복적 정의와 같은 갈등전환교육은 ‘평화’라는 개념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된다. 반면, 사회정의와 군사주의, 군축과 같은 내용을 포괄하는 평화교육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덜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가. 세분화된 프로그램 실행

시민사회단체들의 평화교육은 교육의 내용 면에서 다양해지고 세분화, 전문화되었다. 이 시기에 실행된 프로그램 개요는 <표 II-2>와 같이 평화일반, 비폭력갈등전환, 생명평화, 함께 살아가기 체험으로 크게 구분된다.

평화 일반의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경우, 이전 시기에 주로 평화개념이나 차별과 폭력, 비전과 같은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성격을 띠었다면, 2000년 중후반을 거쳐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특정한 분야로 집중되거나 심화된다. 이를테면, <참여연대 군축센터>는 국

제분쟁 지역의 상황을 통해서 아시아민주주의를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평화를 논한다. 한국의 평화를 남북관계라는 틀에 제한하지 않고, 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라는 글로벌한 시야에서 읽고 구상한다.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은 북한여성들의 삶과 섹슈얼리티라는 특정한 분야에 초점을 두어 북한사회를 살피면서 남북여성의 관계를 모색한다.

갈등해결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갈등해결교육은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훈련이라는 주제에서 더 세분화되어, 민주적 논의를 이끌어가는 ‘진행자훈련’, 갈등당사자들이 문제해결을 하도록 촉진하는 ‘조정자 훈련’,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또래친구가 조정하는 ‘또래조정자훈련’ 등으로 다양해졌다. 그뿐 아니라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을 이론화하고 프로그램화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회복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수행하여 공동체 회복까지 끌어가는 평화 구축 과정을 연습한다. 내용이나 방법에서 갈등해결교육과 비폭력대화, 의사소통과 많은 공통성을 지니는 회복적 정의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개칭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또 다른 주제 영역은 비폭력직접행동이다. ‘비폭력직접행동’은 민주적 참여와 조직운동을 배우고, 비평화적인 사회문제에 비폭력방식으로 불복종하고 저항하는 태도와 가치, 기술에 관한 것이다.

생태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남북통일과 평화의 가치 안에서 구성한다. 특히 <한국DMZ생명평화동산>은 DMZ의 생태계를 배우고 보전하는 일이 곧 남북의 평화를 만드는 일임을 평화교육에 담는다. 학습자들이 DMZ를 탐방하고 유기농을 체험한다는 점에서 이는 ‘함께 살아가기 체험 교육’과도 맞닿아있다.

‘함께 살아가기 체험 교육’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조각보>의 ‘코리아 여성의 삶 이야기’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탈북여성과 남한여

성, 코리안디아스라여성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동북아 아시아의 틀에서 남북한 미래 공동체를 상상하고 구상한다.

〈표 11-2〉 2000년대 후반 - 현재 평화교육 주요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명	대상	단체명	실행시기
평화일반 (사회문화, 군사, 민주, 남북관계, 국제분쟁)	여성평화협상 전문가양성 여성평화권리프로젝트	여성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7 2016
	한반도 평화구상 국제분쟁 토크아보기 평화교육디자인어	청년, 일반인	참여연대 군축센터	2007, 2012 2008~ 2009 2016
	여성평화인문학강좌	여성	조각보	2011~
	평화아카데미	청년, 학생	평화외통일을 여는사람들	2011~ 2017
	맞춤형 PEACE페다고지 평화교육진행자 과정	기관 학교등 교사, 일반인	피스모모	2012~
	모모평화대학	일반인	피스모모	2013~
	한반도 평화이행기 남북여성이 함께하는 평화 아카데미	여성	여성인권을 지원하는사람들	2019
	길 위의 평화학교	여성, 대학생, 청년, 청소년	전국YWCA연합회, 지역 회원 YWCA	2012~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명	대상	단체명	실행시기	
비폭력 갈등전환	갈등 해결	조정·진행 전문가 훈련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 트레이닝	일반인, 교사, 시민 활동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6~ 2014 2003~ 2014
		또래조정반	학생, 교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10~
		북한이탈여성의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갈등해결 상담원 양성	여성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2017
	회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 조정자 훈련	일반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8~ 2014
		회복적 학교 서클진행자 전문과정 피스빌딩 워크숍	교사, 학부모, 상담사, 일반인	한국평화교육훈련원	2011~
		사회/평화감수성훈련 써클타임 시민평화대학 (회복적써클)	교사, 학생, 일반인	비폭력평화물결	2011~ 2015~ 2018 2019
	비폭력 직접 행동	비폭력트레이너 양성	시민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2012~
	생태평화	생명평화학교	일반인, 학생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2009~
		움직이는 탈핵학교 탈핵(씨앗)강사아카데미	여성, 청소년	한국YWCA연합회, 지역 회원 YWCA	2012~ 2014~
DMZ평화생명체험교육 DMZ생태평화교육		일반인, 학생, 외국인	한국DMZ 생명평화동산	2009~ 2015 2016~	
함께 살아가기 체험	남과 북의 삶의 이야기 나누기	북한 이탈 주민, 남한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2013	
	탈북여성과함께하는 남북한 문화나눔과 여성인문학강좌	여성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2015	
	코리안 여성의 삶이야기	여성	조각보	2012~	

이 시기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주제나 기술의 측면에서 전문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교육의 내용이 특정한 주제에 맞추어 심화될 뿐 아니라 교육의 기술도 교육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성장한다.²⁵⁾ 이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전문 진행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교육의 결과이면서도 교육의 확산에 기여한다. 무엇보다 평화교육의 전문성을 증폭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평화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민단체들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한국DMZ생명평화동산>(2008), <피스모모>(2012), <한국평화교육훈련원>(2012), <국경선 평화학교>(2013) 등이 그것이다.

둘째, 이 시기 평화교육에서는 교육대상과 상황에 적절한 맞춤형 학습모델과 교육 매뉴얼이 개발되어, 살아있는 평화역량에 중점을 두는 정도가 강화되었다. <피스모모>의 ‘탈분단평화교육모델’과 ‘PEACE페다고지’, <비폭력물결>의 ‘삶을변혁시키는평화훈련’, <전쟁없는세상>의 ‘비폭력트레이닝’이 그 예이다. 이 시기의 평화교육은 참가자 스스로 평화역량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학습방법을 더 정교화 해 나간다. 학습자들은 지식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정제된 공간보다는 직접 참여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공간에서 개념과 지식, 태도와 가치, 기술을 동시에 배운다. 구체적으로는 강의만이 아니라 현장 체험, 삶이야기 나눔, 참여자들과의 토론과 공동학습, 씨클대화, 몸표현 등을 통해 스스로 사유하고 몸으로 느끼는 방식이 활용된다.

25) 예를 들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경우, 2011년까지 청소년 평화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8,000여명이다. 2003년부터 시작한 청소년 평화리더십캠프와 포래조정자 훈련 수료생은 2011년까지 400여명이고, 2012년까지 420명이 포래조정자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다(<http://www.peacewomen.or.kr>) (검색일 2019.8.17.). 또한 <피스모모>는 2012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363회 평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총 49,799명의 평화교육 이수자를 배출했다(피스모모 문아영 대표와의 인터뷰, 2019.10.4.). <한국DMZ생태평화동산>의 경우는 2018년 10월까지 1,564회, 52,765명의 교육생이 생태평화교육을 받았다(http://dmzcopeace.com/?page_id=24) (검색일 2019.8.18.).

셋째,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지향은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단일한 가치의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결합되어 추구된다. 이를테면 <조각보>의 삶이야기 프로그램에는 여성주체, 여성인권, 남북통일, 다문화주의가 서로 연결돼 어우러진다. <한국DMZ생명평화동산>의 생태평화교육은 생명존중, 생태보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개발, 분단과 통일을 평화라는 가치 안에서 서로 연관짓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갈등전환교육에는 자아성찰, 인권의식, 사회정의, 공동체 형성, 남북협상과 조정이라는 근원적인 가치가 내재해있다.

나. 평화교육의 확산과 적용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시민단체들의 평화교육은 특정한 현장으로 확산된다. 시민단체들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평화교육을 학교, 공공기관, 마을지역 등으로 직접 들어가서 실시한다. 이로써 교육공간이 확장되고 교육대상도 학생과 교사, 공무원,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2010년 이후에 시민단체들의 교육은 청년과 교사, 학생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어린이 평화지킴이’(2003~)와 ‘청소년 피스빌더 평화이음’(2010~)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며 평화교육의 주요 대상을 학생들에게 맞추어 온 <어린이깨동무>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실행한 단체들에게도 나타난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매년 12~16개 지역을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20~30대 청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참여연대 군축센터>도 청년들이 원하는 주제에 맞추어 국제분쟁을 논하고 한반도 평화를 디자인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피스모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한국평화교육훈련원>, <비폭력평화물결> 등은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맞춤형

PEACE페다고지, 또래중재자훈련, 비폭력대화, 갈등 다루기, 회복적 서클과 같은 평화교육을 실행한다. 갈등해결프로그램은 1999년 케어커의 종교친우봉사회를 통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시민단체에 최초로 소개되었고, 비폭력대화 모델이 2000년대 초반에 <한국 비폭력대화센터>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그동안 갈등해결교육을 해온 단체들이 2009년 <회복적정의시민사회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회복적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1년 이후 회복적정의는 회복적생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시민사회에 확산되었다.²⁶⁾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2011년부터 평화교육을 6대 중점정책의 하나로 삼아 학교의 평화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평화능력을 증진시키며 평화리더십을 함양하는 평화교육 계획을 추진했다. 이 평화교육은 학교공동체만이 아니라 남북통일과 동북아 평화교육을 통해 바른 역사관을 정리하고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의식까지도 포함했다.²⁷⁾ 이로써 평화교육은 곧 민주시민교육과 만난다. 경기도 교육청이 발표한 『능동적 공공적 삶을 실천하는 시민육성을 위한 2017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은 평화감수성 신장과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실현을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으로 제시하는 만큼 학교에서 평화교육을 실시할 근거를 제공했다.²⁸⁾ 회복적 생활교육과 같은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들의 자살률 증가, 학교 폭력, 비평화적 언어사용, 더불어 사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진단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시 교육청도 평화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2019 평화통일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는 평화교육단

26) 회복적 정의의 모델은 북미와 호주 등지에서 발전되었고, 1990년대 말에 시작된 회복적 서클은 2000년 중엽에 브라질 교과부와 UNDP가 주목하게 되었다. 박성용 외,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매뉴얼』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2014), pp. 11~13.

27)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2013 평화교육 추진계획” (경기도: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2013)

28) 김영철·김성오·박숙영·정주진, 『평화교육 사례분석 및 실행방안 연구』 (경기도: 경기도교육연구원, 2017), pp. 32~33.

체들의 개입과 자문이 담겨있다.²⁹⁾ 제주도 지방자치단체도 ‘세계평화의 섬’ 프로젝트의 17대 평화실천 사업에 평화교육지원을 포함시키고 추진 중에 있다.³⁰⁾ 평화교육 거버넌스가 점차 그 모습을 갖추는 추세이다.

그뿐 아니라 평화교육단체들은 사회적으로 갈등이 발생한 특정지역이나 마을공동체 지역에서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 평택 마을, 세월호 관련 지역주민 모임에서 회복적 정의교육, 갈등해결교육, 비폭력행동 등과 같은 평화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활용된다. DMZ 주변 마을과 마을공동체만들기운동에서도 생태 평화 체험이나 회복적 정의, 비폭력 대화 등의 평화교육이 널리 실행된다. 부천시 역곡동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들이 마을사람들에게 소개한 회복적 정의가 마을만들기 운동에 확산되어 역곡마을 평화센터가 건립되고 체계적인 평화교육과 회복적 생활운동이 전개된 사례는 대표적이다.³¹⁾

그러나 평화교육이 공교육이나 시민사회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주제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군축과 군사주의, 안보와 같은 주제는 갈등해결교육보다 적용과 확산 정도가 낮다. 반면, 또래중재자나 회복적 생활교육과 같은 주제들은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평화가 반공이나 군사안보와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전반부 시기에는, 시민단체들이 추구해 온 적극적 평화 개념은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한 정치적 제한이 있었다.³²⁾

29) 이대훈, “자문회의 발제자료” (통일연구원, 2019.6.11.).

30) 고경민, “제주의 새로운 평화실천 프로그램을 위한 방향과 과제,” 『제주발전포럼』, 가을호 63호 (2017), p. 6.

31) 김영철·김성오·박숙영·정주진, 『평화교육 사례분석 및 실행방안 연구』, pp. 32~33.

32) ‘적극적 평화’는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 제시한 개념으로, 직접적 폭력은 물론이고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해소될 때 실현되는 평화를 말한다. 적극적 평화는

다. 평화교육과 분단현실의 접목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의 평화교육은 일상의 차원에서부터 글로벌한 차원까지 내다보면서 다차원적인 평화인식을 도모하는 가운데, 한국의 분단현실을 평화만들기 구성에서 주요한 교육 과제로 상정한다. 분단현실을 고려한 대표적인 교육 모델은 생태평화교육과 탈분단평화교육이다. 물론 갈등해결교육도 분단과 통일문제를 연결시키는 교육모델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개발 중에 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갈등해결교육과 남북교류를 연결시켜 여성평화협상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갈등 당사자들의 협상모임에서 여성들이 대표성을 갖고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남북갈등 관계를 좀 더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협상기술과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는 모델을 구상하는 중이다. 또한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도 마찬가지이다. <조각보>는 남북의 미래 공동체를 구상하고 함께 살아가는 상생을 지향하면서 평화교육의 대화모델을 다각적으로 실험하는 중이다.

생태평화교육은 <한국DMZ생명평화동산>이 강원도 인제에 터를 잡고 2009년도부터 펼친 평화교육이다. DMZ는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만들어진 대립과 단절의 공간이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생명과 자연의 터전이다. 생태평화교육은 DMZ를 평화시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간주하는 국제정치학자들의 개념과 대비된다. 적극적 평화는 갈등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찾아 그 폭력의 구조적 뿌리를 근절하려는 사회정의의 뜻을 내포한다. 적극적 평화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교육은 개인의 심성이나 도덕성에 폭력의 원인을 두지 않고 사회적 권력관계에 둔다. 그리고 권력관계로부터 태생하는 구조화된 폭력과 차별을 없애고 상생의 관계로 전환하려는 교육 목적을 갖는다. 이를테면,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의 근원을 젠더권력관계에서 본다면, 국가 간의 갈등이나 집단 간의 사회적 갈등을 군산복합체의 구조화된 시스템이나 경제적 빈곤이 야기하는 차별에서 읽는다. 자세한 내용은 Johan Galtung, "Cultural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7, no. 3 (1990), pp. 291~305 참조.

를 여는 보전공간으로 삼고 이의 역사적 형성과 생태문화의 가치를 설파한다. 생태평화교육은 DMZ의 생태에 관한 다각적인 강의뿐 아니라 DMZ 내부의 숲, 하천 등의 생태지역을 탐방하고 관찰하는 평화생태현장탐방, 유기농사를 짓고 슬로우푸드를 만드는 등의 생태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통일은 “자본의 세계화, 하늘·땅·물의 생명력을 수탈하는 생산·소비·폐기문명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문명을 여는” 것이고, 남북의 평화는 “한반도 생태공동체의 보전과 복원”을 이루는 토대이자 기초이다.³³⁾ 말 그대로 남북의 통일 과정은 생태와 자본의 수탈이 멈추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이는 곧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반면 탈분단평화교육은 통일을 궁극적 도달점으로 두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사회의 평화의 걸림돌인 분단을 성찰하는 취지가 크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을 접목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속됐다. 통일교육에서 출발하거나 통일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은 통일의 당위성을 전제하고 남북한의 민족동질성을 통일 논의의 주요한 요소로 두는 경향이 있다. 그에 비해, <피스모모>가 실행하는 탈분단평화교육은 적극적 평화개념을 기본 토대로 삼고 한국의 비평화적인 요소인 분단을 권력과 수행성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분단극복이 곧 통일이라는 기존의 문법에서 벗어나 분단이 생산하는 폭력적인 구조와 분단을 지속시키는 일상적 행위들을 살핀다. 무엇보다 시민단체들이 깊이 있게 직시하지 않았던 군사주의와 안보문제를 평화교육의 주요한 주제로 두고 PEACE페다고지 방법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글로컬 패러다임에서 분단과 안보를 재해석한다.³⁴⁾ 탈분단평화교육은 서구의 비판적 평화연구의 전

33) 심광섭,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창립 10주년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연다” 개최 (<http://www.ijinews.co.kr/ArticleView.asp?intNum=13959&ASection=001001>) (검색일 2019. 8. 19.).

통과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방법론의 맥락에서 1997년부터 논의된 탈분단 개념을 취하는 평화교육의 맥을 잇고 있다.

34) 문아영·이대훈, 『분단체제를 살아내며 넘나드는 탈분단 평화교육』 (서울: 피스모모, 2018), pp. 13~115.

Ⅲ.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태



1. 평화교육 프로그램 실태

이 절에서는 현재 단체 활동으로 평화교육을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단체와 기관들의 공개 및 미공개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에 기반하여 국내 평화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정리하였다. 비판적 평화교육 관점에서 평화교육은 교육실천의 모든 영역에서 비평화적인 요인과 폭력의 원인 및 조건을 탐구하여 평화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려는 교육적 노력을 의미한다.³⁵⁾ 또한 평화교육은 “인간의 기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평화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³⁶⁾ 이러한 광의의 개념으로서 평화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 국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영역 전반에 걸쳐 비평화와 폭력을 검토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을 지향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평화교육이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평화교육의 범주를 지정하고 주요 기관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범주별로 분류하였다. 평화교육의 유형은 그 성격에 따라 학제적 평화교육과 독자적 평화교육, 주체에 따라 단독형 평화교육과 거버넌스형 평화교육으로 분류되기도 하고,³⁷⁾ 주제에 따라 세분화된 형태로 분류되기도 한다.³⁸⁾

주체별로 보면 크게 정부기관이 실시하는 평화교육과 민간기관이 실시한 평화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국내에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평화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³⁹⁾ 평화운동의 성격

35) 정영수,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교육학연구』, 제31권 5호 (1993), p. 176.

36) 위의 글, p. 175.

37) 박광기 외,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2~12.

38) 데이비드 히스 지음, 고병현 옮김,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pp. 17~35.

으로 시작된 민간단체 평화교육은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그 저변을 확장해 왔다. 현장기반 평화운동 단체에서 출발해 평화교육에 진입한 단체들도 있고 대북지원활동을 시작으로 평화교육으로 확장된 단체도 있으며 현장기반 평화운동과 공교육을 연결하고자 하는 평화교육 단체도 존재한다. 통일교육과는 다르게 조직화된 협의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주도로 진행되지 않는 까닭에 평화교육의 개념 정의와 범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평화교육을 표방하고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들을 주제별로 구분해보고, 이들 단체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범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가. 주제별 평화교육 유형 구분

국내 민간단체들의 평화교육을 각 단체가 표방하고 있는 평화교육의 개념과 성격에 따라 표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평화교육이라는 넓은 범주 속에서 크게 갈등전환교육,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탈분단 평화교육, 여성주의/젠더평화교육, 상호이해평화교육, 생태평화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같은 주제영역 내에서도 개별 단체의 성격과 강조점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성과 유형은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 <표 III-1>과 같은 6개 주제영역 내에서 총 7개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단체 및 교육 프로그램 선정 기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분단 및 통일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와

39) 2018년에 통일부와 교육부는 ‘통일·평화교육’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정부가 통일교육에서 평화교육 관점의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평화교육 진영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이 기존의 통일교육과 크게 다를바 없다는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피스모모, “시도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계획”, 이슈브리프 vol. 12 (2019), pp. 1~16. <<https://peacemomo.org/boardPost/108859/12>> (검색일 2019. 8. 20.).

연결되는 주제의식을 담은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는지 여부이다.

〈표 III-1〉 주제별 평화교육 유형 및 교육기관

주제	갈등전환 교육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탈분단 평화교육	여성주의/젠더평화 교육	상호이해 평화교육	생태평화 교육
기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어린이 어깨동무	피스모모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단법인 조각보	한국DMZ평화생명동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YWCA		피스모모		
				YWCA		

〈표 III-1〉에서 ‘갈등전환교육’은 ‘회복적 정의’, ‘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 대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회복적 정의’는 정의를 구현하는 초점이 법을 어긴 행위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찾는 데 있지 않고 범죄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강조한다.⁴⁰⁾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의 철학을 일상생활과 연결시키는 교육으로, 공동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이 비폭력적으로 전환되고 피해가 회복되며 관계가 회복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비폭력 대화’는 긍정적인 대화의 방법들을 제안함으로써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갈등전환교육은 응보적 정의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재의 사법시스템과 사회문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본 실태조사에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으로 분류한 평화교육 사례의 경우, 통일에 대해 다루지만 그 초점이 한반도의 통일에만 맞추어

40) 이재영, “회복적 정의의 이해”, 한국평화교육훈련원 <<http://kopi.or.kr/?p=1357>> (검색일: 2019.8.23.).

져 있지 않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 국제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성찰함으로써 기존 민족담론 중심의 통일교육의 대안으로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평화의 문제로 확장시켜온 교육 사례들이라 하겠다.

‘탈분단 평화교육’의 경우, 수행적 분단론 연구자들의 ‘분단수행성’과 ‘탈분단’ 개념을 평화교육과 연계한 개념이다.⁴¹⁾ 탈분단 평화교육은 비판적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국민교육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군사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주입식 반공교육에서 출발하여 나라사랑교육까지 지속되어 온 대북적대감 고취 중심의 교육을 해체함으로써 군사안보 위주의 국가중심안보를 넘어서는 대안적 상상력과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시민성을 만들어가는 ‘수평적 서로배움’을 강조한다.

‘여성주의/젠더 평화교육’은 가부장제 사회질서와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평화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평화교육으로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참여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만들기 과정에서 여성 주체 참여를 강조한다. 또한 여성주의 관점에서 군사안보 중심의 국가안보의 가부장성에 대해 비판하며 젠더논의를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육이라고 하겠다. 일부 평화교육 단체는 퀴어논의와 평화교육을 접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상호이해평화교육’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여성들, 소위 ‘한민족 디아스포라’라고 칭해지는 재외동포 여성들을 중심으로 각자가 살아온 삶의 맥락에서 달리 경험된 역사를 공유하는 평화교육을 지칭한다. 역사 속에서 주변화되어 온 여

41) 홍민,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 센터 역음,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 (파주: 한울, 2015). pp. 80~121.

성들의 목소리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평화교육과 맞닿아 있으나, 재외동포 여성들 중심으로 특정한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평화교육’은 평화의 문제를 생태와 연결지어 사유하고 실천하려는 교육이다. 분단의 상징적 지역인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적 의의를 조명함과 동시에 통일 이후의 생태를 중심에 둔 공존을 준비하며, 근본적으로는 사람과 생물이 선순환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현대사회의 물질문명 중심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이 유형의 평화교육은 생태를 평화의 핵심적인 축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분류하였다.

나. 유형별 평화교육 프로그램 실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특정한 틀로 유형화하기 어려운 다양성을 지닌다.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통해 그 특성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실태를 프로그램의 형식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화하였다. 이 절에서는 현행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따라, ① 연속강좌, ② 강연·세미나·포럼, ③ 캠프·기행, ④ 문화공연·행사, ⑤ 콘텐츠 개발 유형, ⑥ 상시프로그램형으로 분류하여 구분하였다.⁴²⁾

첫째, 연속강좌형은 각 단체가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1년 동안

42) 아래의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은 조정아 외,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서울: 통일연구원, 2014) 중 사회통일교육 실태 평가에 적용한 틀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특성에 맞게 보완한 것이다.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강좌 유형은 다양한 지식을 많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과, 관심은 있지만 적극성은 부족한 학습자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개 강의와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구성되는 강좌는 전문가가 학습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 기회는 비교적 적고, 때문에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⁴³⁾ 연속강좌는 2회 이상으로 구성되어 특정 주제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보다 체계화된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여러 번에 걸쳐 같은 교육공간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좌 유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의 프로그램은 특정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불연속적이고 일회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유형의 프로그램은 평창동계올림픽이나 남북정상회담과 같이 특정 계기에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개별 단체들이 연례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셋째, 캠프 및 기행 유형은 일정 기간 숙박을 포함하는 집중프로그램이나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기행프로그램으로, 평화 및 분단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넷째, 문화공연·행사 유형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예술적 접근 방식으로 주제를 다룸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주제와 관련된 감수성과 상상력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이다. 연극, 뮤지컬, 공연, 전시회와 같은 문화행사와 발표대회와 같은 행사 성격을 띠는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콘텐츠 개발 유형의 프로그램은 교육자료나 특정 주제의

43) 박신향, “PBL수업과 강의식 수업 비교를 통한 수업 방식 선호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9호 (2016), p. 499.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는 기존에 없는 창의적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측면과 함께, 개발자가 아닌 다양한 주체들이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각각의 교육환경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용하고 확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여섯째, 상시프로그램은 단체 및 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의뢰 및 신청을 통해 학교 등의 외부 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형태와 참가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의 경우에는 현장방문 프로그램이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상시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이하에서는 평화교육 단체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개요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⁴⁴⁾

(1) 연속 강좌형

(가)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길라잡이 양성 심화교육

- 교육목적: 어린이대상 평화교육 전문가 양성
- 교육기간: 2019년 4월
- 교육대상: 1~4기 평화길라잡이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평화워크숍(9월초): 파주 도라산역, 적군묘지 등 현장답사 및 심화교육
 - 남북관계 따라잡기
 - 평화교육, 평화롭게 하기
 - 2019년 교안교육

44)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은 관련 단체의 내부자료 또는 온라인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별 각주는 생략하였다.

(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 평화, 안보(WPS)와 성평등한 한반도 이니셔티브 구상 프로젝트**

- 교육목적: 여성평화안보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교육기간: 2019. 4. 1. ~ 11. 30.
- 교육대상: 여성평화활동가 및 시민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주제 및 컨셉
1차	5/7(화), 18:30	• Women, Peace, Security 글로벌 의제 및 UNSCR 1325 국가행동계획, 그리고 한반도 평화과정: 어떻게 만날 것인가?
		사회 김정수(평화여성회 상임대표)
		발제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정현백(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여성평화포럼 공동대표, 계명대학교 교수)
2차	5/21(화), 18:30	• 성인지적 한반도 평화 아젠다 - 한반도 평화과정, 비핵화, 평화협정, 평화체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의 재구성과 의미있는 여성 참여 모델 만들기
		사회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발제 서보혁(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조영미(2020 Women-led “Korea Peace Now” Global Campaign 여성평화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토론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고유경(WILPF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컨설턴트)
3차	6/4(화), 18:30	• 분단폭력과 젠더폭력: 정의, 범주, 내용 - 분단, 군사주의, 여성혐오, #미투의 연관성 - 평화문화 형성의 방법과 과제 찾기
		사회 한정숙(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
		발제 김엘리(명지대학교 객원교수)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서보혁(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4차	6/18(화), 18:30	• 북한사회의 변화: 시장화와 북한여성의 삶 - 북한여성의 일상 들여보기 - 남북여성의 삶의 질 개선과 권리향상의 과제

		주제 및 컨셉	
		사회	장미란(한국 YWCA 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
		발제	박현선(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윤보영(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원)
		토론	김화순(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원 연구교수) 엄주현(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국장)
5차	6/25(화), 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여성교류 - 남북여성 경제역량 강화와 협력 과제 	
		사회	정현백(전 여성가족부 장관)
		발제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김숙임(사단법인 조각보 이사장) 이영훈(SK경제경영연구소 상임연구원)
6차	7/9(화), 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평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통일교육, 평화교육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 젠더와 평화교육, 방법론과 내용 	
		사회	여혜숙(민주평통 여성상임위원회 위원장)
		발제	문아영(피스모모 대표)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대표이사)
		토론	김정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원) 이권명희(인권, 평화감수성 훈련 전문강사)

(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교육 진행자 훈련 과정

- 교육목적: 평화통일교육의 이해, 한반도 평화과정에 참여
- 교육기간: 2019. 5. 1. ~ 10. 31, 18:00~21:30
- 교육대상: 평화에 관심있는 사람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횟수	강의명(주제)	강사
1회	평화통일교육의 이해	김정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사업단) 정서윤(민주평통 주무관)
2회	한반도 평화란 무엇인가?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3회	차이와 인정 적대감 해소와 편견 극복	이권명희(여성사회교육원 교육이사)
4회	대화로 평화통일 이끌기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대표이사)
5회	교육진행방법론 교육기획안 구성	김지선(카톨릭대학교 강사)
6회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배우기	박인혜(갈등문화연구원 원장)
7회	조별 교육진행 시연 및 수료식	김지선(카톨릭대학교 강사) 박인혜(갈등문화연구원 원장)

(라) 피스모모: 모모평화대학

1) 모모평화대학

- 교육목적: 평화학개론 소개 및 분야 간 연계적, 실천적 사유 촉진
- 교육기간: 프로그램 별로 상이
- 교육대상: 평화에 관심 있는 사람
- 교육인원: 학기당 평균 수강생 4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2017 모모평화대학 봄학기

- 교육기간: 2017. 4. 3. ~ 5. 29. (매주 월요일, 19:00~22:00)

차수	주제	진행자
1강	평화에 대해서/위해서 공부하는 것의 의미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2강	차별, 불평등, 폭력, 전쟁의 발생과 정당화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3강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국가폭력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4강	성적소수자 운동	한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

차수	주제	진행자
5강	이주민과 난민 인권 운동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대표)
6강	병역거부운동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임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7강	노동의 관점에서 본 여성주의와 평화	임혜숙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부원장)
8강	평화적 실천의 이야기 종합과 정리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 2017 모모평화대학 가을학기: 탈 분단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 교육기간: 2017.11.1.~12.6.(매주 수요일, 19:00~22:00)

차수	주제	진행자
1강	왜 탈분단 평화교육인가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2강	분단체제가 만들어내는 폭력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3강	군사주의와 남성성	김엘리 (명지대 객원교수)
4강	식민성, 서열주의, 일상의 폭력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5강	예술과 만나는 탈분단 평화교육의 상상력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하늬 (피스모모 연구기획팀장)
6강	탈분단 평화교육의 방향과 구상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 2018 모모평화대학 봄학기: 실천 평화학 포스트평창, 탈 분단을 상상하다

• 교육기간: 2018.4.11.~5.23.(매주 수요일, 19:00~22:00)

차수	주제	진행자
1강	실천평화학: 포스트평창, 탈분단의 문제제기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2강	분단체제가 만들어내는 폭력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3강	탈/분단의 장치와 수행성	조영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차수	주제	진행자
4강	젠더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단체제	김엘리 (명지대 객원교수)
5강	포스트평창, 분단체제의 흔들림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6강	포스트평창 평화 담론과 평화교육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7강	'탈분단' 평화실천 방향 및 구상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 2018 모모평화대학 겨울학기: 군축의 모든 것

- 교육기간: 2018.4.11.~5.23.(매주 수요일, 19:00~22:00)

차수	주제	진행자
1강	2018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연감 한국어 요약본 및 SIPRI 연감 남북한 부분 발췌 강독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하니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연구실장)
2강	유엔 군축 의제 보고서 & 유엔/세계은행의 새로운 갈등예방 평화론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소장)

(마) 피스모모: 평화교육 입문과정

- 교육목적: P.E.A.C.E 페다고지에 기반한 평화교육 진행자 트레이닝
- 교육기간: 2013년부터 정례적 운영, 매주 토요일 총 4회,
10:00~17:00(총 24시간)
 - 평화교육 입문과정 10기: 2017.6.10.(토)~7.1.(토)
 - 평화교육 입문과정 11기: 2018.6.2.(토)~6.23.(토)
 - 평화교육 입문과정 12기: 2019.5.25.(토)~6.15.(토)
- 교육대상: 교사 및 교육자, 교육 활동가
- 교육인원: 기수별 3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평화교육의 주요 개념과 내용 및 주제 이해
- P.E.A.C.E. 페다고지에 담긴 철학, 이론적 기반에 대한 이해
- 서로배움 공동체의 의미와 가르치지 않는 평화교육 진행자의 역할 탐구

차시	내용 / 활동
1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배움의 공동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모두가 존중 받고 환영 받는 배움의 공동체 - 자기표현 및 알아감의 시간 • 평화감수성에 기반한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 몸과 마음으로 듣는 경험 -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는 축진의 경험 - 언어적 의사소통 외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 경험하기
2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과 폭력 낫설게 보기: 구조와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를 넘어, 구조와 문화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 낫설게 보기 - 차이와 차별을 권력과 이분법적 사고에 연계하여 성찰하기 • 권력 낫설게 보기: 교육과 권력 연계하여 사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힘, 권력과 연관 지어 낫설게 보기 - 교육의 과정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다양한 작용 발견하기 - 다양한 권력 경험하기 - P.E.A.C.E 페다고지
3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분법을 넘어, 다양성 상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제의 패턴을 관찰하고 이분법을 넘어서기 - 존재의 존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 • 차이와 차별의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와 차별의 경계, 민감하게 알아차리기 - 권력/폭력과 연관 지어 성찰하기
4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인간존재, 더불어 사는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된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보기 - 더불어 살기 위한 일상 속 대안을 함께 고민하기 • 서로 배움의 평화교육 기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C.E 페다고지 - D.O.E.R.S 모델

(바)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회복적 정의/생활교육 통합과정

- 교육목적: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조직 체질 분석 및 개입을 통한 변화
- 교육기간: 프로그램 별로 상이
- 교육대상: 참가 희망자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피스빌딩 워크숍 1, 2

- 교육기간: 2019.1.7.~1.11. / 2019.1.21.~1.25.

피스빌딩 워크숍 1			
구분	주제	내용	시간
시나리오 워크숍	정의가 만들어낸 필요들	- 잘못이 생겼을 때 각자 다른 당사자들은 무엇을 채우기를 기대하는가? -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의 필요	20
회복적 정의 이해 I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 이해 - 응보적 vs 회복적 정의 - 회복적 정의 방향성	
	회복적 정의 운동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 회복적 정의 운동의 발전 역사 -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회복적 정의 운동 이해	
	회복적 정의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 국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온 회복적 정의 적용사례 - 대상별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생활교육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회복적 생활교육의 철학적 이해 - 처벌과 변화의 상관관계 - 훈육, 가정교육, 생활지도의 방향	
	회복적 생활교육,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 회복적 학급운영과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만들기 이해 - 회복적 학교 만들기의 과정	
피스빌딩 워크숍 2			
구분	주제	내용	시간
질문 패러다임	회복적 질문 만들기	- 질문 패러다임 - 회복적 질문으로 전환하기	20

공동체	공동체와 존중의 약속 공동체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동체 훈련	- 공동체의 의미 - 평화감수성 훈련을 통한 공동체 관계성 만들기 - 구성원 상호간 존중의 약속 만들기 -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차이로 발생하는 충돌의 지점 돌아보고 서로간 행동의 boundary 형성하기	
신뢰서클 이해와 실습	신뢰서클 이해 및 실습 신뢰서클 기획	- 민주적 소통, 의사결정 방식인 서클 배우기 - 서클의 기원과 원리, 특징 살펴보기 - 서클 활용과 진행을 위한 기획하기	
신뢰서클 구성하기	센터피스와 토크스틱	- 센터피스 꾸미기 - 나만의 토크스틱	

□ 피스빌딩 워크숍 3, 4

• 교육기간: 2019.7.29.~8.2. / 2019.8.5.~8.9.

피스빌딩 워크숍 3			
구분	주제	내용	시간
회복적 정의의 이해 II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의문들	- 회복적 정의가 자주 받는 도전적 질문들 - 회복적 정의가 아닌 것은?	20
	회복적 정의와 수치심의 긍정적 활용	- 회복적 정의와 수치심의 관계 이해하기 - 문제행동의 동기로서 수치심 이해하기 - 9가지 정서이론을 이해하고 서클의 필요성 배우기	
다양한 서클의 기획	긍정적 탐색과 서클의 활용	- 긍정적 탐색이론을 배우고 서클에 활용하기 - 관계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서클 기획하기	20
	인생 서클	- 신뢰서클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서클 기획하기	
	스터디 서클	- 일상적 의사결정과 의견조율을 위한 서클 기획하기	
	애도 서클	- 슬픔과 충격을 공동체적으로 전환시키는 서클 기획하기	
서클 진행자	서클 진행자를 위한 팁	- 서클 진행에서 유의할 점 -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서클과 다른 프로그램의 연계	
피스빌딩 워크숍 4			
구분	주제	내용	시간
갈등 전환의 이해	갈등전환	- 갈등에 대한 기본 이해 - 갈등전환 개념이해	20
	갈등분석	- 표출된 갈등 이면의 원인 파악 - 실익 중심의 갈등해결 시도	
	갈등대응유형	- 5가지 갈등대응 유형 - 나의 갈등대응유형의 장단점	

갈등 전환을 위한 의사소통	공감적 경청	-공감적 경청의 3요소 배우기 (사실, 감정, 가치)
	의사소통	-갈등상황에서의 의사소통법 -바꾸어말하기, 요약하기, 나 전달법
문제해결 서클	서클을 통한 문제해결 접근	-갈등전환을 위한 1:1 회복적 대화훈련
		-갈등전환을 위한 1:2 회복적 대화훈련
		-문제해결 서클의 기본절차
		-회복적 질문의 체득화
		-문제해결 서클 실습

(사)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회복적 조정자 양성과정 - 2019년 2급 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목적: 회복적 조정역량을 갖춘 전문 조정자 양성
- 교육기간: 프로그램 별로 상이
- 교육대상: 참가 희망자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 분	날 짜	주 제
1차	5/3(금)~5/4(토)	소개와 기대나눔 서클 회복적 조정의 이해와 적용 조정자 역량강화 I - 의사소통 훈련
2차	5/10(금)~5/11(토)	조정자 역량강화 II - 분석과 쟁점 찾기 단계별 훈련: 사전모임
3차	5/17(금)~5/18(토)	회복적 조정 과정 단계별 훈련: 5단계의 회복적 조정 배우기
4차	5/24(금)~5/25(토)	회복적 조정 실습 1 (사전모임-본모임)
5차	5/31(금)~6/1(토)	회복적 조정 실습 2 (조정 시연 및 피드백)
6차	6/7(금)~6/8(토)	회복적 조정 실습 3 (전체 과정 실습 및 피드백)
필수교육	6/22(토)	실습 오리엔테이션 (강의 2시간, 서클 2시간, 오리엔테이션 2시간)
실습 및 평가	6/9(일)~9/7(토)	회복적 대화 총 6회(회복적 조정 2회+서클 4회) 진행 및 보고서 제출 / 실습평가
자격시험일	9/21(토)	2급 검정시험

(2) 강연회·세미나·포럼형

(가) (사)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 심포지엄

- 교육목적: 한반도 평화와 평화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 촉진
- 교육기간: 2016년부터 연례 프로그램으로 운영
- 교육대상: 참가희망자

□ 2016 평화교육 심포지엄: 한반도 평화교육의 길을 찾다.

- 일정 및 장소: 2016.11.4.(금), 14:00, 창비 50주년 홀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1부: 평화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새로운 시도

발표: 정용민(월계고등학교 교사)

토론: 김선혜(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배성호(삼양초등학교 교사)

이대훈(성공회대학교 평화학 교수)

2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평화통일을 위한 어깨동무의 길 찾기

발표: 정영철(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토론: 김동진(트리니티칼리지 더블린 국제평화학 겸임교수)

박보영(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강의교수)

최혜경(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 2017 평화교육 심포지엄: 평화교육은 우리를 바꿀 것인가

- 일정 및 장소: 2017.11.15, 창비 50주년 홀
- 상세 내용 및 프로그램

[초청 강연]

폭풍 이후의 잔잔함 : 분쟁 이후 평화구축의 과제: 콜린 크랙(코리밀라 대표)

[발 표]

북아일랜드의 평화교육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강순원(한신대 교수)

[이야기]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영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소장)

[발 표]

평화교육과 좋은 관계 맺기: 인형극을 활용한 사례 연구:이본 네일러(퍼펫 우먼 대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양은석(서울수송초 교사)

피구 놀이에서 배우는 평화: 최관의(서울세명초 교사)

[이야기]

정진화(서울 강신중 교사)

윤철기(서울교대 교수)

□ 2018 평화교육 심포지엄: 평화프로세스에서 평화교육의 역할

- 일정 및 장소: 2018.11.12.(월), 서울글로벌센터
 - 상세 내용 및 프로그램
-

[강연]

스토리텔링, 예술, 평화교육: 포트리 오투마(코리밀라 리더)

분쟁지역 청소년의 평화교육과 사회통합: 알란 화이트(알시티 대표 매니저)

어깨동무 평화덕목과 평화교육 교안 만들기: 박종호(신도림고등학교 교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교육: 정영철(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소장, 서강대학교 교수)

[토론]

김동진(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IRC 마리퀴리 펠로우), 윤철기(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정진화(강신중학교 교사)

(나) (사)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 전문가 과정 - 평화로운 변화를 위한 대화프로그램(DPC)

- 일정: 2019.7.29.(월)~8.2.(금), 11.12.(화), 서울글로벌센터
- 상세 내용 및 프로그램
- 교육대상: 교사, 평화교육활동가, 어린이어깨동무 활동가 등 성인 24명
- 상세 내용: 콜린 크랙(Colin Craig)이 DPC(평화로운 변화를 위한

대화 프로그램)를 한국에서 직접 진행

(다) (사)조각보: 피스테이블

- 교육목적: 통일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상상의 장, 토론의 공간 마련을 통한 전문가 풀 형성 및 여성들의 비전, 구체적인 의제와 역할 형성
- 교육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 제1차 피스테이블: 한반도 in-out한 코리안여성들의 통일과정에서의
우려와 희망, 우리에게 통일은 과연 무엇인가?

- 교육일정: 2019.5.2.(목), 19:00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 사회: 강남식(현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 사무총장, 전 한국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교수)
 - 발표: 남북한 사회문화통합 및 통일과정에서 우려되는 점
- 조정아(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통일과정에서의 우려와 희망:동포들의 목소리
- 김윤애(북한동포, 서울대 박사과정)
- 박연희(중국동포, 전 연길시 실험중학교 교사)
- 양이리나(고려인 동포, 서울대 석사과정)
- 이순려(재일동포, 작가)
- 최선희(한국,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대표)
-

□ 제2차 피스테이블: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인가?

- 교육일정: 2019.8.29.(목), 19:00
- 상세내용 및 프로그램

-
- 주제:
 - 통일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 통일 이후를, 지금 여기의 우리와 연결하려면?
 - 사회문화적 접근은 왜 중요한가?
 - 여성주의적 접근은 어떻게 가능한가?
 - 사회: 김숙임(사단법인 조각보 이사장)
 - 발표: 박영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 토론: 이슬기(서울대 통일교육연구센터)
손혜민(미국 RFA 기자)
-

(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평화토크쇼: “2030년 통일 한국의 모습: 여성과 청년이 기대하는 것은?”

- 교육목적: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 교육일정: 2019.8.9.(금), 18:30~20:30
 - 교육대상: 참가 희망자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 등록 및 인사 나눔(18:30~18:50)
 - 첫째: 패널 토크쇼(18:50~19:30)
 - 2030년의 통일 한국: 명과 임(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청년들이 바라는 통일 한국의 모습은?(전지혜 서울청년겨레하나 회원)
 - 통일에 대해 여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둘째: 퍼실리테이션 토크쇼(19:30~20:00)
 - 2030년 통일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질문 모아보기
 - 셋째: 마무리 토크쇼(20:00~20:30)
 - 패널들의 답변과 전체 토크 이어가기
-

(마) 피스모모: 연례 포럼 및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 2017 포럼: 전쟁의 북소리에 춤추지 않는 교육

- 교육목적: 평화교육과 비판적 교육학, 평화 시민 역량과 비판적 시민성 논의 촉진

- 교육일정: 2017.9.28.(목), 13:00~18:00
- 교육대상: 변화된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관심 있는 사람, 평화-안보 영역의 시민참여와 그것을 위한 교육적 개입에 관심 있는 사람, 시민교육, 비판적 교육학 또는 평화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 기조연설 : 교육은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 마이클 애플(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 석좌교수)
 - 발제 1: 분단과 군사주의를 넘어서는 시민교육
- 김엘리(명지대 객원교수)
 - 발제 2: 평화교육과 비판적 페다고지
- 이대훈(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 질의응답 & 그룹토론
-

□ 2018 비전포럼

- 교육목적:
 - 한반도 평화 정책 실행을 지지하는 시민의식 저변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글로벌 시민성에 대한 인식 제고
 - 평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사회적 문화로서의 평화감수성 증진
- 교육일정: 2018.5.31.(목), 13:00~18:00
- 교육대상: 참석 희망자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 2018년 평화교육 브리핑 - 문아영(피스모모 대표)
 - 글로벌시민성 관점에서 국내 평화교육 현황 진단- 윤지영(피스모모 정책팀장)
 - 북한의 현 교육상황에 대한 진단 및 공유-차승주(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 남북한 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방향 제안 - 정서윤(민주평통 주무관)
 - 경계를 넘나드는 시민성 함양의 중요성: EU 사례- Isabelle De Coster(European Commission)
 - 탈분단시대의 비판적 평화교육 - 이대훈(성공회대)
 - 탈분단시대의 평화교육 증진방향 - 한민호(제주 노형중 교사)
 - 탈분단 시대 평화교육의 정책방향 - 강선옥(서울시교육청 장학사)
-

□ 2018 포럼: 전쟁의 북소리에 춤추지 않는 교육

- 교육목적: 평화교육과 비판적 교육학, 평화 시민 역량과 비판적 시민성 논의 촉진
- 교육일정: 2017.9.28.(목), 13:00~18:00
- 교육대상: 탈분단 시대의 교육의 역할에 관심 있는 사람 시민교육, 비판적 교육학 또는 평화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 2018년 평화교육 브리핑 - 문아영(피스모모 대표)
 - 분단과 적 이미지- 노순택(사진사)
 - 전쟁을 동원하는 문학, 전쟁이 동원하는 문학- 조서연(페미니스트 문화연구자)
 - 나라사랑교육 현황 및 평가 - 윤지영(피스모모 정책팀장)
 - 분단을 담아내는 남북한 교육의 시선 - 차승주(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 패널토론: 탈분단 시대의 교육
 - 이대훈(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 포스트평창 2030 사회적 대화: 평창올림픽은 무엇을 남겼나

- 교육목적: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들여다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함.
- 교육일정: 2018.2.27.(화), 10:00~16:00
- 교육대상: 20~30대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 더 깊게 듣기 위한 소통 워크숍
 - 이대훈(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소장)
 - 다양한 토론 방법을 활용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

□ 2030 사회적 대화 -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

- 교육목적: 2018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 수렴
- 교육일정: 2018.5.4.(목), 14:00~18:00
- 교육대상: 20~30대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 2018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청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반응을 말하고 서로 듣는다.
 - 2018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청년들의 성찰적 대화의 장을 연다.
 - 합의나 결론을 추구하지 않고, 다양성 존중, 경청, 질문, 이해, 합리적 기대, 연결, 종합의 대화를 추구한다.
 - 2018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한다.
 - 2030들의 사회적 대화를 역사 증언과 평화만들기의 한 과정으로 삼는다. 연속성을 염두에 둔 대화의 장을 만든다.
-

(바) 한국 YWCA: 길 위의 평화포럼

- 교육목적:
 - 다양한 세대, 지역(탈북민 포함) 상호 이해와 평화 통일 관심 제고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지역 여성 역량 강화
 - YWCA 평화 운동가 양성
- 교육일정: 2017~2019년
- 교육대상: 지역 여성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내용	일정
2017	북한 여성의 삶 이해	4~9월 셋째 목요일, 오후2시
2018	평화협정 이해	
2019	국제정치와 한반도 정세를 통한 남북 관계 이해	(총 5회: 4, 5, 6, 7, 9월)

- 2019년 교육내용

	내용	일정
2017	북한 여성의 삶 이해	4~9월 셋째 목요일, 오후2시
2018	평화협정 이해	
2019	국제정치와 한반도 정세를 통한 남북 관계 이해	(총 5회: 4, 5, 6, 7, 9월)

(3) 캠프 및 기행형

(가) 아시아평화교육워크숍⁴⁵⁾

- 교육목적: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도전 속에서 평화교육과 평화운동의 역할 논의
 - 적대와 혐오, 군사주의를 넘어서는 평화교육과 평화운동의 역할에 대한 토론
 -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연결 구체화
- 교육일정: 매년 가을 (2016년부터 연례 프로그램으로 운영)
- 교육대상: 아시아 평화교육 활동가

45) 국내외 평화단체들의 연대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피스모모가 군산 평화바람, 평택평화센터, 강정평화학교와 함께 사무국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 2016 아시아 평화교육 워크숍

- 교육일정: 2016.9.1.(목)~9.4.(일), 제주 강정마을 및 제주 지역

날짜	프로그램	
9/1	여는 퍼포먼스 • 평화교육의 다양한 사례와 도전 - 워크숍 참여 단체들의 활동 소개와 교류	
	저녁식사 및 서로 환영하는 시간	
9/2	강정마을 순례 및 인간띠 잇기 참여 점심식사와 휴식 • 군사주의와 평화교육의 도전 - 군사주의와 젠더/생태계/마을/자본주의/한반도/삶/평화교육	
	저녁식사 • 군사기지와 일상 : 군사기지로 인해 변화하는 삶의 모습과 저항 - 평택과 군산의 사례중심으로	
	• 평화교육 난장 : 참여단체들이 각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는 부스 행사	
9/3	인간띠 잇기 참여와 점심식사 닫는 퍼포먼스 강정평화컨퍼런스 전체 프로그램 참여 - 기조연설	
	저녁식사 강정평화컨퍼런스 평화교육 선언문 초안 작업	
	9/4	선언문 작성 점심식사 강정평화컨퍼런스 선언문 발표

□ 2017 아시아 평화교육 워크숍

- 교육일정: 2017.11.17.(금)~11.19.(일), 제주 강정마을 및 제주 지역

날짜	프로그램
11/17	• 기조발제 - 영화 “새도우월드” 상영 - 무기거래 관련 다큐멘터리
11/18	• 그룹토론 1 - 군사주의에 맞서는 평화교육과 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 점심식사 / 인간띠잇기 활동 참여
	• 그룹토론 2 - 군사주의에 맞서는 평화교육과 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
	토론 종합성찰 저녁식사

날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키나와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사례 - 필리핀 민다나오 평화운동과 평화교육 사례
11/19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교육에 대한 공동제안서 작성 인간띠 잇기 참여와 점심식사 달는 퍼포먼스 폐회식

□ 2018 아시아 평화교육 워크숍

- 교육일정: 2018.9.14.(금)~9.16.(일), 제주 강정마을 및 제주 지역

날짜	프로그램
9/14(금)	필드트립1: 4·3 역사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적대립을 넘어서는 평화구축의 시대, 교육의 준비와 역할 - 평화교육/운동 현장의 이야기 & 미래를 상상하기:
9/15(토)	필드트립2: 강정마을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사례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와 피해의 경험을 통합하는 오키나와 평화운동 과정과 실천 - 개발과 자본주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베트남 전쟁 점심식사 & 인간띠잇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사례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그리고 전쟁난민 - 제주 예멘 난민 사례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적대와 혐오, 그리고 연대 • 발제/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은 어떻게 기억, 학습되는가? - 평화교육을 둘러싼 상황: 평화교육 정책 현황을 중심으로
9/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책 & 이야기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교육의 시도와 실천 사례 나눔 • 성명서 작성 및 채택 • 달는 마당

(나)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 담당 교사 워크숍

- 교육목적: 평화·생태·역사 동아리 담당 교사 평화교육
- 교육일정: 2019.5.31.(금)~6.1.(토), 파주 일대 분단현장(적군묘지 등)
- 교육대상: 인천교육청 강화도교육지원청 소속 평화·생태·역사

동아리 담당 초·중등 교사 3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일시	프로그램	강사
5/24 (금)	• 남과 북 아이들에게 철조망이 없다 - 북녘을 오가며 버려낸 평화공동체 이야기 - 어제의 평양, 오늘의 평양	이기범(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숙명여대 교수)
	저녁 식사	
	한반도 평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성숙(어깨동무평화교육센터 연구팀장)
5/25 (토)	아침 식사	
	이동	
	회복적 정의를 위한 모색: '적군묘지 앞에서'	박종호(어깨동무평화교육센터 연구위원·신도림고 국어교사)
	추모를 위한 명상	양혜경(전통넛전춤연구소장)
	오두산전망대	
	이동	
	음식으로 만나는 북녘: 점심식사(평양냉면)	

(다) 어린이어깨동무: 동아시아어린이캠프

- 교육목적: 동아시아 지역의 어린이 평화 캠프
- 교육일정: 2019.8.12.(월)~8.14.(수), 제주도 일대
- 교육대상: 한국, 중국, 일본 지역 어린이(교포 어린이 포함) 약 50명, 진행자 약 20명
- 연대 단체: 일본 조선학교, 일본 남북코리아와 일본 어린이 그림마당, 연길 아동도서관

(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세대공감 평화통일 기행 일정

- 교육목적: 어린이, 청소년, 여성, 일반 시민들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기행
- 교육일정: 2019.9.5.(토), 8:40~18:00
- 교육대상: 어린이, 청소년, 여성, 일반 시민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일정 (강사: 이영동(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
 - 8:40~8:50 인원점검
 - 8:50~10:00 이동
 - 10:00~11:00 임진각
 - 망배단
 - 녹슨 증기기관차
 - 체험 활동: 평화의 리본달기(민통선 철책선)
 - 통일대교(정주영 회장의 뜻으로 통일소 1,001마리가 소떼 방북을 한 다리)
 - 11:00~12:30 도라산역/도라산전망대
 - 도라산역: 2007-2008년 남북한이 왕래했던 국제역
 - 도라산전망대: DMZ 너머 개성공단, 개성시내 조망가능
 - 12:30~13:30 식사
 - 13:30~14:20 이동(파주~연천)
 - 14:20~16:00 승전OP
(철책선 걷기 및 최근 철거된 DMZ내 GP 조망, 군장병 브리핑)
 - 16:00~18:00 이동(연천-합정역)

(마) 피스모모: 청소년집시워크

- 교육목적:
 - 평화감수성에 기반한 소통과 관계 맺기
 - 관계적 자기결정권과 다양성 존중
 - 사회 갈등/폭력에 대한 글로컬적 이해
 - 지속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비전
 - 평화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와 역량 증진
- 교육일정: 매년 여름(7~8월, 2015년부터 지속)
- 교육대상: 만 12~20세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2019년)

1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 안전한 배움의 공동체 만들기 - 평화감수성에 기반한 소통
-----	---

2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와 폭력에 대한 이해 - 차이에 대한 감각, 다양성에 대한 감각 -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일상의 힘
3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드워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정의기억연대 수요집회 ② 경기북부평화네트워크, 성병검사소 등 동두천 일대 ③ 평택평화센터, 대추리역사관 ④ 4.16 기억교실, 단원고등학교
4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드카페 “우리는 평화를 위해 무엇을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시 평화 기억관에서 말하고 싶은 것들, 평화를 위해 기억하고/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안부,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② 동두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③ 대추리,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④ 세월호,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 필드워크 나눔 (20분) + 질문 (10분) x 2회
5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드워크를 포함한 집시워크 공유회 준비
6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시워크 공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친구, 동료들을 초청하여 일주일간의 배움을 공유한다.

(바) 한국DMZ평화생명동산

- 교육목적: 6·25전쟁의 아픔과 상처, DMZ 일원의 지리적·생태적 현황과 가치, 중동부 산악 DMZ 일원의 생태와 식물상 관찰
- 교육일정: 사전신청에 따라 상시프로그램으로 운영
- 교육대상: 청소년 및 성인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주제	장소	내용	소요시간 (분)
생태체험교육	대암산 용늪 (해발 1,250m)	국내 람사르습지 1호	240
	대암산 심적산림습원 (해발 700m)	대암산 700m에 위치한 산지습지에 서식하는 끈끈이주걱 등의 습지식물과 나비 관찰	240

주제	장소	내용	소요시간 (분)
	향로봉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백두대간과 DMZ가 만나는 한반도의 대표적인 생태지역 탐방	180
	인북천	하천생태계의 이해와 민물고기 탐사	180
DMZ 생태체험교육	을지전망대, 산양증식센터	DMZ내부의 숲과 하천, 복녘당 조망, 산양증식센터, 해안면(편치불)	210

(사) 한국YWCA: 한민족여성과 함께하는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 교육목적:
 -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한국YWCA 창립 95주년부터 100주년까지의 비전수립을 위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 우리 사회의 평화 인식 확산 및 통일운동의 지평 확대
 - 여성평화운동의 비전 확립 및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
- 교육일정: 2017년에 연례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상시프로그램으로 운영
- 교육대상: 한민족 여성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시기	주제	내용
2017/10/26 ~10/28	전쟁/분단	• 한라산, 백록담에서 평화를 열다 • YWCA의 평화운동 인식 확산
2018/10/1 ~10/2	남남갈등	• 어머니 산, 지리산에서 평화를 외치다. • 남한 백두대간의 시작점, 영신봉에서 남남의 화해 기반 조성
2019/9/30 ~10/2	디아스포라	• 하나였음의 기원, 평화를 꿈꾸다. • 북한 백두대간과의 첫 만남. • 한민족여성모임 25주년
10월 중	상처 회복	• 평화를 바라보다. • 전쟁, 연령, 성 등 상처와 아픔으로부터의 치유
10월 중	합일-입산	• 자연과 인간의 만남, 합일

시기	주제	내용
8~9월 중	합일-평화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다 • 한국YWCA 100년 이후, 미래를 향한 발돋움과 평화 선포

(4) 문화행사·공연형

(가) 피스모모: 살롱 드 모모

- 교육목적: 평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문턱 낮은 프로그램으로 운
- 교육일정: 분기별 2회, 연간 8회 운영
- 교육대상: 관심 있는 시민

□ 살롱 드 모모, 봄

- 교육일정: 2019.3.27.(수), 19:00~21:30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한국 영화 속 남북관계, 분단의 상황은 어떻게 그려져왔을까요? “살롱 드 모모- 토크 콘서트, 봄”에서는 영화 “변호인”과 “강철비”를 만든 양우석 감독과 유지나 영화평론가를 초대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 프로그램 이야기 손님 토크+참가자 간 토크+질의응답
 - 한국 영화에서 분단, 남북관계가 재현된 방식과 내용, 그것의 시대적 변화
 - 영화 강철비에 담긴 남북한의 이야기
 - 변화되는 남북관계의 상황 속 시민들에게 필요한 준비와 평화적 상상력

- 이야기 손님
 - 양우석 감독(영화 변호인, 강철비)
 - 유지나 영화평론가(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

□ 살롱 드 모모, 여름

- 교육일정: 2019.6.19.(수), 19:00~21:30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 1920년대부터 1950년대 즈음까지 급변하는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했던 허정숙, 주세죽, 고명자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세 여자〉. 분단사에서 여성들의 삶과 서사를 드러내고 조명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지, 페미니즘 관점에서 분단을 넘어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 조선희 작가가 이야기하는 소설 『세 여자』
 - 장영은 연구자의 『세 여자』 해제
 - 참여자 간 테이블 토크

 - 이야기 손님
 - 조선희 작가(『세 여자』 저자, 서울문화재단 대표(전))
 - 장영은 문학연구자(『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저자)
-

(나) 어린이어깨동무: 동아시아어린이 그림전

- 교육목적: 그림을 통한 남북, 동아시아 상호이해 및 평화교육
- 교육일정: 2019.9.28.~10.5.(본 전시), 2019년 6월(학교 전시)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그림’을 통해 북녘을 여행한다는 콘셉트로 평화그림전 진행
 - 남과 북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 북녘 물품, 교류 영상, 체험 활동등을 분류·배치하여 여행 콘셉트에 부합한 전시를 구성
 - 그림전에 사용되는 인쇄물(ex. 입장권·활동지)도 탑승권·방북증명서·평양 지하철 노선도(예시) 등으로 디자인하여 체험형 교구로 활용
 - 상설 전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학교(도봉초·목동중)에서도 순회전시를 개최하여 평화그림전의 확장성 도모
 - 전시내용: 북녘 어린이 그림, 동아시아 어린이 그림, 남북 어린이 교류 결과물 전시(영상 등)

(5) 콘텐츠 개발형

(가) (사)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 워크북 및 교구 발간

- 목적: 한반도 분단의 상황과 평화를 연결지을 수 있는 교육자료 연구 개발
- 일정: 연중
- 개발참가자: 어린이어깨동무 구성원
- 프로그램 내용

발행연도	제목
2000년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평화교육 교재 “남북한 평화 공동체를 위한 평화교육”
중략	
2016년	평화통일교육 워크북 초등교사용 “평화로운 미래를 꿈꿔요” 교구: 평화로운 통일밥상, 평화상상 토론카드
2018년	평화통일교육 워크북 초등용 “안녕? 친구야!” 평화통일교육 워크북 중등용 “평화를 상상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스토리텔링 평화교육”

(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평화·안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매뉴얼 개발

- 목적: 여성가족부 1325 교육매뉴얼 개발연구
- 일정: 2018년 7월~12월 10일
- 개발참가자: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덕경(갈등해결센터 부소장)
- 프로그램 내용
 - 여성·평화·안보 교육매뉴얼 개발
 - 여성·평화·안보 역량향상 평가 지표 마련
 - 여성·평화·안보 관련 해외사례연구

여성·평화·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매뉴얼 개발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II. 왜 여성·평화·안보인가?

1. 여성·평화·안보란 무엇인가?
2. 왜 여성·평화·안보가 중요한가?
3. '여성·평화·안보'와 전통적 '평화와 안보'
4. 여성과 갈등
5. 여성주의 평화와 안보
6.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본 '여성·평화·안보'

III. UN 안보리결의 1325호란

1. UN 안보리결의 1325호 채택 배경
2. UN 안보리결의 1325호와 의미
3.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의 참여
4. '여성·평화·안보' UN 안보리 후속 결의안들

IV. UN 안보리결의 1325호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1. 국가행동계획이란
2.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배경과 과정
3.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의 내용

V. 해외 UN 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사례

1. 필리핀
2. 미국
3. 아일랜드

VI.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안내 매뉴얼

1. 여성·평화·안보: What & Why?
2.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UNSCR 1325)란?
3.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이란?
4. 해외의 UNSCR 1325호 이행 성과는?
5. 매뉴얼 활용 사례

VII. 매뉴얼 활용 방안 및 교육평가

1. 매뉴얼 활용 방안
2. 교육 평가

■ 참고문헌 & 부록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영문/국문)
대한민국1기/2기 국가행동계획 (전문)

(다) 피스모모: 평화교육 교육 활동안 개발 및 배포

- 목적: 실제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활동안을 연구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평화교육의 현장 적용 촉진
- 일정: 연중
- 개발참가자: 피스모모 사무국 작성 및 배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
- 프로그램 내용

- 예멘 난민이슈 교실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이질적인 존재로 여겨지거나 약간 불편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존재를 무조건 배제하는 방식 말고 어떤 다른 방식이 가능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과정, 사회 갈등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교육 안에서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교육안

- 평화와 균축 교실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균비축소라는 주제를 교육 속에서 다루는 것은 승자독식과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라는 강자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문화에 질문을 던진다. 누군가의 삶을 해하고 그 존엄을 훼손하면서까지 나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적대의 문화와 적대를 정당화 하는 혐오의 골레에서 벗어나 환대와 공존의 의미에 대해 함께 환기하고 시민평화역량을 촉진하고자 하는 교육안

- 탈분단과 평화, 교실안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분단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의 삶의 태도와 양식, 사회의 구조와 체제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했을 때, 탈분단을 배움의 공간 안에서 다루는 것은 나를 둘러싼 세계를 읽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분단과 더불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단순하게 주어지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성되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깨달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범위로서의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이며, 참여자가 힘을 발견하는 자력화(empowerment)의 과정이 되도록 촉진하고자 하는 교육안

- 배움의 공간에서 전쟁을 어떻게 다르게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전쟁이 남성/비장애인/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기억, 국가가 승인한 기억이 아닌, 그저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는 전쟁이 되도록, 소수의 영웅만을 기억하는 방식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존재들을 헤아리고 기억하려는 방식으로, 고귀한 희생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고통과 상처, 아픔을 돌아보는 방식으로, 전쟁에 대한 이 사회의 기억을 다채롭게 만들어감으로써 전쟁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성을 촉진하고자하는 교육안

(6) 상시 운영 프로그램

(가) (사)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 사업(학교평화교육)

- 교육목적: 북녘 어린이들의 일상생활을 알아보고 서로의 문화차이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실천을 모색
- 교육일정: 2003년 1기를 시작으로 연례프로그램으로 운영
 - 2019년에는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한 교안을 개발하고, DMZ변화 프로젝트 카드, 평화남북관계사 등 교구 사용 확대
 - 2009년에는 서울, 경기 지역 초·중·고등학생 약 5,000명 대상 교육 실시

- 교육대상: 초·중·고등학생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초등)

수업 구성안			
1~2학년	다름을 이해해요	달라도 함께 살 수 있어요	다름을 이해해요 달라도 함께 살 수 있어요
3~4학년	북녘, 또 다른 내 친구가 살고 있는 곳	우리도 함께 살 수 있어요	북녘, 또 다른 내 친구가 살고 있는 곳 우리도 함께 살 수 있어요
5~6학년	북녘과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함께 살 수 있어요	북녘과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함께 살 수 있어요

(나) (사)어린이어깨동무: 피스리더

□ 피스리더-평화지킴이

- 교육목적: 어린이어깨동무의 어린이 회원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
- 교육일정: 2003년 1기를 시작으로 2014년 12기까지 연례프로그램으로 운영
- 교육대상: 10~14세 어린이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평화기자단 캠프, 평화기행, DMZ 통일 캠프, 평화지킴이 심화과정 등

□ 피스리더-평화이음이

- 교육목적:
 - 청소년 회원들이 평화를 실천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기 역할을 찾아 실천해 나가도록 준비
 -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평화, 인권과 분쟁 등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 운영

- 교육일정: 2010년 시작되어 연례프로그램으로 운영
- 교육대상: 15~19세 청소년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한반도(세계)의 평화이슈에 대한 토론,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기획 및 실행(캠페인, 선언발표, 설문조사, 책자 발간 등)

□ 피스리더-평화열음이

- 교육목적: 어린이어깨동무의 청년회원들의 모임으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자원활동가로 활동함과 동시에 평화실천의 다양한 교육과 활동에 참여
- 교육일정: 1996년 시작되어 상시프로그램으로 운영
- 교육대상: 20세 이상 청년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어린이 평화캠프 기획 및 실행, 평화워크숍 운영

(다) (사)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 교사(전문적 학습공동체)연수

- 교육목적: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대상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일정 및 장소: 2019년 5월~10월 경기지역 초등학교
- 교육대상: 경기도교육청 전문적 학습공동체 수행 초등학교

(라) 피스모모: 교육기관 방문연수 프로그램

- 교육목적: 교육기관 및 단체의 요청에 따라 평화감수성에 기반한 소통, 성 평등, 군사주의, 탈 분단 등 다양한 주제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기간: 교육 의뢰에 따라 상시 진행
- 교육대상: 교사, 교육활동가 및 청소년(연간 15,000여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평화 역량과 시민: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요청되는 시민성과 평화 만들기 역량이 갖는 의미와 실재를 연습하고 익히는 배움의 과정
- 군사주의를 넘어서는 평화/교육: 군사주의 문화와 정책, 이념과 가치가 어떻게 민주적이고 평화적 사회를 무너뜨리는지 그 실재를 이해하고 이를 넘어서는 평화의 문화와 정책을 그려내는 배움의 과정
- 젠더감수성과 평화역량: 여성의 삶에서 경험되어 온, 또 경험되고 있는 폭력에 대한 특별한 이해에 기초하여,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 어떻게 정당화되어 왔으며 젠더역학에 대한 이해와 그에 기반한 관계의 변화가 구조적 폭력과 일상적 폭력에 어떤 의미와 가능성을 가지는지를 탐구하는 젠더 관점의 평화 만들기 과정
- 평화 감수성에 기초한 글로벌 시민교육: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고 작은 것이 정치적인 것임을 인지한 글로벌시민으로 성숙되는 과정에서 평화의 가치, 평화 문화, 평화 만들기 역량이 갖는 의미와 실재를 연습하고 익히는 배움의 과정
- 변화의 교육학, 실천교육론 : 권력과 교육의 관계를 성찰하고 평화의 관점에서 현존하는 주류 교육의 구조적 폭력성을 성찰하고 변화를 모색하며 실천의 지점들을 함께 탐구하는 평화교육 전문 진행사 교육 과정

(마)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청소년 평화교육

- 교육목적: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으로 청소년들이 공동체에서 생기는 또래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서 만나며, 참여형 배움을 통해 평화 감수성과 평화적인 갈등전환 능력을 배양
- 교육기간: 청소년 교육 의뢰에 따라 상시 진행
- 교육대상: 청소년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과 목	시 간	대 상	회 기	주요 교육내용
신뢰서클	2시간 씩 1~3회기 (최대 3회기,	학급, 공동체	1	• 평화감수성 활동: 몸·마음 놀이 • 신뢰서클: 첫 만남 마음 열기
			2	• 평화감수성 활동: 몸·마음 놀이 • 신뢰서클: 더불어 관계 맺기

과 목	시 간	대 상	회 기	주요 교육내용
	총 6시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감수성 활동: 협력·존중 • 신뢰서클: 공동체 세움과 또래 지지
평화 감수성	4회기 이상 (8시간 이상)	학급, 동아리, 학생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감수성 활동: 몸·마음 놀이 • 신뢰 서클: 첫 만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감수성 활동: 차이·편견·차별·존중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의 이해와 갈등 다루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감수성 활동: 협력·팀 빌딩 • 공동체 세움과 또래 지지
회복적 정의의 이해 '등글게 만나기'	6회기 이상 (12시간 이상)	동아리, 학생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감수성 및 신뢰서클 활동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의 이해와 갈등 다루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 깊게 이해하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적 정의와 일상: 너와 나의 연결 고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적 의사소통 훈련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존중 배움과 공동체성 훈련
또래조정반	3회기 이상 (6시간 이상)	동아리, 학생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감수성 및 신뢰서클 • 갈등의 이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는서클 및 또래조정자의 이해 • 또래조정자의 역할과 자질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과 느낌 찾기 / 감정의 이해 • 2:1 경청 연습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조정 대화 연습 • 공동체 활동 및 마무리

(바) 한국DMZ평화생명동산

- 교육목적: DMZ현장에서 DMZ의 역사를 통해 “평화와 생명”을 배움으로써 갈라진 조국, 전쟁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이곳에서 인류가 진보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한국인 지구시민”의 삶을 학습
- 교육기간: 교육 의뢰에 따라 상시 진행
- 교육대상: 청소년 및 성인 등 시민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분야	강의주제	강의내용	강사
환경일반	생명의 위기와 문명의 대전환	자연파괴, 자원수탈형 산업구조와 대량생산·소비·폐기 거대문명의 복합작용으로 인한 인간소외와 생명의 위기를 알아보고,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명과 실천과제에 대한 강의	정성현 이사장
DMZ 생태	DMZ 일원의 생태계 일반 현황과 가치	DMZ 일원의 풍경사진과 생태계 설명, DMZ 일원의 동식물 현황과 특징, DMZ 일원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해 학습	황호섭 사무국장
	DMZ 일원의 식물 현황과 가치	DMZ의 나무 이야기 - 나무의 분류, 나무가 주는 생태계 혜택과 중요성, 한국과 DMZ에서 자라는 나무의 종류와 특징 등	박완근 교수
DMZ 인문사회	생명·통일로 가는 길	통일의 필요성, 통일을 위한 준비, 통일의 방법, 통일국가의 모습과 개인의 실천적 과제에 대한 강의	정성현 이사장
	인문학적 접근과 지속 가능발전 - 말과 밥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인 “밥”과 “말”의 근본과 기본에 대해 알아보고,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말하는 방법을 학습	

2. 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태

이 절에서는 2018년에 진행된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통일교육협의회 소속단체와 서울시에서 공모한 평화·통일교육 사업에 선정된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석대상 기관 중 통일교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는 28개이며,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가한 단체는 18개이다. 4개 단체는 통일교육협의회 소속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도 참가하였다. 전체적으로 42개 단체에서 진행된 60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은 평화교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따라, ① 연속강좌, ② 강연·세미나·포럼, ③ 캠프·기행, ④ 문화공연·행사, ⑤ 콘텐츠 개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교육

과 서울시 공모사업 모두 외부기관의 지원에 의해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간단체 자체의 상시운영 프로그램으로 분류된 것은 없다.

가.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교육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들 간의 협의기구로,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해 2000년에 설립되었다.⁴⁶⁾ 통일교육협의회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①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②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③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⑤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⑥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여섯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본부 사업과 분과위원회 사업, 지역협의회 사업 등 협의회 중앙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 이외에 소속 단체별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에서는 연대 사업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선정된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는 형태로 소속 기관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의 교육 실적을 보면 총 72개 소속 단체 중 2018년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실적을 보고한 단체는 28개로 전년도 31개였던 2017년과 비교했을 때 규모는 줄어들었다.⁴⁷⁾

46) 「통일교육 지원법」(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3호, 2018. 3. 13., 일부개정), 10조.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2008#J10:0>> (검색일: 2019.10.2.).

47) 통일교육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tongiledu.org/news/?pageid=3&mod=document>>

〈표 III-2〉와 같이 2012년, 2013년과 비교할 때, 소속단체는 다소 증가되었지만,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수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다.

〈표 III-2〉 통일교육협의회 소속단체 및 통일교육 실시 단체

(단위: 기준)

통일교육협의회	2012년	2013년	2017년	2018년
소속단체	63개	63개	64개	72개
통일교육 실시단체	31개	31개	31개	28개

2018년에는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를 통해 28개 단체가 선정되어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 III-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단체별 프로그램 개요를 교육목적, 기간, 대상, 인원,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본다.⁴⁸⁾

&uid=691, <http://www.tongiledu.org/news/?pageid=5&mod=document&uid=669>
(검색일: 2019.10.2.).

48) 이하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태는 『평화·통일교육의 길을 찾다!! 2018 사회통일교육 자료집』 (서울: 통일교육협의회, 2018).

〈표 III-3〉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의 2018년 통일교육 프로그램

구분	단체명	통일교육 사업명	①	②	③	④	⑤	소계
통일 교육 협의회	1	교육복지연구원	제2차 평화통일지킴이 준비교육	○	○			2
	2	국학원	제3회 평화통일기원 청소년 백일장·시생대회			○		1
	3	나이스피플	경부선 징검다리 역사현장에서 통일을 꿈꾸다			○		1
	4	남북문화교류협회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기반조성	○				1
	5	남북장애인교류협회	2018년도 연례 학술 세미나	○				1
	6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	제22회 평화통일연원 청소년 아영수련회			○		1
	7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2018 남북통일 기원 국민 대토론회	○				1
	8	대한불교조계종 민주본	금강산 옛길 따라 평화로, 통일로!			○		1
	9	동학민족통일회	동민회시민강좌			○		1
	10	새로운코리아구성위원회연구원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		2
	11	새물고하나된조국유한모임	평화공감, 통일리더자 양성교육	○				1
	12	선진통일간국연합	찾아가서 즐기는 선진통일 100분 토크쇼			○		1
	13	세계평화여성연합	다문화가정 '통일인문학 BOOK 카페'			○		1
	14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2018 청년학생 가상통일발표대회			○	○	2
	15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아시아시민학술포럼: 통일한국을 위한 평화정착과 한반도제			○		1
	16	어린이어깨동무	화해와 협력을 준비하는 평화통일교육	○				1
	17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평화실용 -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를 미주하다.			○	○	2

구분	단체명	통일교육 사업명	①	②	③	④	⑤	소계
1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		0	0			2
19	원주시민연대	제3회 2018 통일과 강원도의 잠재력 학술행사 및 북한사진전		0				1
20	통일교육개발연구원	2018년 북쪽친구 알아보기 통일교육		0				1
21	통일민주협의회	한반도 신경제지도 연결점에서 평통 그리기			0			1
22	평화문제연구소	협업을 통한 통일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0	0			2
23	평화한국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우만통 (우리가 만드는 통일) 프로젝트	0		0	0		3
24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함께 만드는 평화·생명·통일 교육			0			1
25	한국가족문화원	화합과 공감을 여는 평화통일 체험캠프			0			1
26	한국컬스카우트연맹	DMZ 투어			0			1
27	한국통일진흥원	한반도 평화통일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0				1
28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시민과 청년이 함께하는 통일교육		0	0	0		3
소계			3	16	15	4	0	38

(1) 연속강좌 유형

2018년 통일교육협의회에서 진행된 사회통일교육 가운데 연속강좌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 유형의 각 단체별 프로그램은 3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평화공감 ‘통일리더자’ 양성교육

- 교육목적
 -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시민을 대상으로 남북한 가교역할을 담당할 ‘평화공감’ 리더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통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성찰을 도출
 - 평화와 통일이라는 거대담론에서 개인의 삶과 민족의 미래 사이의 연결고리 확보
 - 넓은 시각에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사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교육 기간: 2018.5.14.~10.31.
- 교육 대상: 일반시민(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 교육 인원: 25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차수	주제	강사
1차(6/20)	평화공감, 통일리더자의 이해(1): 독일통일	홍양호(前통일부)
2차(6/27)	평화공감, 통일리더자의 이해(2): 탈북민	고경빈(남북하나재단)
3차(7/4)	남북한 사회의 문화	고유환(동국대학교)
4차(7/11)	남북한 사회문화의 이해	강동원(동아대학교)
5차(7/18)	남북한 다름 인정하기(1): 여성	김석행(이화여자대학교)
6차(8/22)	남북한 다름 인정하기(2): 언어	전영선(건국대학교)

차수	주제	강사
7차(8/29)	남북한 다름 인정하기(3): 도시	박화동(前국토부)
8차(9/5)	남북한 다름 인정하기(4): 정치경제	김영수(서강대학교)
9차(9/12)	사회통합을 위한 마음읽기(1): 탈북민 이해	김중태(前하나원)
10차(9/19)	사회통합을 위한 마음읽기(2): 문화	박윤숙(지현교육복지연구원)
11차(10/10)	이웃으로 살기(1): 교육	권금상(서울건강지원센터)
12차(10/17)	이웃으로 살기(2): 산업	김용기(한양대학교)
13차 (10/26~27)	일본인의 30년 한국정착기: 대전 뿌리공원 탐방	이유경(비전제작소) HONDA(UN합창단 한국본부)

- 일반시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모여 총 12회의 교육과 1박 2일 워크숍을 이수
- 교육마다 강의가 끝난 이후 자유로운 주제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
- 이는 남북한 출신 주민이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눔으로써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향후 남북한 시민 모두가 통일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긍정적 경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나) (사)어린이애개동무: 화해와 협력을 준비하는 평화통일교육

- 교육목적
 - 학교 평화통일 교육 확대를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 평화와 협력의 시대에 맞는 평화적 시각의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로 전문 강사 교육
- 교육 기간: 2018.5.1.~10.31.
- 교육 대상: 청소년, 여성, 일반시민
- 교육 인원: 30명(일반시민 25명, 회원 5명), 콜로키움 10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차수	주제	강사
강의	1차(5/17)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이기범(숙명여자대학교)
		평화와 마주보기	김정혜(어린이어깨동무)
	2차(5/17)	분단과 나	김대회(서강대학교)
		평화의 시선으로 분단을 바라보다	정영철(서강대학교)
	3차(5/24)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4차(5/31)	평화상상 시나리오 워크숍	이성숙(어린이어깨동무)	
	인형을 이용한 평화 이야기	김윤선(어린이어깨동무)	
5차(6/7)	교실에서 평화교육하기	문연숙(평화통일교육강사)	
	평화통일교육의 실제	주희영(평화통일교육강사)	
콜로 키움	6/29	발표: 데릭월슨(얼스터대학교)	
		회복적 사회를 위한 평화교육	토론: 정옥식(평화네트워크)
		토론: 윤철기(서울교육대학교)	
탐방	6/30	접경지역: 적군도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안내: 박종호(신도림고등학교)
워크숍	7/13~14	평화의 눈으로 보는 서울: 남산 옛 안기부 터, 경찰청 인권센 터(옛 남영동 대공분실)	안내: 정영철(서강대학교) 안내: 김윤선(어린이어깨동무)
		적과 동지	발표: 김정혜(어린이어깨동무)
		평화의 움직임	강의: 고권금(무용수)
수업 참관	10/16~26	평화통일교육 강사의 수업참관	
	9월~10월	평화통일교육 강사의 수업 실습	
실습		대상 서울지역 초등학교 9개교, 68학급, 총 2,000여 명의 어린이	
	1차(9/13)	창경초등학교(7학급)	문연숙, 주희영, 윤희근, 조수현
	2차(9/17)	한서초등학교(4학급)	문연숙, 주희영
		한서초등학교(4학급)	문연숙, 윤희근
	3차(9/18)	가재울초등학교(8학급)	박종윤, 조수현, 주희영, 김대환
		4차(9/20)	한서초등학교(4학급)
	5차(9/20)	상곡초등학교(4학급)	조수현, 윤희근
	6차(9/27)	정릉초등학교(6학급)	조수현, 임연옥, 윤희근
	7차(9/28)	송화초등학교(8학급)	윤희근, 김대환, 임연옥, 조수현
	8차(10/18)	도봉초등학교(4학급)	조수현, 주희영, 윤희근, 김대환
	9차(10/25)	미아초등학교(6학급)	조수현, 주희영, 윤희근
	10차 (10/26)	충무초등학교(2학급)	주희영, 문연숙
	11차 (10/26)	도봉초등학교(4학급)	조수현, 임연옥, 윤희근, 박종윤
12차 (10/30)	도봉초등학교(4학급)	김대환, 임연옥, 박종윤	
13차 (10/31)	도봉초등학교(3학급)	박종윤, 주희영, 윤희근	

- 북한, 분단, 통일, 통일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평화통일교육을 접근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
- 강의, 워크숍, 콜로키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지식함양을 넘어 평화감수성을 지닌 강사진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
-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평화통일교육 수업을 참관하도록 하고, 실습을 진행해 평화통일교육 강사의 수업진행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다) (사)평화한국: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우만통(우리가 만드는 통일) 프로젝트-우만통 컨퍼런스

- 교육목적
 -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와 NGO의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
 - ‘우만통 프로젝트’는 연속강좌 유형인 우만통 컨퍼런스, 캠프 및 기행 유형인 우만통 발걸음, 문화·행사 유형인 우만통 우리 이름으로 구성되며, 이중 우만통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통일교육 아카데미와 통일비전 학술세미나로 구분하여 실시
- 교육 기간: 2018.5.19.~7.28., 8.25.
- 교육 대상: 고등학교 청소년 동아리
- 교육 인원: 67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통일교육 아카데미

차수	시간	주제	강사
1차 (5/19)	사회: 서민규(한국성서대학교)		
	10:00~11:00	언론(탈북민)영역에서 준비하는 평화통일	김명성(조선일보)
	11:00~11:30	조별토론	학생 60명

차수	시간	주제	강사
	11:30~12:00	조별발표 및 질의응답	
	12:00~12:20	논문작성	이윤기(한림성심대학교)
2차 (6/9)	사회: 황용하(평화한국)		
	10:00~11:00	경제영역에서 준비하는 평화통일	전병길(통일과나눔)
	11:00~11:30	조별토론	학생 60명
	11:30~12:00	조별발표 및 질의응답	
	12:00~12:20	논문작성	이윤기(한림성심대학교)
3차 (7/28)	사회: 서민규(한국성서대학교)		
	10:00~11:00	통일비전: 통일대한민국 3.0	허문영(통일연구원)
	11:00~11:30	조별토론	학생 60명
	11:30~12:00	조별발표 및 질의응답	
	12:00~12:20	논문작성	이윤기(한림성심대학교)
참여자	소속	청소년 동아리	구성
우만통 컨퍼런스	대원외국어고	F.P.U(For Peaceful Unification)	학생 동아리 23명 (1학년 11명, 2학년 12명)
	인천청소년	H.T.N(Hi Teens Network)	인천 가림고등학교 1, 2학년 20명
	웨일즈국제학교	통일연구부	학교장, 담당교사, 학생학술동아리 20명

- 통일비전 학술세미나⁴⁹⁾

시간	구분	내용	패널
13:00 ~ 13:40	개회	개회사	김창수(국방연구원)
		교장단 축사, 격려사	유순종(대원외고) 김형백(가림고) 성백(웨일즈국제학교)
		학생대표 인사말 활동보고	서지환(대원외고) 신우철 (가림고), 강혜원(웨일즈)
13:40 ~ 15:10	정치 남북 관계	사회: 박현선(평화한국)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연구	김세민(대원외국어고)
		남북한 통일 후 미래모습	박소현(가림고등학교)
		Policies of Neighboring Countries Around South Korea Against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안희찬, 강민수(웨일즈국제학교)

49) 이 프로그램은 문화공연·행사 유형이지만, 통일비전 아카데미와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심화 발전시켜 진행하는 경연대회이다.

시간	구분	내용	패널	
15:30 ~ 17:00		점진적 남북통일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박지우(대원외국어고)	
		남북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대비 방향	신우철(가림고등학교)	
		전문가심사: 김도태(충북대학교), 김창수(국방연구원), 이석희(광운대학교), 허문영(통일연구원)		
	교육 문화 기술	사회: 이세연(동덕여자대학교)		
		남북한 대중음악 차이와 현황	류승현(대원외국어고)	
		통일 후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	정서윤(가림고등학교)	
		남한과 북한의 교육제도	조현수(대원외국어고)	
		남북한 스포츠교류의 중요성	정태현(가림고등학교)	
		남북교류에 따른 소아뇌성마비 재활치료 전망	유다영(가림고등학교)	
		전문가심사: 김유영(더플랜지), 서민규(송실대), 이윤기(한림성심대)		
	경제 언론 사회	사회: 양석우(웨일즈국제학교)		
		A Study on Supporting Method and Actual Analysis for NK	이예은(웨일즈국제학교)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 사회복지 개선방향	김미지(대원외국어고)	
		남북한 미디어에 따른 통일이미지 구축 필요성	조은산(가림고등학교)	
		An Analysis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System	이선해(웨일즈국제학교)	
		북한언론의 주민 대외정책	박희윤(대원외국어고)	
	전문가심사: 김병로(서울대), 임수신(서울대), 전병길(통일과나눔)			
	정치 남북 관계	사회: 박현선(평화한국)		
		북한의 비핵화와 우리의 향후 과제	김가영(가림고등학교)	
		남북단일팀의 의의와 한계	노승민(대원외국어고)	
		A Brief Study on the Improvement of Young Generations Consciousness For Unification	김가람(웨일즈국제학교)	
한반도평화시대의 북한식 개혁개방 모델 예측		안유하(대원외국어고)		
전문가심사: 김도태(충북대), 김창수(국방연구원), 이석희(광운대), 허문영(통일연구원)				
교육 문화 기술	사회: 이세연(동덕여자대학교)			
	한반도의 정보통신 기술	이수현(가림고등학교)		
	북한의 외국어 교육 연구	서재연(대원외국어고)		
	북한의 항공기술	이지선(가림고등학교)		

시간	구분	내용	패널
		대중문화교류를 통해 본 남북한 문화통합 노력	이수빈(대원외국어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건축연구	이동현(가림고등학교)
		전문가심사: 이유영(더플랜지), 이윤기(한림성심대학교), 서민규(송실대학교)	
	경제 언론 사회	사회: 양석우(웨일즈국제학교)	
		2018 Analysis of Study Trends in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이예진(웨일즈국제학교)
		남북한의 언론 분야 통일	박주성(가림고등학교)
		Recent Trends in Tourism Industry in SK and NK and Prospects After Unification	탁진영(웨일즈국제학교)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통합방안	엄지원(대원외국어고)
		Food Shortage and Marketing In North Korea	강혜원(웨일즈국제학교)
전문가심사: 김병로(서울대학교), 임수진(서울대학교), 전병길(통일과나눔)			
17:00 ~ 18:00	종합 토론	사회: 허문영(통일연구원)	참석자 전원

- 협력기관(대원외국어고, 가림고, 웨일즈국제학교)의 학생이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학생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술논문을 작성, 전문가와 학부모, 일반시민 앞에서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실시

(2)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

2018년 통일교육협의회에서 진행된 사회통일교육 가운데 강연회·세미나·포럼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 유형의 각 단계별 프로그램은 16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복지연구원: 제2차 평화통일지킴이 준비교육-워크숍

- 교육목적
 -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지킴이 준비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통일 준비 내용을 학습하고 공감하고 체험함으로써 통일을 구체적

으로 준비

- 한반도 통일과 통합의 구체적인 준비학습을 시민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과정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생활 속에서 통일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

- 교육 기간: 1차(2018.8.29.), 2차(2018.9.5.)
- 교육 대상: 2017년 교육참가자, 통일기관 및 단체, 통일공동체 센터
- 교육 인원: 2회, 81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차수	시간	주제	패널
1차	10:30~11:00	개강식, 오리엔테이션	박옥임(통일공동체센터) 전숙희(교육복지연구원)
	11:00~12:00	통일노래, 통일시, 북한언어 배우기	조신일(어울림합창단)
	12:40~14:10	통일법 연구와 실제	류지성(한국법제연구원)
	14:20~15:50	통일한국의 사회보장	노용환(서울여자대학교)
2차	10:30~12:00	남북교류협력지원	이성노(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2:40~13:40	남북문화예술	이종구(남북문화예술원)
	13:50~14:50	통일한국의 농업	임정빈(서울대학교)
	15:00~16:00	북한경제변화와 남북협력전망	정은이(통일연구원)

- 이 외에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여 현장을 체험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하였고, 공감통일축제를 통해 통일노래, 통일시, 통일퀴즈대회를 실시

(나) (사)남북문화교류협회: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기반조성

- 교육목적
 -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통일담론을 확산하고 평화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교육의 장을 마련
 - 남북문화교류협회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은 ① 통일정책강연

회, ② 통일안보교육 현장견학, ③ 새터민 후원행사, ④ 광복 73주년 기념 통일문제 세미나로 구성

- 교육 기간: 2018.5.24.(통일정책강연회), 2018.10.25.(통일문제 세미나)
- 교육 대상: 수도권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 교육 인원: 통일정책강연회 170명, 통일문제세미나 12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제	패널
통일정책강연회 5/24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	유성엽(국회교육문화관광위원회)
통일문제세미나 10/25	기조연설	김덕룡(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	사 회: 김형준(명지대학교)
	정치·군사분야 협력강화 방안	발 표: 이승렬(국회입법조사관) 토 론: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병철(평화협력원)
	사회·문화분야 협력강화 방안	발 표: 문경연(전북대학교) 토 론: 오경섭(통일연구원) 정대진(아주대학교)

(다) (사)남북장애인 교류협회: 2018년도 연례 학술 세미나

- 교육목적
 - 북한 사회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남북 장애인 교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교육 기간: 2018.10.8.(월)
- 교육 대상: 회원 및 일반 시민
- 교육 인원: 102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시간	주제	패널
개회	15:00~15:30	개회사	안광범(남북장애인교류협회)
1부	15:30~16:30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	사 회: 강석승(21C안보전략연구원) 발 표: 한관수(조선대학교) 토 론: 유영욱(국민대학교) 김진호(경향신문)
2부	16:30~17:30	남북장애인 교류협력의 실상과 문제점	사 회: 강석승(21C안보전략연구원) 발 표: 이성로(남북교류지원협회) 토 론: 송유창(삼육대학교) 김보근(한겨레 섹션서울)
토론	17:30~18:00	토론 및 질의응답	참가자 전체

(라)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남북통일기원 국민대토론회

- 교육목적
 - 남북교류에 민간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국민 대 토론회를 15개 주요도시에서 개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과정에서 국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확산
 - 이를 통해 통일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
- 교육 기간: 2018.10.10.~10.31.
- 교육 대상: 일반시민
- 교육 인원: 2,00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내용	시간(분)	발표 및 토론
개회선언	20	인사말, 축사
주제발표	30	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와 시민사회의 역할 해당 지역 발표자
토론	45	대학생(15분), 탈북민(15분), 지역통일운동가(15분)
질의응답	30	시민

- 시도별 교육일정

차수	지역	장소	발표	토론
1	제주	제주해변공연장	설용수(前세계일보)	김수미(통일강사) 문정수(농학박사) 문준혁(제주대학교 학생)
2	대구 경북	2.28민주운동 기념회관	김진행(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수만(통일운동가) 김성룡(북한이탈주민) 최연우(계명대학교 학생)
3	광주 전남	광주시청	박찬용(정치학박사)	강동희(조선대학교 학생) 이은희(북한이탈주민) 나일환(KNBS_TV)
4	부산	부산서구청	주정호(부경대학교)	김세현(북한이탈주민) 박만순(통일강사) 강승환(부산대학교 학생)
5	울산	울산시청	조정규(경남대학교)	박병선(前해병대) 최지연(북한이탈주민) 정진용(울산폴리텍대학교 학생) 김나영(북한이탈주민)
6	강원	강원연구원	유성선(강원대학교)	최평욱(YSP강원지부) 곽한수(강원대학교 학생)
7	충남	홍성군청	신진(충남대학교)	채신아(북한이탈주민) 최광래(홍성평화대사협의회)
8	서울	도원빌딩	강석승(경기대학교)	인권식(前신성대학교) 남주영(북한이탈주민) 박진호(청년다짐센터)
9	충북	대한노인회	심의보(충청대학교)	이동주(충청대학교 교수) 박종현(충북대학교 학생) 주기성(북한이탈주민)
10	전북	전북문화관	김창희(전북대학교)	정복규(새만금일보) 안성환(비전드림경영연구원) 이주섭(전북대학교 학생)

차수	지역	장소	발표	토론
11	인천	인천미추홀구청	유영옥(국민대학교)	정수천(유한대학교 교수) 박원일(인천평화복지연대) 표선실(동국대학 박사과정)
12	대전	전통나래관	신진(충남대학교)	이영철(LTK) 박진민(인천평화복지연대) 정종환(안보강사)
13	경기 북부	구리실내체육관	이규세(前선문대학교)	그레이키아라(서울대학교 학생) 김찬호(신논문연구소) 정형규(한일평화증진연대)
14	경기 남부	수원향교유림회관	강석승(경기대학교)	최정은(선문대학교 학생) 남주영(북한이탈주민) 마승배(참가정실천운동본부)
15	경남	경남도의회	김현태(前창원대학교)	김연경(창원대학교 학생) 배윤희(북한이탈주민) 조재홍(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 토론회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및 지역언론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정책을 지역 사회와 긴밀히 공유
- 시민이 참여하는 전체토론이 30분 동안 진행되어 발표자와 토론자만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시민이 각자의 시선을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토론회가 끝난 이후 지역 언론을 통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통일담론이 지역사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마) (사)동학민족통일회

- 교육목적
 - 남북평화통일을 주제로 강좌를 운영하여 시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고
 - 향후 남북경제발전과 통일에 대한 비전을 도출
- 교육 기간: 2018.5.21.~10.31.

- 교육 대상
 - 동학민족통일회 회원 및 유관기관 회원
 - 동학민족통일회 대학생 등 젊은 세대, 일반시민, 중학대학원 수강자
- 교육 인원: 264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차수	발표	사회/토론
1차 (6/21)	북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정성장(세종연구소)	사회: 성보용(성학연구소) 토론: 임형진(경희대학교)
2차 (7/25)	분단시대의 종언과 평화시대의 개막 김진행(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회: 신혜원(민족문화교류협회) 토론: 손 윤(의암경영연구소)
3차 (8/30)	민족경제와 통일 손윤(의암경영연구소)	사회: 김선배(동국대학교) 토론: 임형진(경희대학교)
4차 (10/13)	해방 후 천도교 청우당의 통일활동 성강형(동덕대학교)	사회: 송봉구(영산대학교) 토론: 김춘성(부산예술대학교)
5차 (10/25)	남북협상 70주년의 의의와 동민회 역할 임형진(경희대학교)	사회: 김선배(동국대학교) 토론: 성주현(송실대학교)

- 북한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교류협력을 한 경험이 있는 강사를 초청하여 생생한 경험을 청취
- 동학민족통일회는 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을 시작으로 시민강좌와 역사기행, 청소년대상 통일역사창작뮤지컬 순회공연 등을 진행

(바)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 교육목적
 - 남북경협 본격화시 한반도 질서변화를 예측하고 실제적인 남북경협 방안을 모색
- 교육 기간: 2018.6.14.~7.24.
- 교육 대상: 일반시민

- 교육 인원: 134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차수	주제	강사
1차(6/14)	경제교류와 평화·분쟁의 상관관계	송영훈(강원대학교)
2차(7/6)	남북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3차(7/24)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관계	임강택(통일연구원)

- 남북경협 의 중요성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강의함으로써 남북경협 활성화 과정 속에서 분단비용이 절감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안내

(사) (사)선진통일건국연합: 찾아가서 즐기는 선진통일 100분 토크쇼

- 교육목적
 - 청소년이 통일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는 역량 제고
- 교육 기간: 2018.5.15.~10.31.
- 교육 대상: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 교육 인원: 2,000여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내용	시간(분)	패널
공감대 형성	5	인사/소개, 교육목적 설명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형성
주제발표	60	남한강사(30분): 통일의 필요성과 비전 탈북강사(30분): 북한의 역사와 사회 교육
토론	30	학생 참여
마무리	5	통일에 대한 공감 나누기/설문조사
운영	고등학교	대일고(6/1), 신정여상(6/20) 한서고(10/11)
	중학교	등촌중(6/19), 신정여중(6/20), 공향중(9/28), 염창중(10/4)

- 탈북강사와 남한강사의 토크쇼 형식으로 프로그램 운영

(아) (사)세계평화여성연합: 다문화 가정 통일인문학 BOOK 카페

- 교육목적
 - 통일교육에서 소외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통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
 - 결혼이주여성은 통일교육에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분단의 역사와 통일에 대한 희망에 대한 공감대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통일인문학 독서를 통해 분단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여성들이 통일의 주체로서 통일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역 통일운동의 활성화에 이바지
- 교육 기간: 2018.6.14.~10.31.
- 교육 대상: 결혼이주여성 및 지역주민
- 교육 인원: 782명(전국 7지역, 총 42번의 강의)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지역	차수	도서	강사
전남여수 효정문화 센터 (76명)	1차(7/3)	강만길 선생과 함께 생각하는 통일(강만길 저)	주우철(선문대학교)
		새로운 북한이야기(박재규 외)	김근식(경남대학교)
	2차(7/4)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박성춘, 이슬기 저)	지총남(전남대학교)
		비행기(강광민 저)	강광민(조선대학교)
3차(7/5)	북한이탈주민 강의 및 질의응답	신은하(통일강사)	
	4차(7/6)	북한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전영선 저)	박형준(동국대학교)
서울 카페드 콘서트 (105명)	1차 (7/14)	오늘의 조선(KOREA TODAY)	홍석훈(통일연구원)
	2차 (7/28)	미국 독립선언문	전광호(전북대학교)
	3차 (8/11)	100년 후(조지 프리드먼 저)	이은미(서울대학교)
	4차(9/1)	판문점(이호철 저)	이정우 (국제통상전략연구원)
	5차 (9/15)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로널드 L. 태먼 저)	김영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6차 (10/6)	북한이탈주민 특강	현인애(이화여자대학교)

지역	차수	도서	강사
울산 부동산 아카데미 (112명)	1차 (7/17)	탈북 그 후, 어떤 코리안(류중훈 저)	이성재(통일교육위원)
		2018 북한 인권백서(통일연구원)	이현경(동아대학교)
	2차 (7/24)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배기찬 저)	주우철(선문대학교)
		북중관계 주요 분야별 현황 분석(통일연구원)	리단(부경대학교)
3차 (7/31)	북한이탈주민 특강	현인애(이화여자대학교)	
	판문점(이호철 저)	이정우 (국제통상전략연구원)	
경기가평 청심 국제 청소년 수련원 (138명)	1차 (8/2)	통일은 오고 있는 거(나필연 저)	주우철(선문대학교)
		새로운 북한이야기(박재규 외)	김근식(경남대학교)
		판문점(이호철 저)	이정우 (국제통상전략연구원)
	2차 (8/3)	소통, 치유, 통합의 통일인문학(김성민 저)	조형국(세계일보)
		북한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전영선 저)	전영선(건국대학교)
		북한이탈주민 특강	신은하(YSP)
경기북부 구리 다문화 센터 (120명)	1차 (10/4)	한국, 중국의 분단국 교류와 평화	김진호(단국대학교)
		새로운 북한 이야기(박재규 외)	김근식(경남대학교)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배기찬 저)	주우철(선문대학교)
	2차 (10/5)	헬싱키 프로세스의 초기 조건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홍기준 저)	홍기준(경희대학교)
		비단길! 초원길! 바닷길을 향한 21세기 신중화질서(김송죽 저)	김송죽(이화여자대학교)
		북한이탈주민 특강	현인애(이화여자대학교)
서울북부 (120명)	1차 (10/17) 상구네 행복발전 연구소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배기찬 저)	주우철(선문대학교)
		새로운 북한 이야기(박재규 외)	김근식(경남대학교)
	2차 (10/24) 노원 구민회관	나해석: 못된 감상기(이영미 저)	이영미(경희대학교)
		비단길! 초원길! 바닷길을 향한 21세기 신중화질서(김송죽 저)	김송죽(이화여자대학교)
	3차 (10/31) 노원 구민회관	북한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전영선 저)	이윤진(보육정책연구원)
		북한이탈주민 특강	윤아영(통일교육위원)
광주 비행기 카페 (111명)	1차 (10/25)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박성춘, 이슬기 저)	지충남(전남대학교)
		선을 넘어 생각한다.(박한식, 강국진 저)	노찬백(광주보건대학교)
	2차 (10/26)	청소년을 위한 통일인문학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권소숙(호서대학교)
		내가 생각하는 남북한의 통일	강구섭(전남대학교)
	3차 (10/29)	시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김성보 외)	김충렬(조선대학교)
		북한이탈주민 특강	현인애(이화여자대학교)

(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학술시민포럼

- 교육목적
 -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가 지향하는 남북관계 기본구상을 설명하고, 정부의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대해 시민이 평가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한 이해를 도모
- 교육 기간: 2018.10.24.
- 교육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교육 대상: 대학생, 여성, 일반시민
- 교육 인원: 11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내용	주제	패널
개회	개회식 및 개회사	개회식: 서인원(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사) 개회사: 이장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장)
세션1	사회: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법적 실효성 제고문제	발표: 이석범(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토론: 최양금(송실대법학연구소) 토론: 이동원(선문대학교)
	9월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군비통제	발표: 김동엽(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토론: 정대진(아주대학교 통일연구원) 토론: 송병진(한국외국어대학교)
세션2	사회: 권영경(통일교육원) 남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북핵과 주한미군의 미래	발표: 이재봉(원광대학교) 토론: 정욱식(평화네트워크) 토론: 김영기(명지대학교)
	9월 평양공동선언과 사회문화 협력문제	발표: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이시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토론: 정성희(사단법인 평화철도)
	9월 평양공동선언과 민족경제 균형발전	발표: 임을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토론: 서인원(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종합토론	사회: 엄정일(경북대학교)	
폐회	폐회사: 이장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차)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평화살롱,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를 마주하다.

- 교육목적
 - 평화통일의 가치 확산과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전문가의 강연과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의 정세를 전망하며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방안 모색
 - 일반 시민의 북한현실에 대한 이해 및 보건의료를 통한 남북한 교류활성화 필요성 고취
- 교육 기간: 2018.5.26.~10.18.
- 교육 대상: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회원
- 교육 인원: 67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차수	주제	강사
월례 세미나 (67명)	1차(5/26) (15명)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남북교류협력의 변화	발표: 이창희(동국대학교) 사회: 엄석호(염산부인과)
	2차(6/21) (17명)	한반도 정세와 남북 교류협력	발표: 이승환(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사회: 유경숙(약바로쓰기 운동본부)
	3차(7/19) (10명)	평화체제,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	발표: 정창현(현대사연구소) 사회: 유경숙(약바로쓰기 운동본부)
	4차(9/20) (15명)	북한사회주의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발표: 홍강철(탈북 군인) 사회: 유경숙(약바로쓰기 운동본부)
	5차 (10/18) (10명)	북한 보건의료 이해를 위하여: 북한의 의학	발표: 박세현(인천시립병원) 사회: 장영우(녹색병원) 토론: 박혜경(성균관대학교)

- 매월 한반도 정세,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의 주제발표, 참여자의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남북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전문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준비할 수 있게 구성
- 이 외에 3차례의 평화인문기행과 1박 2일의 평화워크숍, 북한 임상연구 책자발간 사업 병행

(카)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정책포럼 및 정책토론

- 교육목적
 -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전망,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등을 주제로 전문가와 대중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의견을 나누는 논의의 장 마련
 - 남북한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남북통합 및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대북지원 방향 모색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① 평화나눔 정책포럼, ② 정책토론회, ③ 2018 광주지역 청소년 DMZ 통일캠프, ④ DMZ 평화투어를 실시
- 교육 기간: 2018.6.1.~10.31.
- 교육 대상: 연구자, 대북지원단체, 일반시민
- 교육 인원: 13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일정	주제	참여자
평화나눔 정책포럼	6/18 (30명)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사회: 김영수(서강대학교) 발표: 조총희(굿파머스)
정책토론	9/28 (100명)	주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남북 민간교류 협력 대북제재와 남북교류협력, 양립 가능한가?	발표: 김남주(법무법인 도담) 토론: 김광길(수원아시아법률사무소)
		스포츠 교류를 통해 본 민간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발표: 김경성(남북체육교류협회) 토론: 조정훈(아주대학교)
		민간의 대북협력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해법 모색	발표: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 토론: 최은하(6.15공동선언실천남측) 토론: 최혜경(어린이어깨동무)

(타) 원주시민연대: 2018 통일과 강원도의 잠재력 학술행사 및 사진전⁵⁰⁾

- 교육목적
 - 평화의 올림픽의 상징인 평창올림픽이 개최된 강원도에서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준비
 - 북한 사진전을 통해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함께 할 북한과 통일에 대해 생각할 환경 제공
- 교육 기간: 2018.10.1.~10.31.
- 교육 대상: 원주 강원지역 주민, 회원
- 교육 인원: 500여 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일정	주제	참여자
학술행사	10/26	주 제: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준비하라 사 회: 조진행(한라대학교) 개 회 사: 서재일(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강원본부) 환 영 사: 조건식(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 기조강연: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평양남북공동선언 의미와 새로운	발표: 박철수(한라대학교)

50) 사진전은 문화공연·행사 유형에 해당하나, 학술행사와 결합되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므로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구분	일정	주제	참여자
		남북관계 발전 전망과 과제	토론: 이덕수(한라대학교)
		평화와 공존의 시대, 민간교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발표: 홍상영(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토론: 구자열(강원도청)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남북교류협력시대, 지역 통일운동의 모색	발표: 이선경(6.15강원본부) 토론: 신성재(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
사진전 DMZ 평화투어	10/25~ 10/30	주제: 평양의 오늘	어린이, 청소년, 성인 120여명
	10/25	오프닝 행사 작가와의 대화	
	10/26~ 10/30	전시, 관람	

(파) (사)통일교육개발연구원: 북쪽친구 알아보기 통일교육

- 교육목적
 - 초등학생에게 건전한 통일의를 함양하고 북한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민족 공동체 의식 제고
 - 차세대 통일주역이라는 사명감 고취
- 교육 기간: 2018.6.4.~9.28.
- 교육 대상: 전국 초등학교 학생
- 교육 인원: 12,115여 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내용	
교육내용	방법	강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영상 중심으로 강의를 실시함
	대상	초등학교 4~6학년
	내용	북한이탈주민 출신 강사가 이야기하는 북한 어린이의 생활
강사진	심하윤	평양○○대학 졸업, 충남대 졸업, 이화여대 대학원 재학
	원성애	○○예술전문학교 졸업, 경기대 졸업
	이혜영	양강도 ○○고 졸업
교육일정	6/4~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울산, 부산, 용인, 부천, 경기광주, 파주, 진주, 창원, 사천 • 동두천, 양주, 진주, 양산, 거제, 고성, 김해, 하동, 남해, 창원 • 102회 초등학교 방문 교육 실시

- 북한이탈주민 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영상을 중심으로 강의 실시

(하) (사)평화문제연구소: 협업을 통한 통일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워크숍, 공감포럼

• 교육목적

- 급변하는 통일환경에서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를 위해 시대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① 교사-전문가 워크숍, ② 교사-대학생 공감포럼, ③ 안보 및 역사체험 프로그램 진행
- 교사-전문가 워크숍: 오랜 분단으로 형성된 이념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통일미래를 대비한 상생·공존의 교육으로 나아가는 방안 개발
- 교사-대학생 공감포럼: 대학생과 교사 간 참신하고 다양한 통일교육 아이디어와 방안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통일교육의 혁신적 모델 발굴
- 안보 및 역사체험 프로그램: 남북 접경 및 휴전선 최전방을 방문하여 현장체험을 통해 분단과 안보의 의미를 피부로 느낄 기회 제공

• 교육 기간: 2018.5.8.~10.31.

• 교육 대상: 청소년, 대학생, 통일교사 및 전문가

• 교육 인원: 216여 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일정	주제	참여자
교사-대학생 공감포럼 8/23	14:00~ 14:20	대주제: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개회사	홍재형(평화문제연구소)
		축사	젤리거(한스자이델재단)
		인사말	송광석(통일교육협의회)
		사회	여현철(국민대학교)

구분	일정	주제	참여자	
	통일교육 교사			
	13:30~ 16:10	학교별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활용사례	이경해(부천 수주중학교) 손해진(시흥 송은중학교) 조은주(경기국제통상고) 윤기홍(수도여자고등학교) 신동준(안산 동산고등학교)	
	대학생 통일동아리			
	16:20~ 17:00	청소년 통일외식 제고방안	한아름(가톨릭대학교)	
		인식의 전환, 눈높이 통일교육!	리베르타스(고려대학교)	
	17:10~ 17:40	새로운 패러다임: 참여·체험형 교육	한반도미래연구회(중앙대학교)	
		자유토론	참석자 전체	
	18:00~ 19:00	폐회 및 저녁식사	참석자 전체	
	교사-전문가 워크숍 10/18	대주제: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자유학년제 실시와 통일교육 발전 방향		
		14:00~ 14:20	개회사	신진(평화문제연구소)
축사			젤리거(한스자이델재단)	
사회			박성준(서울대학교)	
14:20~ 15:20		교육과정의 변천을 통해서 본 학교통일교육의 과제	여현철(국민대학교)	
		책 밖으로 나온 학교통일교육,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다	변준희(통일드림)	
15:20~ 17:20		자유토론: 전국 중학교 통일교육 담당교사	이경해(경기 부천 수주중학교) 김현경(서울 봉영여중학교) 윤근별(인천 인성여중학교) 김태곤(서울 언주중학교) 이정표(서울 송문중학교) 김홍민(서울 청원여자고등학교) 정용민(서울 월계고등학교) 이나영(서울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신동준(경기 안산동산중학교) 윤기홍(서울 수도여자고등학교) 박범석(경기 덕현고등학교) 정원영(인천 계산공업고등학교)	
17:20~ 19:00		폐회 및 만찬	참석자 전체	

(거) (재)한국통일진흥원: 한반도 평화통일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 교육목적
 - 대국민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 이후 대비를 위하여 국민의 건전한 통일 필요성 계도 확산
 - 국민 및 일반시민 단체 등에게 미래 통일한국의 올바른 평화 통일 당위성 제시
- 교육 기간: 2018.6.11.~10.31.
- 교육 대상: 연구자, 대북지원단체, 일반시민
- 교육 인원: 550명(아카데미 300명, 심포지엄 25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일정(인원)	주제	패널
아카데미	1차(89명) 6/18	역사를 알고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	오면수(민주평화통일자문회)
		위국헌신과 통일준비	전태열(재향군인회)
	2차(84명) 7/9	우리 민족이 바라는 통일	김희승(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분단의 원인과 통일의 요인	강창식(을지연구원)
	3차(72명) 9/10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 상생의 길은 무엇인가	탁관로(글로벌교육문화원)
		통일, 꿈과 과제 그리고 비상	이현오(재향군인회)
	4차(55명) 10/8	평화통일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김희승(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한미동맹의 방향정립	허육(밝은사회연구원)
심포지엄	주제: 평화통일과 한미동맹		
	9:30~10:00	등록, 리셉션	전체 참가자
	10:00~10:30	개회, 국민의례, 개회인사	전체 참가자
	10:30~11:10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 미북관계 변화	김영준(국방대학원)
	11:10~11:50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 한미동맹 관리방안	홍성표(아주대학교)
	11:50~12:30	평화통일과 최선의 교육방법 대상, 무엇을, 어떻게	김태우(前 통일연구원)
	12:30~13:30	토론, 오찬, 친교	전체 참가자

(너)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시민과 청년이 함께하는 통일교육

- 교육목적
 -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공감 확산과 건전한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통일을 실천할 수 있는 통일인재 양성
 -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는 강연·세미나·포럼 유형인 통일포럼, 캠프·기행 유형인 통일문화기행과 평화인권 민주주의 기행, 문화공연·행사 유형인 희망릴레이청년쇼를 실시
- 교육 기간: 2018.5.19.~10.31.
- 교육 대상: 대학생, 일반시민
- 교육 인원: 12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일정	주제	패널
통일 포럼	1차(34명) 6/14	북미회담 평가와 남북미관계의 지속발전 방안	사회: 이기종(경희대학교) 발표: 이대근(경향신문)
	2차(26명) 7/1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전망	사회: 이기종(경희대학교) 발표: 고유환(동국대학교)
	3차(36명) 9/6	종전선언을 둘러싼 남북미중의 입장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함의	사회: 이기종(경희대학교) 발표: 박종철(경상대학교)
	4차(24명) 10/11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의 현재와 미래	사회: 이기종(경희대학교) 발표: 박정준(한국철도기술연구원)

(3) 캠프 및 기행 유형

2018년 통일교육협의회에서 진행된 사회통일교육 가운데 캠프 및 기행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15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복지연구원: 제2차 평화통일지킴이 준비교육-현장기행⁵¹⁾

- 교육목적
 -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지킴이 준비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통일 준비 내용을 학습하고 공감하고 체험함으로써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
 - 교육복지연구원은 ① 통일워크숍, ② 통일현장 기원, ③ 공감 통일축제, ④ 교육평가의 네 단계로 평화통일지킴이 준비교육을 운영
 - 이 중 통일현장 기원과 공감통일축제는 동해 최북단인 울릉도와 독도 방문을 통해 분단현장을 체험하고 이곳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
- 교육 기간: 2018.9.10.~9.12.
- 교육 대상: 통일워크숍에 참가했던 시민
- 교육 인원: 38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일자	구분	내용	패널
9/10	이동	서울(버스)→강릉(선박)→울릉도	한광련(교육복지연구원)
	견학	도동, 사동, 통구미, 천부, 나리분지, 울릉도·독도해양과학연구기지	
	강의	울릉도·독도 바다의 가치-남북교류	
9/11	견학	내수전망대, 촛대바위, 봉래폭포, 약수공원	김윤배(울릉도·독도해양과학연구기지)
	행사	독도입항 통일기원행사 통일퀴즈대회/통일시낭독회/ 통일노래대회 교육평가회, 시상 및 종강식	조신일(어울림합창단) 박옥임(통일공동체센터) 전숙희(교육복지연구원)
9/12	견학	도동등대, 행남코스	한광련(교육복지연구원)
	이동	울릉도(선박)→강릉(버스)→서울	

51) 이 프로그램은 교육복지연구원의 평화통일지킴이 준비교육-통일워크숍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지만, 다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분류하였다.

- 교육복지연구원은 이 외에 총 2회의 통일워크숍을 진행
- 워크숍은 <우리가 준비하는 평화통일>을 주제로 각 분야의 현장전문가가 전달하는 생생한 남북교류와 통일준비 일정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시민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일정으로 구성
- 통일워크숍에 참여했던 시민이 통일현장 기원에 참여했기 때문에 행사 중 <통일퀴즈대회>는 1, 2차 통일워크숍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문제로 출제

(나) (재)나이스피플: 경부선 징검다리 역사현장에서 통일을 꿈꾸다.

- 교육목적
 - 휴전선 인근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안보탐방을 영남권으로 넓힌 것은 지역의 통일기반 구축을 전국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시도로, 이러한 시도를 통해 청소년의 역사의식 정립과 통일관 함양에 이바지
- 교육 기간: 2018.10.1.~11.11.
- 교육 대상: 인천 대인고등학교 2학년 학생
- 교육 인원: 60명(학생 48명, 인솔자 등 12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일정		주제	패널
5월~6월	참가자 모집	시도교육청, 고등학교 모집 공문 발송 참가자(학생, 인솔자) 모집	참가자 48명 인솔자 10명 선정
6/25	발대식 사전교육	역사교육, 개인과제 부여 통일역사관련 발표, 토론 역할분담 사전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전체
7월	탐방준비	가이드북 제작, 현지답사 및 예약	운영진
10/12	교육	17:30 탐방과 현장체험을 통한 통일교육	김관성(대인고등학교)
		18:40 경부선 징검다리 역사현장에서 통일을 꿈꾸다 기획의도와 사업의 목표	박현석(나이스피플)
10/20	교육	19:30 통일과 청소년	송준호 (명지재가복지센터)

일정		주제	패널	
		14:00 서울-대구 탐방과 현장체험을 통한 통일교육	박현석(나이스피플)	
10/21	교육	19:30 거제 탐방과 현장체험을 통한 통일교육	박현석(나이스피플)	
10/22	탐방	9:00 용산전쟁박물관	참가자 전체	
		12:30 점심식사(안성휴게소)	자기소개	
	교육	14:00 부산 탐방과 현장체험을 통한 통일교육	박현석(나이스피플)	
	탐방	16:00 다부동 전적기념관	참가자 전체	
18:00 저녁식사(금련산수련원)				
10/23	탐방	7:00 아침식사(금련산수련원)		참가자 전체
		10:00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12:00 점심식사	장기자랑	
		13:00 거제→부산	역사퀴즈	
		14:30 한국전쟁 임시수도기념관, 임시수도청사, 유엔기념공원, 국제시장, 감천문화마을, 근대사박물관	자기스토리 발표 탐방지 기행문 쓰기	
		18:00 저녁식사(숙소)		
		19:30		
	좌담	19:30 교육 및 좌담회		
11/9	교육	17:30 학교생활의 통일교육	김관성(대인고등학교)	
		18:40 청소년 통일교육의 중요성	박현석(나이스피플)	
	평가	우수소감문 발표 및 작성자, 모범 참가자 시상, 결과자료집 배포	참가자 전체	

- 경부선 라인을 따라 2박 3일 동안 서울의 용산기념관을 시작으로 6.25전쟁의 최대격전지이자 추회 방어선이었던 경상북도 칠곡의 다부동, 6.25전쟁 중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를 집단으로 수용했던 거제 포로수용소, 일제강점기 일제의 관문이자 6.25전쟁 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을 찾아 역사현장을 탐방
- 참가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공개모집하지 않고 인천의 대인고등학교 2학년 학생 48명으로 한정하여,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논의를 학생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도록 구성
- 역사탐방 이전에 해당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사전교육 실시

- 탐방 이후 사후워크숍을 마련하여 참가학생 전원에게 결과자료집과 수료증을 주었으며 소감을 발표함으로써 참가 학생 및 교사, 재단 관계자 등 60여 명이 함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제공

(다) (사)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 평화통일염원 청소년 야영수련회

- 교육목적
 - 청소년이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애국심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정신력 강화
 -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정서를 순화하여 통일의 주역으로 역량 강화
- 교육 기간: 2018.5.31.~6.1.
- 교육 대상: 청소년 및 일반 시민, 서서울고등학교 학생
- 교육 인원: 546명(13팀)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일정	내용	비고
1일 (5/31)	대주제	통일역량 배양을 위한 만남의 날	
	7:30~8:30	집합 및 설명	서서울생활과학고
	8:30~9:00	개영식	서울통일관
	9:00~11:00	특강: 다가오는 통일준비	이나경(통일강사)
	11:00~12:00	영화 감상	북한영화, 북한주민 생활상
	12:00~13:00	점심식사	서서울교 교내식당
	13:00~13:40	한반도 보물을 찾아라 게임	조별전, 1~5등 시상
	13:40~14:20	남한말, 북한말 오작교 게임	개인전, 20명 시상
	14:20~15:00	북한화폐 퍼즐게임	개인전, 20명 시상
	15:00~15:40	DMZ 속 짝궁 찾기	개인전, 20명 시상
	15:40~16:30	통일 OX 게임	개인전, 10명 시상
	16:30~18:30	취사 및 저녁식사	조별 취사
	18:30~21:30	평화통일염원의 밤	진행: 김보관(통일강사)

구분	일정	내용	비고
		오프닝 공연	밴드, 4-H, 응원단, 댄스
		장기자랑	팀별
		공연	서서울과학교 실용음악과
		캠프파이어 선서	서서울교 교장
		파이어 레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촛불명상	호국정신 계승하여 통일한국 역군되자
	21:30~22:00	점호 및 취침 준비	학급담임 취침지도
22:00~	취침		
2일 (6/1)	대주제	평화통일을 위한 다짐의 날	
	6:00~6:30	기상, 아침체조, 명상	수련생
	6:30~7:00	아침 산행	진행: 담임, 조교
	7:00~8:00	취사 및 아침식사	조별취식
	8:00~9:00	철영	주변정리
	9:00~10:00	특강: 통일교육과 학교가 걸어온 길	조동래(서서울고등학교 이사장)
	10:00~11:30	소감문 작성	수련생
	11:30~12:00	폐영식, 점심식사 및 귀가	수련생

-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 고취, 통일역량 배양
- 야영 교육, 체험을 통한 통일교육, 상급학생 조교 봉사, 기본 생활 소양 교육을 심화하여 성숙된 생활 질서 확립

(라) (사)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금강산 옛길 따라 평화로, 통일로

- 교육목적
 - 남북접경지역 탐방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느끼고 통일의 필요성을 환기함으로써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고취
 - DMZ 및 민통선 지역 활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된 한반

도의 미래비전과 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제시

- 금강산 옛길 걷기를 통해 금강산 관광을 남북교류와 민족화해의 상징으로 다시 조명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 다양한 통일체험 활동을 통해 범국민적 통일공감대를 넓히고 민간의 통일 활동 촉진

- 교육 기간: 2018.5.17.~10.31.
- 교육 대상: 일반시민(개별, 가족단위)
- 교육 인원: 142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일자	시간	내용	패널
6/2	7:00~10:30	조계사-양구 두타연 이동 특강 통일문제 및 남북접경지역,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의	이창희(동국대학교) 김지훈(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오삼언(동국대학교) 노희준(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10:30~11:00	이목정 안내소	양구 두타연 출입신청
	11:00~12:40	두타연 평화누리길 두타정, 두타사 옛터, 두타1,2교, 징검다리, 출렁다리	해설(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13:00~13:50	점심식사	
	14:30~15:00	양구 통일관	민통선 출입신청
	15:00~15:30	을지전망대, 양구편치불	남북접경지역 조망
	15:30~17:00	양구 편치불-조계사 이동	해산

- 금강산 가는 옛길인 두타연평화누리길과 남방한계선 OP인 을지전망대 탐방을 연계한 분단체험 및 현장 통일교육

- 민통선 내 자연환경을 가깝게 체험하고 양구 해안분지인 편치

불과 DMZ, 북방한계선 등 남북접경지역 조망

- 138명의 일반시민이 단순히 여행을 넘어 통일의 의미를 담지한 기행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4대의 버스에 각기 4명의 전문가가 동행하며 해설을 진행하였고, 걷기 행사를 병행함으로써 민통선 내 자연환경을 직접 느끼고 평화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경험을 제공

(마)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 교육목적
 - 남북경협 본격화시 한반도 질서변화를 예측하고 실제적인 남북경협 방안 모색
- 교육 기간: 2018.8.24.~8.25., 10.12.~10.13.
- 교육 대상: 일반시민
- 교육 인원: 63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일정	주제	강사
1차	1일 (8/23)	9:00~10:30	여의도→강화도	참가자 전체(45명)
		10:00~11:30	갑곶돈대, 강화전쟁박물관	
		11:30~12:50	점심식사	
		12:50~13:30	강화평화전망대	
		13:30~14:00	안양대 강화캠퍼스 세미나	
		14:00~15:40	한반도 신경제지도 두 개의 벨트 트가 만나는 곳 서해평화공원	사회: 장용철(안양대학교) 발표: 류종성(안양대학교) 토론: 이수원(안양대학교)
		15:40~16:00	휴식	참가자 전체
		16:00~17:50	북한 경제전망과 남북경협 방향	사회: 장용철(안양대학교) 발표: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토론: 홍건식(연세대학교)
		17:40~18:00	이동	참가자 전체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서해지역 남북경협 협력방안 모색	

일정		주제	강사	
2일 (8/24)	21:00~23:00	자유시간	참가자 전체	
	8:00~9:30	아침식사		
	9:30~10:30	강화도→교동 대룡시장		
	10:30~11:30	교동 대룡시장		
	11:30~12:30	점심식사		
	12:30~13:00	교동 대룡시장→교동 망향대		
	13:00~13:30	교동 망향대		
	13:30~15:30	교동도→여의도		
일정		주제	강사	
2차	1일 (10/12)	15:00~17:00	여의도→강화 에버리치 호텔	참가자 전체
		17:00~18:00	저녁식사(호산정)	
		18:00~19:00	휴식, 세미나 준비	
		19:00~19:30	국제관계 속에서 남북한 통일 바라보기(공중기)	사회: 김해순(코리아연구원) 발표: 공중기(강화농업발전 연구소)
		19:30~20:00	강화군민이 바라보는 북한과 정세인식(박흥열)	발표: 박흥열(화백, 전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0~22:00	자유토론	참가자 전체
		20:00~23:00	자유시간	
		2일 (10/13)	8:00~9:30	기상 및 아침식사
9:30~11:00	초진진, 덕진진, 광성보		함경속(낙산총은 강화로여행)	
11:00~12:30	갑곶진, 월곶진, 평화빌리지, 승전포			
12:30~13:00	점심식사			
13:00~14:00	교동향교			
14:00~15:00	강화지석묘, 역사박물관			

- 남북경협외의 중요성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강의함으로써 남북경협 활성화 과정 속에서 분단비용이 절감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안내
-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여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도 현장학습을 통해 강화도의 산업과 관광 인프라 안내
- 강화도 현장학습을 통해 강화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학교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언론(강화뉴스), 지역활동가의 연
대로 구성

(바) (사)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2018 글로벌 통일두드림교실

- 교육목적
 - 청년 대학생, 시민이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강의와 함께 체험과 공감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참여자를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다문화 청년까지로 확대하여 진행함으로써 변화하는 남북관계에서 청년의 역할 제고
 - (사)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은 캠프·기행 유형인 청년학생 통일두드림대회와 문화공연·행사 유형인 글로벌 통일두드림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 교육 기간: 2018.10.13.~10.14., 10.26.~10.28.
- 교육 대상: 청소년, 대학생, 일반시민
- 교육 인원: 85명(다문화가정 청소년, 대학생, 스텝 등)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2018 글로벌 통일두드림교실					
차수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차 (50명) 10/13 ~14	1일차	숙소	10:00~12:00	경기 연천 임진강유스호스텔	전체 참가자
		식사	12:00~13:00	점심식사	
		특강	13:00~14:30	라훈일(민통선봉사단장)	
		봉사	14:30~18:30	지뢰피해주민돕기	
		식사	18:30~20:00	저녁식사	
		토론	20:00~21:00	통일, 우리의 이야기가 되다!	
	모임	21:00~23:00	화합의 밤	전체 참가자	
	2일차	식사	7:00~8:30		기상 및 아침식사
		놀이	9:00~12:00		명랑 운동회
		식사	12:00~13:00		점심식사
폐회	13:00~14:00	폐회식			
2차 (35명)	1일차	접수	18:00~19:50	경기 가평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전체 참가자
		개회	22:00~22:00	개회식, 모듬형성, 친해지기	

2018 글로벌 통일두드림교실					
차수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0/26 ~28	휴식	22:00~23:00	휴식 및 취침		
	2일차	식사	8:00~8:30	아침식사 및 고성으로 출발	
		식사	11:30~12:30	점심식사(고성명태 한수위)	
		탐방	12:30~14:30	통일전망대, DMZ 너머 해금강	동행특강:
			14:30~16:00	DMZ박물관, DMZ 과거, 현재, 미래	이영동(민화협
			16:00~18:00	화진포의 성, 김일성 이승만 이기붕	집행위원장)
		숙소	18:00~19:00	오션 투유 리조트, 저녁식사	전체 참가자
		토론	20:00~21:00	청년, 통일을 이야기하다	조별토론
	모임	21:00~23:00	화합의 밤		
	3일차	식사	7:00~9:00	아침식사	전체 참가자
		산책	9:00~10:00	해안로 산책	
		폐회	10:00~11:00	폐회 및 소감문 작성	
		이동	11:00~12:30	이동	
식사		12:30~14:00	점심식사		
해산		14:00~15:00	해산 및 귀가		

- 2018 글로벌 통일두드림교실은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및 일반 대학생이 참가하는 체험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놀이와 게임을 통해 남북한 지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평화와 통일문제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평화의식을 배양하고 남북 분단의 현실과 평화적 남북통일에 대한 비전과 생각을 교환

(사)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평화살롱,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를 마주하다.

- 교육목적
 - 평화인문기행: 시대와 주제별 문화유적을 답사함으로써 평화의 가치 확산
 - 평화워크숍: 안보 현장과 유적지를 방문하여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 애국심 고취
 - 남북의 접경지역에서 분단현실을 체험하는 현장교육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실제적인 대화 실시. 남북 보건의료협력사업의 전문단체로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

- 교육 기간: 2018.6.6.~10.9.
- 교육 대상: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회원
- 교육 인원: 82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차수	주제	장소	
평화 인문기행 (62명)	1차(6/6) (27명)	근대 역사 편	명동역, 명동성당, 우당 이회영 흉상, 명례궁터, 반민특위 건물터, 조지아백화점터(롯데 영플라자), 한국은행, 상동교회(애국계몽운동의 현장), 정미의병 운동터, 선혜청터, 구세브란스병원터, 칠패시장터, 약현성당(최초의 성당)	
	2차(8/15) (17명)	광복절 기념	항일 및 민주운동의 현장을 찾아서 독립문역, 서대문형무소, 독립관, 독립문, 영은문터, 서지터, 서관묘터, 청수장터, 조선시대경기감영터, 서대문정거장터	
	3차(10/9) (24명)	조선 역사 편	서촌마을과 검계 정선의 장동팔경최구식 경무관 동상, 창의문, 검계정선 생가터, 정철집터, 김상헌집터, 궁정동안가터, 선화궁, 세시대, 우당 이회영기념관, 정선집터, 자수궁지, 윤덕영집터, 윤동주하숙집, 수성동 계곡, 안평대군집터, 기린교	
평화 워크숍 (20명)	9/1~9/2 (20명)	강사: 염석호(염산부인과)		
		1일차 캠프 그리브스	17:00~18:00	서울역에서 버스출발
			18:00~18:30	임진강역, 통일대교 출입절차
			18:30~19:30	캠프 그리브스, 저녁식사
			19:30~20:00	안전교육, 생활안내
			20:00~23:00	보건의료전문단체로서 대북사업전망
		2일차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등	7:00~9:00	아침식사
9:00~13:00	제3땅굴, 도라산평화공원, 도라전망대			
	임진각, 자유의 다리, 망배단 자운서원(울곡서원)			
13:00~15:30	점심식사, 서울역 도착			

(아)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DMZ통일캠프, DMZ 평화투어

- 교육목적
 -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전망,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등을 주제로 전문가와 대중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의견을 나누는 논의의 장 마련
 - 남북한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남북통합 및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대북지원의 방향 모색
 - 교실을 벗어나 초·중·고 학생이 직접 분단의 현장을 보고 느끼는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세대에게 한반도 평화와 화해, 그리고 통일에 대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 제공
- 교육 기간: 2018.6.1.~10.31.
- 교육 대상: 서울경기광주시민 및 초중고 학생, 연구자, 대북지원단체
- 교육 인원: 15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일정	내용	비고	
광주지역 청소년 DMZ 통일캠프 (10/24~26)	대주제: 분단의 현장에서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31명(중고등학생 27명 인솔자 4명)	
	1일차	소주제	민족의 수난과 자주 등록 및 발대식	유스퀘어 광장
		8:30~9:30		
		9:30~11:30	광주→서울 서대문형무소	전세버스
		11:30~14:30	이동 후 점심식사	
		14:30~16:00	서대문 형무소	
		16:00~17:15	서대문 형무소→영산수련원	전체 참가자
		17:15~19:00	영산수련원 저녁식사	동행해설
		19:00~20:00	통일특강	
	20:00~21:30	조별모임 후 취침		
	2일차	소주제	분단 평화 그리고 통일	
		7:30~8:00	기상 및 짐정리	전체 참가자
		8:00~9:00	아침식사	
		9:00~11:00	영산수련원→철원 백마고지	영상상연: 전쟁과 분단

구분	일정	내용	비고	
	11:00~12:00	노동당사, 감리교회	전체 참가자 동행해설	
	12:00~13:30	점심식사		
	13:30~14:30	백마고지		
	14:30~16:10	백마고지→ 오두산 통일전망대		
	16:10~17:30	오두산 통일전망대		
	17:30~18:00	오두산 통일전망대→ 영산수련원		
	18:00~19:00	저녁식사		
	19:00~19:30	통일특강	전체 참가자	
	19:30~21:30	조별모임 후 취침		
	소주제	통일이 되면: 통일의 주인은 나와 나		
	8:00~9:00	기상 및 짐정리, 아침식사		
	3일차 9:00~11:30	파주 DMZ, 도라산역, 남북출 입사무소, 임진각		전체 참가자 동행해설
	11:30~17:00	경기도 파주→ 광주, 점심식사		영상상연
	17:00~17:10	해단식		유스퀘어 광장
DMZ 평화투어 1차(6/2) 2차(10/6) 3차(10/24)	인솔	이영동 (민족화해협의회)	어린이, 청소년, 성인: 1차(42명) 2차(44명) 3차(33명) 119명	
	10:00~11:30	임진각 (망배단/녹슨 증기기관차)		
	11:30~12:30	도라산역/도라산전망대 (통일대교)		
	12:30~13:30	점심식사		
	13:30~14:30	승전OP/경순왕릉		
	14:30~16:30	반구정		

(자) 통일민주협의회: 한반도신경제지도 연결점에서 평통 그리기

• 교육목적

- 급변하는 남북한과 한반도 정세와 그에 따른 정책 변화를 시민이 이해하고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현장 탐방

- 교육 기간: 2018.9.8.~9.9.
- 교육 대상: 인천, 서울, 경기 지역 회원, 평화단체 활동가
- 교육 인원: 95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일정		내용		비고
9/5	회의	1:00~14:00	최종 기획회의	14명 참여
1일 (9/8)	평화통 일통합 포럼	10:00~11:00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진단: 신경제지도 중심으로	발표: 강준근(한국성경교회) 사회: 신맹순(인천연주소) 토론: 이종국(통일교육위원)
		11:00~12:00	한반도 평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발표: 김재용(법무법인 기람) 사회: 강종일(한반도중립화 통일협회) 토론: 이인숙(통일교육위원)
		13:00~14:20	남북의 사람 간의 통합 방법 모색	발표: 박희원(성신호대학원 대학교) 사회: 구자선(새터민자립 후원회) 토론: 이순실(한국노인복지 센터)
	통일 농가	14:30~18:00	민통선 내 통일농가 작은별 농원에서 배 시식과 배 따기	즉석 통일음악제 진행: 민남일(가수)
	골든벨	19:00~20:00	평화, 통일, 통합 200문제 출제	2~3명 기준 40팀 워크숍 전 예상문제 배포
	경연	20:20~21:30	별밤 화합 잔치, 장기자랑, 노래	8명 기준 11개팀
	2일 (9/9)	탐방	8:30~12:30	접경지역 평화벨트 출발점 신탄리역, 백마고지
걷기		11:00~11:30	2인 1조 눈 가리고 백마고지 1km	전체 참가자
농장		시간미상	화훼 평화농장 체험	허브빌리지
음식			북한음식문화 체험	손가락과자, 별사탕, 속도 전떡
쓰기			포스트잇에 희망쓰기	대표글 5장 선별 소개, 상품제공
쓰기			주제가 흐르는 평화통일 문장만들기	11개 조 방별 진행
음악	민통선에서 함께 부른 통일 음악제		진행: 민남일(가수)	

- 프로그램은 평화통일통합포럼, 민통선 내 통일농가 배따기 체험, 평화통일통합 도전 골든벨, 남북화합마당, 접경지역 평화벨트 출발점 탐방, 이신전심 평화체험 프로그램, 허브빌리지 화훼평화농장 체험, 북한음식문화 체험, 포스트잇에 희망쓰기, 주제가 흐르는 평화통일 문장 만들기, 민통선 안에서 함께 부른 통일음악제로 구성되며, 1박 2일 동안 진행

(차) (사)평화문제연구소: 협업을 통한 통일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안보 및 역사체험 프로그램

- 교육목적
 - 교사를 대상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
 - 남북 접경 및 휴전선 최전방을 방문하여 현장체험을 통해 분단과 안보의 의미를 피부로 느낄 기회를 제공
- 교육 기간: 2018.9.11.
- 교육 대상: 청소년, 대학생, 통일교사 및 전문가
- 교육 인원: 216여 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일정	내용
안보 및 역사체험 프로그램 (9/11)	9:00~10:30	이동, 경기도 연천군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체험
	13:30~12:30	KTX 통일열차를 타고 통일 7년 후 시대에 도착 문화, 관광, 물류, 자원의 4개 영역 가상체험
	12:30~13:30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내 식당 점심식사
	13:30~14:30	이동, 한반도통일미래센터→통일대교
	14:30~15:15	통일대교
	15:15~16:30	판문점 견학
	16:30~19:00	이동, 해산

(카) (사)평화한국: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우만통(우리가 만드는 통일) 프로젝트-우만통 발걸음

- 교육목적
 -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와 NGO의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 우만통 발걸음은 분단의 현장 DMZ를 찾아 걸어봄으로써 분단 국가, 평화통일, 한민족 등에 대한 생각을 체화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
- 교육 기간: 2018.6.9.
- 교육 대상: 남한청소년, 탈북청소년
- 교육 인원: 4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시간	주제	탐방	진행
우만통 발걸음	10:00~12:00	출발	합정역	서민규 (한국성서대학교)
	12:00~13:00	과거: 전쟁과 분단의 아픔	임진각, 철마, 평화의 종	
	13:00~14: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4:00~16:00	현재: 전쟁의 위협	제3땅굴, 도라전망대	
	16:00~17:00	미래: 통일의 비전	도라산역	
	17:00~19:00	도착	합정역	

(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함께 만드는 평화·생명·통일교육

- 교육목적
 -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을 청년과 시민이 각자의 입장에서 성찰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분단의 현장 탐방
 - 1차 강원 인제, 양구 평화생태기행은 인제와 양구지역의 DMZ를 둘러보고 평화, 생명, 분단의 현실 성찰
 - 2차, 3차 교동도 평화기행은 북한과 2.6km 거리에 위치한 집

경지역 교동도에서 직접 북한을 조망하고,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온 실향민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았던 모습을 생각하며 통일과 평화 성찰

- 교육 기간: 2018.6.8.~10.31.
- 교육 대상: 청년 및 일반시민
- 교육 인원: 105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강원 인제 양구 평화생태기행 (36명) 6/8~6/9	9:00~9:30	서울역, 강변역 출발	
	9:30~12:00	인제 산촌민속박물관	
	12:00~13:00	점심식사	
	13:00~17:00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	
	17:00~18:00	한국DMZ 생태탐방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특강: 생명으로 여는 평화-DMZ 평화생태동산 정성현(한국DMZ평화생명동산)	
	20:00~21:30	대화: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설송화(북한이탈주민)	
	21:30~22:00	간담회: 최근 경기 북부 접경지역 취재기 박경만(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겨레신문)	
	2일	8:00~09:00	아침식사
		9:00~12:00	을지전망대, 펀치볼
		12:00~13:00	점심식사
		13:30~15:00	자생식물원 둘레길 걷기
		14:00~16:00	음악회: DMZ자생식물원 잔디밭 PLZ 페스티벌 참여
16:00~19:30		강변역, 서울역 도착	
교동도 평화기행 10/13(37명), 10/17(32명)	9:00~11:00	서울역 출발	
	11:00~11:30	철조망 따라 걷기	
	11:30~13:00	북측 조망, 교동 망향단 강연: 평화 새로운 미래 구영모(통일민주협의회)	
	13:00~14:00	점심식사	
	14:00~15:00	대룡리 시장 둘러보기	
	15:00~16:00	교동 역사유적지 탐방: 교동향교, 교동읍성	
	16:00~18:00	서울 도착	

(파) (사)한국가족문화원: 화합과 공감을 여는 평화통일 체험캠프

- 교육목적
 - 남북한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화합과 소통을 위한 공감대 형성
- 교육 기간: 2018. 4. 19. ~10. 31.
- 교육 대상: 청소년과 일반시민(북한이탈주민 포함)
- 교육 인원: 45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패널
1일 (8/18)	10:00~10:15	광화문역 집합	전체 참가자
	10:15~11:20	서울역사박물관 해설 및 자유관람	박물관 도슨트(안내인)
	11:20~12:30	이동 홍원수련원	전체 참가자
	12:30~13:30	점심식사	전체 참가자
	13:30~14:00	숙소 도착	전체 참가자
	14:00~16:15	강연: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소통방식과 지속가능한 통합의 가능성	소태영(전국하나센터협회)
	16:15~18:15	강연: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현황과 남북화합 및 이해를 위한 노력	한미래(통일부 통일교육)
	18:15~19:15	저녁식사	전체 참가자
	19:15~21:15	전통 공예체험: 전통재료 활용 남북한 공동작품 제작을 통한 화합과 소통의 장	강미정(청소년, 기업교육)
	2일 (8/19)	8:00~9:30	아침식사
9:30~11:00		임진각 이동 및 출입절차 진행	현장 안내자 인숙
11:30~12:00		제3땅굴 방문 및 영상관 관람	기관 관계자 안내
12:00~13:00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기관 관계자 안내
13:00~14:00		점심식사	전체 참가자
14:00~15:30		서울 도착	전체 참가자

-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들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전문가가 함께 1박 2일을 보내며 통일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절차 및 과제를 생각하는 강의와 체험활동 진행

(하) 한국걸스카우트연맹: DMZ 투어

- 교육목적
 - 청소년이 남북분단의 상징인 DMZ를 탐방하며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할 기회 제공
 - 청소년에게 남북관계 현황과 쟁점, 우리의 통일정책과 방안, 당면과제와 향후 전망 등을 알게 함으로써 통일이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인식하는 계기 제공
 - 현존하는 냉전사의 현장인 DMZ 비무장지대 탐방을 통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평화의 중요성 제고
- 교육 기간: 2018.5.14.~10.31.
 - 교육 대상: 경기도내 청소년, 지도자
 - 교육 인원: 260명(청소년 250명, 지도자 2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1차 (5/26)	9:00~10:00	임진강역 도착 및 통일대교 출입 절차, 안전교육
	10:00~11:00	DMZ생태문화교실 “생태 손수건 만들기”
	11:00~12:00	영상 시청 및 평화기원 리본달기
	12:00~13:00	점심식사
2차 (10/20)	13:00~14:00	사전교육, 제3땅굴
	14:00~15:00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15:00~16:00	도라산평화공원, 평화통일 오리엔티어링
	16:00~17:00	귀가

(거)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시민과 청년이 함께하는 통일교육: 통일문화 기행

- 교육목적
 -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공감 확산과 건전한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통일을 실천할 수 있는 통일인재 양성

- 교육 기간: 2018.5.19.~10.31.
- 교육 대상: 대학생, 일반시민
- 교육 인원: 55명(통일문화기행 35명, 평화인권민주주의 기행 2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		통일문화기행	
일정		내용	비고
1일 (5/19)	8:20~11:40	교대역 출발	전체 참가자
	11:40~12:30	공남지, 서동 선화공주 인공연못	부여 역사해설사
	12:30~13:00	점심식사	전체 참가자
	13:30~17:00	소산성, 낙화암 황포돛배 유람선, 정림사지	동행 역사해설사
	17:00~18:00	국립부여박물관, 신동업박물관	
	18:00~20:00	저녁식사, 공주 유스텔	전체 참가자
	20:00~21:00	통일강연	양미래(통일강사)
2일 (5/20)	21:00~22:30	정의돈수	동행 역사해설사
	8:00~9:00	아침식사	전체 참가자
	9:00~12:00	송산리고분, 무령왕릉, 공산성	동행 역사해설사
	12:00~13:00	점심식사	전체 참가자
	13:00~15:00	이동, 버스 안 통일특강	동행 통일강사
프로그램		평화인권 민주주의 기행	
일정		내용	비고
1일 (9/15)	10:00~11:30	합정역 출발	동행 통일강사 동행 역사해설사
	11:30~12:30	강화지석묘, 강화역사박물관	
	12:30~13:40	점심식사	
	13:40~16:00	교통도, 화개사, 음성, 대룡시장, 평화전망대	
	16:00~18:00	고려궁지, 음흥궁, 성공회 강화성당	
	18:00~19:30	저녁식사	
	19:30~21:00	강의: 강화도와 통일	
2일 (9/16)	9:00~10:00	아침식사	
	10:00~12:00	전등사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초지진, 광성보, 갑곶돈대	
	16:00~17:30	이동 및 귀가	

(4) 문화공연·행사 유형

2018년 통일교육협의회에서 진행된 사회통일교육 가운데 문화공연·행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4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국학원: 제3회 평화통일기원 청소년 백일장·사생대회

- 교육목적
 - 청소년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 제고
 - 글과 그림 수상자는 DMZ를 탐방함으로써 분단현장을 직접 체험
- 교육 기간: 2018.6.1.~10.31.
- 교육 대상: 유치부, 초·중·고등학생
- 교육 인원: 75명(학생 55명, 학부모 14명, 인솔교사 6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일정	내용	구성
백일장 사생대회 (75명)	대회 6/16	장소	국학원 경내 잔디구장
		공연	평화통일기원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기공 시연
		제출작	백일장 30점, 사생대회 30점
	심사 6/23	장소	단월드 연수원 2층 세미나실
		결과	백일장 21점: 초등부 2점, 중등부 6점, 고등부 13점
			사생대회 26점: 유치부 3점, 초등부 14점, 중등부 3점, 고등부 6점
	시상식 7/5	장소	단월드 연수원 본관 1층
		참여	백일장, 사생대회 수상자 32명
		행사	국학원 전시관 투어
DMZ견학 (38명)	방문 8/17	참여	총 38명: 학생 20명, 일반 3명, 학부모 8명, 인솔교사 7명
		08:00	천안역 출발
		10:00	임진각
		10:30	도라산 전망대
		12:00	점심식사
		13:00	제3땅굴체험, 도라산 역
		17:00	저녁식사
		19:00	천안역 도착

- 백일장 대회에서 통일에 대한 글을 학생이 직접 써봄으로써 남북분단과 평화통일을 생각해볼 시간을 갖게 했으며, 시상으로 DMZ 견학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함으로써 남북 분단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집으로 돌아가 가정 안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 제공

(나) (사)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2018 청년학생 가상통일발표대회

- 교육목적
 - 청년 대학생, 시민이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강의와 함께 체험과 공감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참여자를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다문화 청년까지로 확대하여 진행함으로써 변화하는 남북관계에서 청년의 역할 제고
- 교육 기간: 2018.10.12., 2018.10.27.
- 교육 대상: 청소년, 대학생, 일반시민
- 교육 인원: 200명(대학생 부문 경연 100명, 청소년 부문 경연 10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			글로벌 통일 두드림 교실	
구분	일정	시간/수상	주제	패널
대학생 부문경연 (100명) 10/12	발표	13:00~ 14:20	발표 경연	1~6번
		14:30~ 15:50	발표 경연	7~12번
	심사	16:00~ 17:00	심사기준: 창의, 논리, 발표, 현실가능성, 호응도	박만순(부산 통일교육위원) 윤은기(부산통일교육센터) 김형빈(동아대학교)
	시상	대상	레일로 기차로 미래로	양기경(동아대학교)
		최우수상	남북 경제협력: 경제특구중심	신지호(동아대학교)
		우수상	남북공동회담 경과: 결과와 전망	이주영(동아대학교)
우수상	통합적 교육관점으로 바라본 통일교육	전유민(동아대학교)		

프로그램		글로벌 통일 두드림 교실		
	우수상	한반도 소통을 위한 이동통신	이필영(부산대학교)	
	입상	남북한 문화교류 탐구	서애진(동아대학교)	
	입상	시작과 끝에 있는 문화교류	이경은(동아대학교)	
	입상	통일을 위한 준비	박종현(동아대학교)	
	입상	남북통일 이후 DMZ 이용과 평화공원	이창재(동아대학교)	
	입상	통일 이후 남북한 행정구역 개편	이경후(동아대학교)	
	입상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와 문제점	이윤오(동아대학교)	
	입상	내가 행복한 통일	이영웅(동아대학교)	
청소년 부문경연 (100명) 10/27	강연	13:00~ 14:10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인식	사회: 임수핵(활동가) 발표: 이기원(통일교육센터)
	발표	14:30~ 16:00	통일발표대회	청소년 6개 팀
	게임	16:10~ 16:30	OX퀴즈	참가자 전체
	심사	16:30~ 17:00	현장심사 및 심사평	손기혁(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경남지부) 박판도(前경남도의회) 최종덕(21기통일교육위원)
	시상	대상	레일로 기차로 미래로	윤종선(진양고등학교)
		최우수상	통일 열차의 현위치	양준영(반림중학교)
		우수상	청소년의 시선으로 본 가상통일	박수영(창원여자고등학교)
		장려상	통일 후 어떤 일이 생길까?	강하영(성민여자고등학교)
		장려상	통일 후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신지우, 표예빈(진양고등학교)
	장려상	북한의 토지소유 제도와 식량난	권소희(단성중학교)	
폐회	17:20~ 17:30	폐회 및 기념촬영	참가자 전체	

(다) (사)평화한국: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우만통(우리가 만드는 통일) 프로젝트-우만통 우리이음

• 교육목적

-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와 NGO의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 미술, 음악, 무용, 사진, 영화 등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할 시간 제공. 즉흥극 및 상황극을 통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각자의 입장을 경험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제고

- 즉흥극과 상황극에는 예술 및 심리치료 전문가가 함께하여 서로의 다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이를 통해 남북한의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

- 교육 기간: 2018.9.8.~10.27.
- 교육 대상: 남한청소년, 탈북청소년
- 교육 인원: 누계 68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		우만동 우리이음	
차수	시간	내용	패널
1차 (9/8)	10:00~12:00	자기소개 및 릴레이 체조 리더십 게임	진행: 이세연(동덕여자대학교) 보조: 강사 2명 참여: 청소년 7명
2차 (9/22)	10:00~12:0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Go & Stop	진행: 이세연(동덕여자대학교) 보조: 강사 2명 참여: 청소년 11명
3차 (9/29)	10:00~12:00	고리풀기, 나는 풍선	진행: 이세연(동덕여자대학교) 보조: 강사 2명 참여: 청소년 12명
4차 (10/6)	10:00~12:00	감정빙고(1) 감정 시간표	진행: 이세연(동덕여자대학교) 보조: 강사 2명 참여: 청소년 10명
5차 (10/13)	10:00~12:00	소망나무 만들기(2) 나무와 열매	진행: 이세연(동덕여자대학교) 보조: 강사 2명 참여: 청소년 5명
6차 (10/27)	10:00~12:00	감정빙고(2) 소망나무 만들기(2)	진행: 이세연(동덕여자대학교) 보조: 강사 2명 참여: 청소년 5명

(라)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시민과 청년이 함께하는 통일교육
-희망릴레이 청년쇼

- 교육목적
 -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공감 확산과 건전한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통일을 실천할 수 있는 통일인재 양성
- 교육 기간: 2018.6.29.
- 교육 대상: 대학생, 일반시민
- 교육 인원: 45명(일반시민 25명, 회원 2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	희망릴레이 청년쇼	
일정	내용	비고
운영TF	전체 프로그램 기획	청년운영위원회
목적	남북한의 차이 이해 청년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준비	
구성 내용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 문화교류 남북 대학생 통일관련 토크쇼 월드카페 진행	
대주제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18:00~18:30	행사 사전준비 및 등록	
18:30~19:30	마음열기	사회: 유지민
19:30~21:00	모둠토론(월드카페) 촉진자: 전병준, 김규희, 이예람, 김영주	사회: 류재웅

- 희망릴레이 청년쇼는 1년에 1회, 12년 동안 운영
- 남한과 북한이 고향인 청년들이 모여 남한과 북한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대화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나. 서울시 공모사업

서울시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 7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다.”에 근거하여 2016년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⁵²⁾ 이를 기반으로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사용하여 공모사업 형식으로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8개 단체를 시작으로 2017년에 11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2018년에는 18개 민간단체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17,000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⁵³⁾

〈표 Ⅲ-4〉 서울시 평화·통일 프로그램 공모 단체 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단체	8개	11개	시민교육형 9개 콘텐츠형 9개

2018년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은 ① 시민강좌·강사양성, 현장 체험형 교육 등 시민교육형 사업과, ② 문화·예술 콘텐츠, 교육 콘텐츠, 학술 콘텐츠 등 콘텐츠형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2018년에 콘텐츠형 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모를 진행한 것은 강의식 교육 이외에 연극과 공연 등을 통해 통일교육에 시민들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2018년 서울시 통일교육 공모사업 참가 단체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표 Ⅲ-5〉와 같다.

52)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시행 2019. 9.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306호, 2019. 9. 26., 일부개정) <<https://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10279>> (검색일: 2019.9.27.).

53) 서울시 홈페이지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7006822?tr_code=m_open> (검색일: 2019.9.2.).

〈표 III-5〉 2018년 서울시 통일교육 공모사업 참가단체 및 프로그램명

구분	단체명	통일교육 사업명	①	②	③	④	⑤	소계
시미 교육청	1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0					1
	2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0	0	0		0	3
	3	(사)청소년통일문화		0	0			2
	4	통일경제포럼	0					1
	5	아하연립교육센터	0					1
	6	인종근의사기념사업회	0	0	0			2
	7	(사)한반도평화포럼	0					1
	8	통일인성교육원		0				1
	9	(사)국학원 서울국학원		0				1
서울시	1	역삼본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				0		1
	2	(사)어린이에게동무					0	1
	3	(사)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1
	4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길동해결센터						1
	5	(사)세름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1
	6	(사)남북물류포럼		0				1
	7	통일양상블				0		1
	8	극단 진동						1
코텐츠 중	9	(사)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1
	계		6	5	1	6	4	122

(1) 연속강좌 유형

2018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에서 진행된 사회통일교육 가운데 연속강좌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6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아해열린교육센터: 평화통일 시민 강사 양성 남이랑 북이랑 통해야 통일이닷 현장체험

- 교육목적
 - 북한문화 이해 및 통일의 중요성 교육을 위한 시민강사 및 전문강사 양성
- 교육 기간: 2018년 6.19.~8.23.
- 교육 대상: 서울시민 대상
- 교육 인원: 2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차수	주제	교육내용	강사
1차 (6/19)	오리엔테이션	교육의 목적과 자기소개	박상현(수원여자대학교)
2차 (6/21)	남북 분단의 역사 1	남한과 북한의 이념갈등	오제연(성균관대학교)
3차 (6/26)	남북 분단의 역사 2	남한과 북한의 분단의 아픔	오제연(성균관대학교)
4차 (6/28)	남북 분단의 역사 3	남한과 북한의 통일 노력	오제연(성균관대학교)
5차 (7/3)	분단 이후 북한의 역사 1	북한 정치의 이해	이창희(동국대학교)
6차 (7/5)	영상활용 편집	영상편집 교육	서인식(마을TV)
7차 (7/10)	평화통일 디베이트 실행하기 1	평화통일 디베이트	최은희 (한국디베이트코칭협회)
8차 (7/12)	평화통일 보드게임 1	보드게임의 이해 및 구상	송기문(역사문화체험)
9차 (7/17)	평화통일 디베이트 실행하기 2	디베이트 팀별 발표	최은희 (한국디베이트코칭협회)

차수	주제	교육내용	강사
10차 (7/19)	평화통일 보드게임 2	보드게임 팀별 발표	송기문(역사문화체험 강사)
11차 (7/24)	평화통일 현장 교육	전쟁기념관	정은희(역사문화체험 강사)
12차 (7/26)	평화통일 수업 전래놀이 활용	평화통일 전래놀이 구성	홍진숙(놀이연구회 동동)
13차 (7/31)	북한음식 푸드테라피	북한음식 이해와 푸드테라피	유영희(푸드테라피 강사)
14차 (8/7)	평화통일 현장교육	파주 평화안보 시티투어	이창희(동국대학교)
15차 (8/9)	분단이후 북한의 이해 2	북한의 현실 이해와 실태분석	김남숙(통일부)
16차 (8/14)	스팟 수업	스팟 기법 실습	박상현(수원여자대학교)
17차 (8/16)	실내시연(팀별시연)	역사/디베이트/보드/놀이/음식	정정미/이상직 (문화체험강사)
18차 (8/21)	현장시연(개별시연)	전쟁기념관, 현장개별시연	이경영/남을순
19차 (8/23)	종강, 수료식	수료식, 평가, 활동계획	이경영(야해열린교육센터)

(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청년 안중근 평화기자단

- 교육목적
 - 역사 속의 친일을 청산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관련 글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청년 육성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의 프로그램은 ① 연속강좌 유형인 청년 안중근 평화기자단과 청년안중근 역사평화해설사, ② 문화공연·행사 유형인 효창원평화놀이터로 구성
- 교육 기간: 2018.4.5.~11.30.
- 교육 대상: 초등학생 및 청소년과 서울시민 대상
- 교육 인원: 48여 명(평화기자단 28명, 역사평화해설사 22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	강사
평화 기자단	저널리즘 (12회)	평화와 기자정신, 언론윤리, 기자로서 고민해야 할 가치관, 이상적인 기자상, 인터뷰론, 작성기사 피드백	박형숙(가톨릭프레스)
		친일과 망각, 시대정신을 고민하는 기자의 역할, 역사와 현재의 상관관계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 남북경제협력 모델 '개성공단' 설립배경, 현황과 남 북대화	심인보(뉴스타파)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콘텐츠제작 (4회)	영상 편집, 보정, 모션 제작, 학습, 실습	전하린 (프리랜서 영상강사)
	그룹활동	기사 40개, 영상 4개, 카드뉴스 11개 제작	4~5명 1팀, 28명 수료
	시민공유	기자단 제작 콘텐츠 SNS 공유	연인원 3000명 콘텐츠 소비
역사평화 해설사	역사교육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효창원의 독립 운동가	성희연(기념사업회)
	그룹활동	개인 해설 대본 작성, 그룹세미나	역사해설가 참관
	시민교육	총 12회 실습, 시민 약 400명 대상	

- 평화기자단은 청년의 시각에서 남과 북이 함께 기억하고 해결
해야 나가야 할 독립운동의 역사와 친일청산(강제징용 재판,
일본군 '위안부' 등)과 남북교류의 필요성과 화해를 통한 통일
에 대해 논의
- 평화기자단은 28명을 대상으로 강연과 멘토링 교육을 통해 4
가지 주제(독립운동, 친일청산, 남북화해, 민주주의)를 기자단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유하는 과정
으로 운영
- 본 과정에서 기사 40개, 영상 4개, 카드뉴스 11개 총 55개 콘
텐츠를 생산, 생산된 콘텐츠는 페이스북을 기준으로 매 콘텐
츠마다 평균 300개 이상의 공유 수를 기록
- 역사평화해설사는 독립 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 구하고자 했
던 조국의 모습이 과연 분단 국가였을지에 대한 질문을 시작

- 으로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
- 역사평화해설사는 22명을 대상으로 강연과 그룹학습을 통해 효창원에 안치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해설 대본을 직접 작성하며 역사를 체화했으며 8월과 11월 약 1,000명의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역사 해설

(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평화통일 시민강사 양성

- 교육목적
 -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 및 양성된 통일교육 전문가를 활용하여 서울시 초등학교 및 청소년, 서울시민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 실시
 - 프로그램은 ① 연속강좌 유형인 ‘평화통일 시민강사 양성,’ ② 강연·세미나·포럼 유형인 ‘찾아가는 통일교육,’ ③ 콘텐츠 개발 유형인 ‘맞춤형 통일교육 교안 제작’으로 구성
- 교육 기간: 2018.10.4.~11.1.
- 교육 대상: 초등학생 및 청소년과 서울시민 대상
- 교육 인원: 40여 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장소	과정	차수	프로그램
평화통일 시민강사 양성과정	겨레하나 평화통일 교육장 연인원 160명	심화과정 (7~15명)	1강(4/17)	분단의 기원과 통일의 필요성
			2강(4/24)	행복한 통일의 필수조건
			3강(5/1)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구조 이해하기
			4강(5/8)	우리가 모르는 북한의 변화
			5강(5/15)	남북대화과 만남으로 통일만들기
			6강(5/22)	학교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7강(5/29)	최근 북한의 모습
			8강(6/5)	판문점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세
		기본과정 (13~25명)	1강(10/4)	2018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의 의미
			2강(10/11)	분단의 기원과 통일의 필요성
3강(10/18)	개성공단이 알려준 통일의 방법			

구분	장소	과정	차수	프로그램
			4강(10/23)	협북사회를 말한다
			5강(11/1)	공존의 시대를 위한 시민의 역할

- 기본과정 5회와 심화과정 2회, 시범강연 및 수료식을 이수한 사람은 이후 월 2회 정기모임인 세미나모임을 지속하고, 일정한 교육훈련을 거쳐 겨레하나 평화통일교육 강사로 활동
- 이 과정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으로 기본과정은 하반기, 심화과정은 4월에 진행

(라) 통일경제포럼: 통일경제 청년리더 Study & Go⁵⁴)

- 교육목적
 -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탐방을 통해 통일경제를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청년리더를 발굴하고 육성
 - 청년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통일담론을 생산하고 전파하여 한국경제의 위기 해법을 통일경제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 교육 기간: 2018.5.8.~11.30.
- 교육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20~30대 청년
- 교육 인원: 38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정	장소	내용	패널
학습세미나	4/4, 4/6	통일경제포럼	청년실업 현실과 통일경제	참석인원 21명
학습세미나	4/11, 4/13	통일경제포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미중	참석인원 22명

54) 본 프로그램은 연속강좌, 캠프·기행, 문화·공연·행사 유형이 복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모든 프로그램이 정해진 참여자를 대상으로 계획된 기간에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연속강좌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프로그램	일정	장소	내용	패널
남북청년토크	1차(5/4)	여성플라자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북한이탈청년 2명 남한청년 15명
전문가 강연	1차(5/8)	환경재단	이제는 유라시아다	이병한(역사학자)
DMZ현장탐방	1차(5/12)	DMZ	임진각, 오두산전망대, 장단콩마을	참석인원 40명
토론회	1차(5.27)	여성플라자	남북경협 빅뱅과 청년의 통일경제	참석인원 30명
전문가 강연	2차(9/21)	서울NPO센터	격변하는 국제질서와 평화 변영의 한반도	이재봉(원광대학교)
전문가 강연	3차(10/5)	서울NPO센터	북한 경제발전의 실상과 남북경협의 미래	임음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토론회	2차(10/12)	여성플라자	평화나 통일이냐, 남북경협과 리스크 관리	참석인원 13명
전문가 강연	4차(11/2)	서울NPO센터	남북 과학기술 협력과 청년의 역할	변학문(북한과학 기술연구센터)
DMZ현장탐방	2차(11/17)	DMZ	적군묘지 도라산전망대, 도라산역 오두산전망대	참석인원 35명
학습세미나	11/9, 11/23	통일경제포럼	김정은시대 경제정책과 가능성	최은주(세종연구소) 참석인원 14명
전문가 강연	5차(11/30)	서울NPO센터	개성공단과 평화경제의 새 비전	김진행(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 학습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단순 교육이 아닌 참여자가 의제를 발굴하고 운영에 참여
- 전문가를 초빙한 연속강좌를 통해 통일경제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자료집과 영상자료로 생성
- 참여자가 사전에 조사하고 학습한 내용으로 자료집 생성 배포, 참여자들이 미리 숙지한 장소를 찾아 현장탐방하고 직접 현장에서 해설, 탐방과정을 영상자료로 생성
- 참여자가 “남북경협 창업 아이디어 토론회”에 참여하여 아이디어 보드를 전시

- 1기 활동에 참여한 청년학생 중 활발한 활동을 한 10명이 통일경제포럼의 청년학생위원으로 선발되어 2기 교육사업의 주체로 활동
- 1기 활동에서 구축된 교육 커리큘럼을 텍스트와 영상자료로 생산하여 유튜브에 공유
- 온라인 홍보(페이스북 30개 게시물, 인스타그램 5개 게시물)를 통해 회원의 활동을 공유하고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 확산

(마) 한반도평화포럼: 2018 한반도 평화조성 프로젝트⁵⁵⁾

- 교육목적
 - 전쟁과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지향의 평화운동 추구
 -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인재 양성
- 교육 기간: 2018. 4. 4. ~12.12.
- 교육 대상: 일반시민
- 교육 인원: 140여 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		한반도 평화포럼 아카데미	
차수	장소	내용	강사
1학기	대주제: 북한과 남북관계		
1세션	주제: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1차(4/4)	창비 서교빌딩	2019년 한반도와 북한 깊이 알기	이종석(세종연구소)
2차(4/18)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	김용현(동국대학교)
3차(5/2)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4차(5/16)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 문화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2세션	주제: 북한을 변화시키는 힘, 남북관계		
5차(5/30)	창비 서교빌딩	70년의 대화: 남북관계사	김연철(인제대학교)
6차(6/13)		남북철도 연결과 북방경제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7차(6/27)		평화와 통일의 상관관계: 통일국민협약	이정철(숭실대학교)

55) 본 프로그램은 연속강좌 유형과 캠프·기행 유형이 복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정해진 참여자를 대상으로 계획된 기간에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연속강좌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프로그램		한반도 평화포럼 아카데미	
차수	장소	내용	강사
8차(7/11)		시민참여형 통일운동과 한반도 평화	이태호(참여연대)
심화워크숍 (7/20~21)	강원도	남북협상의 실제	고경빈(남북하나재단)
		논문작성법	김동엽(극동문제연구소)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참가자
2학기	대주제: 동북아시아 안보환경과 한반도		
3세션	주제: 현상타파형 역동적 균형외교		
9차(9/5)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김준형(한동대학교)
10차(9/19)	창비	중국과 한반도	이남주(성공회대학교)
11차(10/10)	서교빌딩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전망	양기호(성공회대학교)
12차(10/24)		동북아 공동체와 다자간 안보협력	문정인(연세대학교)
4세션	주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13차(11/7)		북핵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동엽(극동문제연구소)
14차(11/21)	창비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서보혁(통일연구원)
15차(12/5)	서교빌딩	대전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고유환(동국대학교)
16차(12/12)		2020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정세현(한반도평화포럼)
프로그램		한반도 평화기행	
1차(4/21)	DMZ	을지전망대, 소동령마을, 건봉사	
2차(9/29)	강화도	강화평화전망대	

-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민족문제 등을 연구하는 학자, 종교·문화·시민사회 영역의 활동가, 관련 분야의 전직 관료 참여
- 프로그램의 80% 이상 출석자에 한하여 수료증 발급, 심화워크숍은 반드시 참여하게 하여 참가자의 교육 관리
- 교육과정 동안 참가자에게 16개의 강의 중 8개 이상의 수업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하며, 이를 연구 리포트로 발표, 과정이 끝난 후 학술 논문을 제출한 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바)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우리 마을에 통일 꽃이 피었습니다.⁵⁶⁾

- 교육목적
 - 마을공동체에서 풀뿌리 평화·통일운동 전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풀뿌리 운동을 전개할 인재양성과 평화·통일교육 모델 개발 및 보급
 - 평화통일교육과 공감토크쇼는 영화와 음식이라는 익숙한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시민의 참여와 공감 제고
- 교육 기간: 2018.4.30.~10.21.
- 교육 대상: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주민대상 교육
- 교육 인원: 105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역	일정	참여(명)	연대단체
평화 통일 교육	영화로 보는 통일 '코리아'	강서구	4/30	25	강서구
	통일 후 미래설계	영등포구	10/9	25	강서혁신교육지구
		관악구	10/6	25	창의인성지원분과
공감 토크쇼	평화통일감수성 기르기	강서구	5/3	25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통일이야기	영등포구	10/9	25	카페 봄봄,
		관악구	10/6	25	영등포 통일넷
평화통일 공감여행	강화 교동도, 강화평화전망대 교동 대릉시장, 망향대	강서구	5/13	35	관악구 좋은바람 협동조합,
		영등포구	10/21	35	푸른공동체 살터,
		관악구	10/9	35	관악동작학교 운영위원협의회

- 3개 지역 6개 단체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통일

56) 본 프로그램은 ① 강연·세미나·포럼유형인 평화·통일 교육, ② 캠프 및 기행 유형인 평화·통일 공감여행, ③ 문화공연·행사유형인 평화·통일 공감토크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서구와 영등포구, 관악구의 정해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연속강좌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교육을 위한 토대구축

- 각 마을에 적합한 평화통일 콘텐츠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개선 방향 탐색
- 2017년에 양성된 평화통일교육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통일교육을 운영
-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통일공감토크쇼를 운영하고 함께 북한음식을 체험
- 교육과정을 이수한 참여자와 참여자의 가족이 함께 평화통일 공감여행에 참여
- 향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 교육행사와 접목하여 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협의
- 포스터와 웹자보를 제작하여 SNS,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2)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

2018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에서 진행된 사회통일교육 가운데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5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국학원 서울국학원: 청소년 나라사랑 통일리더 캠프

- 교육목적
 - 통일시대 리더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교육
- 교육 기간: 2018.5.27.~7.20.
- 교육 대상: 서울거주 초중등 학생
- 교육 인원: 337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차수	대상	장소	내용
1차(5/28)	벤자민학교 13명	시민청태평홀	통일게임 조별 브레인스토밍 창작활동
2차(6/4)	원목초등학교 5학년 27명	5학년 4반교실	
3차(6/18)	신흥초등학교 3학년 50명	신흥초 교사연수실	
4차(6/19)	신흥초등학교 3학년 25명	신흥초 교사연수실	
5차(6/20)	신흥초등학교 3학년 50명	신흥초 교사연수실	
6차(6/20)	신상계초등학교 4학년 57명	신계초 강당	
7차(7/19)	월계초등학교 2학년 34명	월계초 강당	
8차(7/20)	월계초등학교 1학년 57명	월계초 강당	
9차(7/20)	한양대사범중학교 24명	한양대사범중 교실	

(나) (사)남북물류포럼: 통일문제 ‘남남갈등’ 해소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 교육목적
 - 대북정책 추진 관련 남남갈등 해소 및 통일 문제 관련 세대 간 인식격차 완화
- 교육기간: 2018.4.18.~10.25.
- 교육대상: 남북물류 전문가
- 참여인원: 300여 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장소/시간	내용	구성
토론회 (4/17)	민주평통 14:00~17:30	대주제: 개성공단 발전적 재개와 정상화 방안	개회사: 김영윤(남북물류포럼) 축사: 김덕룡(민주평통)
		개성공단 발전적 재개 방안	발표: 한명섭(통인법률사무소) 토론: 권태준(법무법인 공존) 토론: 김광길(전 개성공단)
간담회 (4/27)	퍼시픽호텔 7:00~9:00	개성공단 재개 후 정상화 방안	발표: 박천조(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토론: 신한용(개성공단기업협회) 토론: 임성택(법무법인 지평) 토론: 홍양호(전 통일부)
		금강산 관광과 남북관광협력: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발표: 심상진(경기대학교) 사회: 김영윤(남북물류포럼)

구분	장소/시간	내용	구성
			토론1: 이기중(경희대학교) 토론2: 박병직(한국관광공사)
간담회 (5/24)	퍼시픽호텔 7:00~9:00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의 의미와 추진과제	발표: 윤희로(남북경제협력 연구소) 사회: 김영윤(남북물류포럼)
간담회 (6/12)	퍼시픽호텔 7:00~9:00	남북관계 전망과 대북한 진출 지원전략	발표: 천해성(통일부) 사회: 김영윤(남북물류포럼)
간담회 (8/30)	퍼시픽호텔 7:00~9:00	2018년 8월의 평양: 평양순회 특파원 진천규 기자가 본 북녘의 생생한 삶의 현장	발표: 진천규(재미언론인) 사회: 김영윤(남북물류포럼)
간담회 (8/10)	주독 한국대사관 9:30~11:45	독일통일과 동유럽 국가 체제 전환: 평가와 시사점	사회: 김영윤(남북물류포럼)
		독일통일 29주년: 평가와 시사점	발표: 정범구(주 독일대사)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이 북한 변화에 주는 시사점	발표: 황승시(통일부 독일주재관)
간담회 (9/20)	퍼시픽호텔 7:00~9:00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비핵화: 확실한 미래인가 허망한 바람인가	발표: 이수혁(더불어민주당) 사회: 김영윤(남북물류포럼)
간담회 (10/25)	퍼시픽호텔 7:00~9:00	새로운 남북관계 속의 대북 경험: 인식과 방향	사회: 김영윤(남북물류포럼) 발표: 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 교육목적
 - <평화통일 시민강사>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강사가 서울시 초등학교 및 청소년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 실시
- 교육 기간: 2018년 5월~11월 1일
- 교육 대상: 초·중·고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대상
- 교육 인원: 1,050여 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찾아가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장소	내용	
찾아가는 평화 통일교육	신청단체	강연	평화통일교육 40회
		현장 탐방	평화감성기행 5회
		통일 부스	서울평화통일박람회, 강북마을축제, 광진구 통일 한마당

(라) (사)청소년통일문화: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 교육목적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수준별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 제고
- 교육 기간: 2018년도 2학기
- 교육 대상: 13개 학교 53개 학급
- 교육 인원: 1,670여 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선택유형	프로그램	내용
초등	통일시민	눈으로, 입으로, 몸으로 배우는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열기, 분단과 통일 이해하기, 북한 노래 들어보기 • 남북한 말 배워보기, 눈빛 텔레파시, 몸동작 텔레파시
	북한이해	북에서 온 친구 만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 북한 학생들의 생활 들여다보기 • 북에서 온 친구 순애(영상), 북한친구 내 옆자리로 초대하기, 북한 친구를 만났을 때를 위한 준비
	통일이해	달라서 좋은, 닮아서 좋은 통일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통일한국을 위한 우리의 역할 • 북한의 다양한 문화 이해하기, 짝꿍과 의견 나누기
중등	통일시민	갈등을 해결하는 작지만 확실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열기, 나의 갈등과 화해, 우리나라 그려보기, 분단 알아보기, 분단, 내 언어로 정리해보기 • 따로 또 같이 정리하기
	북한이해	통일 파트너 북한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열기: 스펙트럼 위의 북한 • 라선시장(영상), 북한 변화의 중심 시장과 외부정보 유입, 고려투어 홍보영상,
	통일이해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통일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후 생길 수 있는 어려움, 팀코리아 남북 단일팀 32일간의 특별한 여정(영상),

구분	선택유형	프로그램	내용
고등	통일시민	2018 북한은 지금 우리는 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열기: 내가 알던 북한은?, 북한, 시장을 만나다 • 몰래하는 여기생활, 북한의 변화
	북한이해	통일시민 챌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열기: 오늘의 통일 날씨는? • 생각열기: 우리나라 그려보기, 분단 알아보기, 남북통일이 되면 벌어지는 일(영상), 통일한국의 모습, 통일의 메이래(실천활동)
	통일이해	2038년 통일날씨 맑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통일한국을 위한 우리의 준비, 북한과 나의 거리, 우리 주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 사진 분석하기, 북한의 변화, 우리의 변화

-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 한 학교당 최대 5학급의 교육을 실시하며 추가 학습 신청시 강사비를 학교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

(마) 통일인성교육원: 희망 대한민국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 교육목적
 - 홍익정신과 홍익문화를 연구·계승·발전시켜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능력 향상시켜 통일의 당일성을 일깨워주고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평화통일 실현역량을 청소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
 -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통일시대 대비 평화통일 실현 역량 강화
- 교육 기간: 2018.5.3.~11.30.
- 교육 대상: 서울 초·중·고 학생
- 교육 인원: 2,93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내용		
교육활동	통일뉴스 만들기, 통일 OX 퀴즈, 북한이해하기, 북한에 편지쓰기 4행시 만들기(평화통일, 남북대화), 통일 역할극 만들어 발표하기		
교육대상	초등학교	7개 학교, 57개 학급	14개 학교 120개 학급 2,930명 학생
	중학교	6개 학교, 55개 학급	
	고등학교	1개 학교, 8개 학급	

(3) 캠프 및 기행 유형

2018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에서 진행된 사회통일교육 가운데 캠프 및 기행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1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청소년통일문화: 우리가족 통일캠프

- 교육목적
 -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분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탐방하고, 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고 논의할 기회 제공
- 교육 기간: 2018.8.18.~8.19.
- 교육 대상: 서울시 거주 중인 모든 가족 대상(10가족 내외)
- 교육 인원: 22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기간	대상	프로그램
우리가족 통일캠프	8/18~19	10가족	임진각, 도라산역, 도라산평화공원, 도라전망대, 제3땅굴 현장견학
			통일 보드게임, 통일그림 그리기, 라디오 방송 만들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4) 문화공연·행사 유형

2018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에서 진행된 사회통일교육 가운데 문화공연·행사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 유형의 각 단체별 프로그램은 6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평화로 통일로!

- 교육목적
 - 남북한 예술공연을 통한 평화통일 시민 교육
 - 통일강연, 남북한 예술공연, 통일퀴즈대회, 통일노래자랑,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한마당으로 구성된 ‘통일문화예술대축제’ 개최
- 교육 기간: 2018.10.12.~10.14.
- 교육 장소: 낙성대공원 강감찬 장군 광장
- 교육 대상: 서울시민
- 교육 인원: 500여 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기간	내용	참가자
통일문화예술 대축제	1일(10/12)	공연이 있는 통일교육	홍수환, 옥희, 이순실, 한송이
	2일(10/13)	제2회 서울통일예술제	신은하, 고정희, 평양꽃바다예술단
	3일(10/14)	통일퀴즈 및 노래자랑대회	20여개의 부스

(나) 극단 진동: 통일할아버지와 떠나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
‘동그라미 세상’

- 목적
 - 평화통일 유아 교육 공연 콘텐츠 제작 및 아이들 눈높이 맞춤 공연
 - 통일할아버지 문익환 선생 생가인 ‘통일의 집’ 탐방을 통한 평화 통일 체험 교육 및 공연 8회 실시
- 교육 기간: 2018.4.3.~11.30.
- 교육 대상: 어린이, 초중고학생, 일반시민
- 교육 인원: 350여 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차수	내용	참가자
통일의 집 탐방	상시	평화통일 체험 교육	350여 명
음악극	1차(10/29)	유아교육 음악공연 ‘동그라미 세상’	
	2차(10/31)		
	3차(11/2)		
	4차(11/5)		
	5차(11/7)		
	6차(11/12)		
	7차(11/14)		
	8차(11/16)		

- 생활 속의 다양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평화란 무엇인지를 유아 맞춤형 음악극으로 제작
- 생각과 성격이 다른 친구들과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행복한 통일임을 제안

(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효창원평화놀이터

- 교육목적
 - 역사 속의 친일을 청산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관련한 글과 영상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청년 육성
 - 효창원평화놀이터는 독립운동가 8인의 상징적 장소인 효창원과 시민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독립운동가 8인의 스토리를 녹여낸 게임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시민이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교육 기간: 2018.8.15.
- 교육 대상: 초등학교생 및 청소년과 서울시민 대상
- 교육 인원: 30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효창원 평화놀이터	의거체험	백정기 의거체험: 육삼정 의거 재현 방 탈출 게임
		안중근 의거체험: 이토 히로부미 닥트총 맞추기
		이봉창 의거체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던졌던 수류탄 재현 체험
		윤봉길 의거체험: 단상에 폭탄 모형 던져 담기
		김구 의거체험: 김구 선생의 행적 재현
	임시정부 체험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충칭으로 이동하던 시기 재현 보드게임
	퀴즈	한반도(바닥 인쇄물)를 가로질러 다니면서 3.8선을 넘을 때마다 퀴즈
역사해설	효창원 전시 및 역사해설	
OX퀴즈	퀴즈를 통해 학습한 내용 점검	

(라)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 청소년 토론연극
〈오버 더 라인〉⁵⁷⁾

- 교육목적
 -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토론연극을 제작하여 순회공연을 진행
 - 토론연극은 청소년이 자신과 우리의 삶이 통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하고 공감함으로써 통일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구성
- 교육 기간: 2018년 3~11월
- 교육 대상: 서울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 교육 인원: 80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내용
설문조사	대본작업을 위한 청소년, 성인 2,000명 대상 평화통일인식 사전 설문조사
대본작업	설문 데이터 토대 대본작업 및 공연제작
구성	퀴즈쇼: 평화 그리고 통일에 관한 조각상과 동영상, 관객참여 워밍업
	공연 〈오버 더 라인〉
	등장인물 인터뷰: 공연 후 관객과의 대화
	대안찾기: 등장인물 각자가 문제개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안적 행동은? 쪽지제안
	다시 공연으로: 관객, 배우 참여, 대안을 제안한 관객이 직접 행동 실천
	마무리: 설문지 작성, 진행되었던 내용을 다시 피드백해보고 설문지 작성
일상: 일상생활 속 실천 캠페인	
공연	서울시내 3개 시설 방문 순회공연 (금호고, 미성중, 남성중)

57) 본 프로그램은 문화컨텐츠를 생산했지만 공연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화공연·행사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마)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통일연극 할아버지 고향가기

- 교육목적
 - 통일의 필요성 및 남북교류의 중요성 인식 제고,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극 제작 및 상연
 -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연극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에 기여
 - 대중적 통일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고 싶은 대상으로 탈북민 인식 전환, 공감대 형성
- 교육 기간: 2018.6.2.~10.21.
- 교육 대상: 학생, 시민 등
- 교육 인원: 900명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연극	차수	일시	장소	참가인원
할아버지 고향가기	1차	10/18,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열림홀	176명
	2차	10/19, 오후 7시		178명
	3차	10/20, 오후 3시		181명
	4차	10/20, 오후 6시		179명
	5차	10/21, 오후 2시		181명

- 〈할아버지 고향가기〉 연극은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중 하나를 통해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남북한 문화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통일예행 연습 제공
- 연극은 연출, 기획, 작가, 감독의 논의를 통해 기획, 방송을 통해 언론 홍보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을 배경으로 주변의 남한주민과 함께 선입견을 극복하고 인식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통일이란 실향민과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상실된 고향으로 가는 길임을 논의하며 통일에 대해 성찰

(바) 통일양상블: 2018 시민참여 통일음악회 하모니아

- 행사목적
 - 통일의 염원과 평화 메시지 전달 및 예술적 소통을 진행하기 위한 소통공감 시민참여형 콘서트 개최
 - 통일양상블은 광복 70주년 기념 ‘아리랑 세계의 심장을 두드리다,’ 북아메리카-베트남-러시아 평화통일콘서트,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남북한 통일을 위한 콘서트’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음악적 소통을 시도
- 행사 기간: 2018.10.10.
- 참여 대상: 신히민, 북한이탈주민, 참전용사 등 서울시민 300여 명
- 행사 장소: 서울 자양동 نار우아트센터
- 행사 내용 및 프로그램

무대	아리랑연곡, 말뚝소리	편곡: 윤은화, 연주: 통일양상블
1부	평화와 화합의 노래로 하르모니아	작곡: 박경훈
	새로 그린 아리랑	작곡: 박경훈, 노래: 이용원
	화해	작가: 김면지, 작곡: 박경훈 노래: 최형석, 견두리
	Sound of Peace	작곡: 박경훈 연주: 챔버오케스트라&이용원& 통일양상블
2부	모두 함께 통일로	
	꿈꾸는 자의 풍경, 검은 눈물, 사랑꽃	작곡: 김대성
	대금 협주곡 “풀꽃”	작곡: 김대성, 대금: 류근화
	피아노 협주곡 “한민족 기상곡”	작곡: 김대성, 피아노: 이하나
	김순남 가곡에 의한 관현악 모음곡: 초혼, 탕자, 상렬, 산유화	편곡: 김대성
	가야금과 관현악을 위한 “하나의 꿈”	작곡: 김대성, 가야금: 성보나

- ‘하모니아’는 한국의 전통대금, 소금, 태평소 등을 연주하는 남한의 연주자들과 북한의 개량 대금, 소금, 통소, 해금, 얼후 등을 연주하는 탈북연주자가 모여 남한의 전통악기와 북한의

- 개량악기 그리고 서양악기의 조화를 통해 동서양의 다양한 음악장르를 넘나들며 역동적인 음악을 시도
- 행사에는 실향민, 북한이탈주민, 참전용사를 비롯한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이 모여 남북의 전통악기, 개량 국악기, 서양 오케스트라 하모니를 통해 화합의 음악 공유

(5) 콘텐츠 개발 유형

2018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에서 진행된 사회통일교육 가운데 콘텐츠 개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4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어린이어깨동무: 시민을 위한 평화상상 교육콘텐츠 개발

- 개발 목적
 - 평화통일 교육 모듈 구성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남북관계 역사 콘텐츠 개발, 분쟁지역 평화교육으로서 평화통일 교육 학술 콘텐츠 개발
- 개발 기간: 2018.5.3.~11.30.
- 교육 대상: 서울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 교육 인원: 3,100명
- 콘텐츠 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내용
연구	정기적 연구모임 16회
개발	워크북, 교구, 영상 5종 개발
설문	교육 의견 수렴
수정	수정보완
배포	100개 학급 배포
심포지엄	1회
워크숍	1회

(나)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맞춤형 통일교육 교안 연구·제작⁵⁸⁾

- 개발 목적
 - 판문점 선언으로 급격히 높아진 평화통일 의식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교안 연구
- 개발 기간: 2018.7.~11.30.
- 개발 대상: 평화통일 시민 강사
- 콘텐츠 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일정	내용	콘텐츠
맞춤형 통일 교육 교안	4/10	심화강연 1	평양 여행 계획짜기, 판문점 선언 이해, 분단에서 통일로! 보드게임, 평화감성기행 해설 대본, 평화통일 교육 안내책자 제작
	4/17	심화강연 2	
	5/3	토론회	
	5/10	심화강연 3	

- 새로운 평화 정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세미나와 토론회의를 거쳐 참신한 교육방법과 내용을 구성, 새롭게 제작된 교안을 정리하여 안내책자 제작

(다)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탈분단 평화학교 콘텐츠 연구개발

- 개발 목적
 - 분단이 개인의 일상과 사회 속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관찰하고 각자가 분단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고, 분단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지 성찰함으로써 분단극복의 방법 모색
- 콘텐츠 내용 및 프로그램

구분	목표	키워드	내용
도입	안전한 배움의 공동체 만들기	뭐든지 괜찮아	모두의 존재가 환영받는 시공간
	낯설게 하기	달라도 괜찮아	다른 것이 당연한

58)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시민강사양성사업 프로그램과 연결된 프로그램이나 별도의 강의안을 책자로 제작하였으므로 별도로 분류하였다.

구분	목표	키워드	내용
		낮설어도 괜찮아	낮선 순간에서 자신의 느낌을 발견해주기
		내 안의 보석	각자의 내면에 침잠한 경험과 지식
		보이지 않는 실 찾기	분단과 나/남한과 북한/한반도와 세계
본문	주제토론과 갈등 분석	주제토론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통일과 분단
		대화	민주적 토론/다름을 존중하는 소통 평화감수성에 기반한 대화
		갈등분석	남북관계의 역동을 섬세하고 비판적으로 분석, 갈등조정/전환
		역할과 책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대안모색
결론	돌아보기	대화를 되돌아보기	나누었던 대화/참여한 소감 참여의 중요성과 의미

- 분단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의 삶의 태도와 양식, 사회의 구조와 체제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했을 때, 탈분단을 배움의 공간 안에서 다룰 것을 시도

(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청년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 매뉴얼

- 개발 목적
 - 2030 청년세대를 위한 평화적 관점의 의사소통형/체험형 통일교육 매뉴얼 제작
 - 분단이 개인의 일상과 사회 속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들어와 있는지 관찰하고 각자가 분단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고, 분단구조를 지탱하고 있는지 성찰함으로써 분단 극복의 방법 모색

구분	일정	내용	강사
개발과정	전문가초청회(4/24)	주제: 2030세대의 통일의식의 변화와 통일교육 방안 모색	박주해(통일연구원)
	의견수렴회의(4/28) 장소: 여성미래센터	주제: 2030 청년세대 의견수렴회의, 청년 5명 참여	
	전문가초청회(6/13) 장소: 여성미래센터	주제: 서울의 공공 기억공간, 평화통일 관점의 스토리텔링	전영선(건국대학교)

구분	일정	내용	강사
	시연 공지(9/4)	개발한 매뉴얼에 대한 시연 안내	
	의사소통형 시연(10/3) 장소: 여성미래센터	청년 10명 참여, 토론과 공유	
	체험형 시연(10/6) 장소: 전쟁기념관	주제: 서울 기억의 공간의 재구성 청년 10명 참여, 토론과 공유	
	의사소통형시연 (10/15) 장소: 여성미래센터	청년 10명 참여, 토론과 공유	

- 콘텐츠 내용 및 프로그램
 - 매뉴얼은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일상적 관심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구성됨.
 - 시연에 10명의 청년을 참여하게 하여 시민단체의 일방적 의견이나 주의 주장 전달이 아닌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토론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매뉴얼을 검토
 - 청년들은 주제와 활동의 연관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

3.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가. 평화교육의 특징

이 연구에서 평화교육 실태는 평화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단체들 중 7개 단체의 사례를 각 주제별 대표로 삼아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평화교육의 대표적인 특징은 시민사회 주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지원이 법제화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일교육영역과 달리 평화교육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시민사회 주도

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으며 평화교육 단체들은 각자의 주제와 필요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개별적 협업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특성상, 연례보고서 형태로 정리된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개별단체와의 직접접촉 및 온라인 또는 문헌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광의의 개념으로 평화를 해석할 경우와 소극적으로 평화개념을 해석할 경우에 평화교육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의 범주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연계된 평화교육 및 국내 거버넌스 차원의 사례가 만들어진 평화교육 주제를 중심으로 사례 선정을 제한하였다. 앞서 유형별로 살펴본 평화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토대로 평화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 주체

본 연구에서 살펴본 평화교육 운영 단체들의 설립년도 및 주요활동 키워드는 다음 <표 III-6>과 같다.

<표 III-6> 평화교육 수행 단체 설립년도 및 주요활동

	단체명	설립년도	단체 주요 활동 키워드
1	한국YWCA	1922	정의, 평화, 청년, 여성, 기독교 운동
2	어린이어깨동무	1996	북한아동지원, 평화교육, 시민참여 평화활동
3	평화를만드는여성회	1997	평화만들기, 통일만들기, 여성참여, 여성연대
4	한국평화교육훈련원	2006	회복적 정의, 회복적 생활, 평화, 공동체
5	한국DMZ평화생명동산	2008	생명, 평화, 비무장지대(DMZ), 바람직한 발전
6	사단법인 조각보	2011	동북아 코리안 여성, 평화, 상호이해평화교육
7	피스모모	2012	서로 배움, 실천적 사유, 탈분단, 군비축소

본 연구의 사례로 포함된 평화교육 단체들은 주로 1996년부터 2012년 사이 설립되었으며, 한국 YWCA가 예외적으로 1922년에 설

립되어 곧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다. 그 이후 평화교육을 표방하며 설립된 단체는 1996년 시작된 어린이어깨동무로, 대북지원활동과 평화교육을 동시에 추진해오고 있다. 이어 1997년 설립된 평화를 만드는여성회는 평화운동에서 여성의 역할과 참여에 집중하여 활동해오고 있다. 그 이후 10년의 시간차를 두고 2006년에 한국평화훈련원, 2008년에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5년의 시간차를 두고 2011년에 사단법인 조각보, 2012년에 피스모모가 설립되었다.

통일교육이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한 국고지원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평화교육은 전적으로 시민사회 주도로 시작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개별단체들의 정부 간 협업 역시 단체의 활동 주제에 따라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실행되어왔다. 이는 평화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재원의 다양성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조사한 사례들 중 일부 프로그램들은 협력기관 또는 지원기관을 명시하고 있어 중앙정부와의 협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운영된 사례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평화교육 민간단체의 프로그램들은 자생적인 재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반에 정부기관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교육에 대한 연구와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비교연구 등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 현재까지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는 경기도교육청이 2011년에 평화교육현장을 선포하고 평화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도입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며, 2018년부터는 통일부와 교육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을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2) 프로그램 유형 및 교육방법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평화교육 사례들을 정리한 결과, 연속강좌형의 경우 2017년 이전부터 운영되어 온 연례 프로그램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는 사례들과 2019년 새롭게 시작된 프로그램들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평화교육훈련원과 피스모모는 연속강좌형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교육 교육자들을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만나오고 있다. 이러한 교육자 양성 교육과정은 동 단체들의 상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진행자 풀을 구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경우, 2019년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평화, 안보와 성평등한 한반도 이니셔티브 구상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였다.

강연·세미나·포럼형 프로그램 역시 2017년 이전부터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들과 특정 이슈 및 상황에 따라 새롭게 기획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 된다. 어린이어깨동무는 2016년부터 “평화교육 심포지엄”을 연례프로그램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피스모모는 2017년부터 “전쟁의 북소리에 춤추지 않는 교육”이라는 연례 포럼을, 한국 YWCA는 2017년부터 “길 위의 평화포럼”을 운영해오고 있다. 피스모모의 경우,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통일부와의 협업 속에서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슈와 4.27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하는 “2030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사단법인 조각보는 2019년 “피스테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여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코리안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캠프·기행형은 대부분 정례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사례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의 경우 설립 이후부터 DMZ생태

체험교육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YWCA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민족여성과 함께하는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운영하고 있다. 피스모모의 경우, 2015년부터 매해 7~8월 “청소년 집시워크(GYPCI Week)”라는 이름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군산 평화바람, 평택평화센터, 강정평화학교 등과 함께 “아시아 평화교육 워크숍”의 사무국 단체로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의 평화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비전을 만들어가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어깨동무의 경우, 평화교육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기행이 결합된 워크숍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문화행사·공연형의 경우,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2019년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시작한 “수요영화제”와 피스모모가 2019년 3월부터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는 “살롱 드 모모” 계절프로그램이 있다. “수요영화제”의 경우 북한 여성들의 삶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을 함께 보고 가족, 노동, 농업 등의 주제로 북한 여성의 삶에 대한 강의를 연계해 북한 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살롱 드 모모”의 경우에는 영화 “강철비”를 만든 양우석감독과 소설 “세 여자”의 조선희 작가 등 한반도 상황과 연계되어 만들어진 작품들에 대해 참가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2019년에 새롭게 시작되었다.

콘텐츠 개발형 프로그램의 경우, 연중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거나 특정 계기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2000년부터 꾸준히 분단의 상황과 평화를 연결지을 수 있는 교육자료를 연구개발해 오고 있다. 피스모모는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시작으로 “배움의 공간에서 4.16을 기억한다는 것”이라는 이름의 교육안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주제를

다양화하여 난민, 군축, 탈분단을 주제로 하는 교육기획안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2018년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 교육 매뉴얼을 연구·개발하였는데, 해당 매뉴얼은 여성·평화·안보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교육의뢰를 받아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단체가 직접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피스모모, 어린이어깨동무와 같이 각급 학교를 포함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의 소규모 그룹의 교육의뢰에 따라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와 한국DMZ평화생명동산처럼 자체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어깨동무에서는 학교교육과 더불어 피스 리더 프로그램이라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회원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과 협조하여 교사 대상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많은 상시프로그램 교육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곳으로는 초·중·고등학교를 들 수 있는데, 각각의 단체들은 교육기관의 꾸준한 교육요청에 따라 연중 상시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교육 방향성, 교육내용 및 대상

평화교육을 주제로 활동하는 평화교육 단체들 안에서도 단체의 주안점에 따라 평화교육의 방향성은 균일하지 않다. 통일에 방점을 두는 평화교육 단체와 탈분단에 방점을 두는 평화교육 단체, 일상적 차원에서 개인과 공동체 내 관계 중심의 평화교육에 방점을 두는 단체와 개인의 정치성과 국제정치를 연계하는 데 방점을 두는 단체 등 평화라는 광의 개념 안에서 다양한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인권, 젠더, 민주시민, 세계시

민, 생태, 환경 등의 주제들과 만나 더 다채로워진다. 이런 이유로 평화교육의 정체성을 모호하거나 난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존재하나, ‘평화’라는 가치의 속성은 매우 포괄적이고 복합적이고, 평화교육은 단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므로 평화교육에서 포괄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역시 평화라는 주제에 접근해가는 진입 지점과 방법론이 단체별로 조금씩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여성, 평화, 안보와 성평등한 한반도 이니셔티브 구상 프로젝트’처럼 평화라는 주제와의 연계 속에서 여성의 참여 및 유엔 결의안 1325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한국DMZ평화생명동산처럼 환경과 생태를 중심으로 평화에 대해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는 한편, 피스모모의 모모 평화대학처럼 평화라는 광의의 개념을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속에서 접목시켜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평화교육의 범위 역시 학교교육의 주제로 평화를 다루는 것에서부터 학교교육의 과정을 평화적인 만드는 것,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 및 실행에 평화의 가치를 반영하고 그 결과로 평화를 증진하는 것까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 등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1년에 평화교육현장 선포를 기점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교교육과정에서 평화교육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평화교육정책으로 자리잡은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비폭력 대화, 회복적 서클 등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대대적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회복적 정의라는 거시담론을 생활교육의 차원에서 개인 간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냈다는 데 있다. 동시에 정치적으로 간주되는

평화교육의 다른 주제들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반전, 반군사주의, 군비축소 등의 주제와 젠더와 성평등 같은 평화교육의 주제들이 ‘정치성’을 이유로 여전히 교육내용으로 채택되기 어려운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평화교육이 다루는 주제의 층위 역시 개인 간(interpersonal)의 관계에서부터 집단 간(intergroup)관계, 국가 간(international)관계까지 두루 포함하는 형태로, 매우 다층적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개인과 개인 간의 비폭력적인 대화를 시작으로 그룹 내 비폭력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정을 다루며, 회복적 정의를 통해 공동체 내의 포괄적인 의사소통을 다루고 있다. 여성주의 및 젠더관점의 평화교육의 경우, 여성의 관점에서 남성 중심으로 쓰여진 역사를 재조명하며 여성의 목소리로 통일과 평화에 대한 서사를 쌓아나가고 있다. 이는 여성이라는 개인들의 목소리이자 사회적으로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사단법인 조각보의 상호이해평화교육은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직접 참여를 중심으로 새로운 평화교육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평화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그룹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넓게 열려있는 가운데, 어린이어깨동무의 피스리더 프로그램이나 피스모모의 집시위크처럼 특정 연령대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그룹을 세분화하여 개별 집단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여성주도의 여성참여프로그램들, 사단법인 조각보의 한민족디아스포라 여성들을 주 참여자이자 진행자로 하는 사단법인 조각보의 교육 프로그램 등 개별 단체의 활동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 그룹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화교육 프로그램들을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민족담론 중심의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내용적 강조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국제사회와 동북아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조망하고 평화의 관점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시민들과의 연대 속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들은 반공·안보·나라사랑교육의 흐름 속에서 정부주도 교육과정이 민주시민성 형성을 어떻게 방해하였는지를 탈군사주의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적극적 관점의 평화에 대한 이해를 교육에 반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사례처럼, 일상영역부터 전쟁의 문제까지 두루 다루는 다양한 평화교육의 주제들은 정부주도의 교육과정과 만났을 때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국가안보와 군사안보, 군비축소 및 군사주의의 문제는 명시적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하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이라는 정책 방향이 ‘교육’ 분야에도 충분히 적용되고 있는지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드러낸다.

그 외에 특징적인 것을 언급하자면, 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평화교육 분야의 성평등 논의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논의될 뿐 다양한 정체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들의 사회 참여와 권리에 대한 논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주의 관점에서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민성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콘텐츠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과 청년,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장애와 비장애의 문제 등 다양한 삶의 배경과 맥락을 가진 참여자들에 대한 존중에 근거한 더욱 포용적인 평화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이 평화교육 주체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주도성이 낮은 평화교육 분야에서 더욱 다양하고 포괄적인 평화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평화 담론을 성숙시키는 데 있어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통일교육의 특징

이 연구에서는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와 서울시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에 참가한 단체 총 42개 단체를 중심으로 2018년 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살펴보았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몇 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프로그램 개수를 논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파악한 프로그램의 수는 61개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들에 나타난 사회통일교육의 특징을 교육 주체, 교육 프로그램 유형 및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대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교육 주체

이 연구에서 살펴본 통일교육 실시 단체의 설립연도 및 단체 주요 활동 키워드는 다음 <표 III-7>과 같다.

〈표 III-7〉 통일교육 수행 단체 설립년도 및 주요활동59)

단체명	통교협	서울시	설립 년도	단체 주요활동 키워드
1 한국걸스카우트연맹	○		1946	걸스카우트 운동 총괄, 북한이해교육, 지도자연수, 지역탐방, 특강
2 인종근의사기념사업회		○	1979	인종근의사 추모사업 및 동양평화정신 계승사업
3 평화문제연구소	○		1983	통일한국, 통일문제연구 발간, 학술활동, 통일교육, 남북&국제협력
4 한국가족문화원	○		1984	민주적 가족교육, 남녀평등교육, 북한여성 연구, 탈북여성 교육
5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		1987	통일준비국민위원, 지역방문 순회강연, 임진각 기행, 국제심포지엄
6 국학원	○	○	1988	평화통일기원, 해외동포, 다문화, 문화소통, 전통문화, 국경일
7 세종고하나민조국울어한모임	○	○	1988	탈북민적응지원센터, 의료상담실, 클센터, 통일연구
8 동학민족통일회	○		1991	동학통일학교, 통일기행, 통일강연, 북한어린이동기사업, 평화포럼
9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		1991	시민포럼, 연구출판, 국제학술, 정책간담회
10 임주시민연대	○		1991	예산감사, 민족공동행사, 시민학교, 아카데미, 남북 민간교류 토론
11 세계평화여성연합	○		1992	여성교육, 봉사, 남북화해, 통일교육, 통일기행, 통일포럼
12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		1994	세계평화, 봉사, 청소년 순결교육, 남북통일운동
13 한겨레통일문화재단	○		1995	평화경제아카데미, 남북경협 아카데미, 해외 현장연수
14 어린이어깨동무	○	○	1996	대북지원, 학교방문 평화교육, 평화캠프, 워크북, 심포지엄

59) 각 단체 홈페이지 참조.

	단체명	통교협	서울시	설립 년도	단체 주요활동 키워드
1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1996	6개 종단, 시민단체 참여, 대복지원, 포럼, 기행
16	한국통일진흥원	○		1997	국방정책연구, 안보교육, 장학금, 안보 학술지 발간, 안보현장견학
17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	○	1997	시민통일교육, 아카데미, 포럼, 토론회, 청년위원회, 페스티벌, 기행
18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		○	1997	토론연구, 소수자 주제 연극(청소년,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등)
19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		1999	대북 어린이의료지원, 북한의료연구, 심포지엄, 토론회, 강연
20	대한불교조계종 민추본	○		2000	대복지원, 통일정책토론회, 평화통일교육, 통일문화사업
21	통일민주협의회	○		2000	통일운동, 강연회, 학술회의
22	(사)겨레하니되기운동연합		○	2000	통일교육, 통일공연, 통일행사, 겨레통일연구원, 평양꽃바다예술단
23	(사)우리겨레하니되기운동본부		○	2003	북한 인도적지원, 남북교류협력, 민간교류, 정책조사연구, 통일교육
24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	○		2004	통일박람회, 학생용 통일노트 제작배포, 통일진시장, 탈북교사강연
25	(사)남북물류포럼		○	2004	남북물류 정보 제공, 포럼, 학술연구, 통일·북한교육, 물류탐방 연구
26	교육복지연구원	○		2005	평생교육, 사회복지연구, 프로그램 개발, 통일준비
27	남북문화교류협회	○		2005	통일정책강연회, 북한이탈주민, 안보견학, 안보연수, 북한방문
28	새로운코리아구상위원회연구원	○		2005	정치, 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연구, 평화통일학교
29	아해열린교육센터		○	2005	방과후공부방운영, 취약계층 멘토링지원사업, 지역이동센터수업지원
30	나이스피플	○		2006	북한 조선중앙연구소, 평양의학대학, 영유아·긴급구조 지원
31	평화한국	○		2006	기독교, 북한현대사 연구, 토론회, 세미나, 토론회

	단체명	통교협	서울시	설립 년도	단체 주요활동 키워드
32	통일교육개발연구원	○		2007	어린이대상 통일교육
33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	2008	평화통일교육 연구모임,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 사회갈등 분석
34	(사)한반도평화포럼		○	2009	남북화해 평화통일 학술연구, 통일교육
35	남북장애인가교류협회	○		2011	북한 장애인 현실 홍보, 탈북장애인 교류, 전통문화체험
36	선진통일건축연합	○		2011	청소년 통일교육, 모금전시회, 세미나, 워크숍, 토크쇼
37	(사)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	2013	평화교육, 평화교육 지도자양성, 교재개발, 네트워크 구축
38	극단 진동		○	2013	청소년 전문연극단, 연극공연, 연극교육, 청소년국제교류
39	통일양상블		○	2015	남한전통악기, 북한개량악기, 서양악기, 앙상블 음악연주
40	통일경제포럼		○	2016	통일강연, 캠프, 아카데미, 세미나, 강사양성, 통일익시조사
41	(사)청소년통일문화		○	2017	찾아가는 통일공감교육, 통일리더스쿨, 강사양성
42	통일인성교육원		○	2017	통일인성회복운동, 평화통일교육, 통일교육 교재, 캠프, 정책개발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 중 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체는 모두 2012년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통일교육협의회 자체가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결성된 조직이고, 이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 단체의 통일교육 활동은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진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전문성 면에서 편차가 존재하는데, 매년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주로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가하면, 전문적이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들도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에 참가한 단체 중 절반 정도는 북한 및 통일, 통일교육 관련 단체이지만, 절반 정도는 기존에 통일교육 활동을 주된 영역으로 하지 않았던 교육, 문화, 역사 관련 단체이다. 20~30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몇몇 단체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6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공모사업이 통일교육과 큰 관련성이 없었던 몇몇 시민단체들의 참가를 견인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평화·통일교육의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참가 단체들 간에 전문성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프로그램 성과의 공유 및 공동평가를 통해 단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실시된 프로그램은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기관의 프로그램에 비해 교육 방향성 및 내용 측면에서 평화지향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각 단체가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라는 서울시 공모사업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각각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평화·통일교육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교육협의회와 서울시 공모사업에 모두 참여한 단체 중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년 매우 활발한 통일교육 및 평화교육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의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내용이나 방법 측면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2) 프로그램 유형 및 교육방법

통일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빈도를 정리하면 <표 III-8>과 같다. 2013년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기관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별 분류는 선행연구⁶⁰⁾를 참조하였다.

<표 III-8> 2013년과 2018년 통일교육 프로그램 유형 비교

연도	소속단체	연속강좌	강연세미나포럼	캠프·기행	문화공연행사	콘텐츠개발	계
2013	통교협	10(14.5%)	27(39.1%)	25(36.2%)	7(10.1%)	0(0%)	69
	통교협	3(7.9%)	16(42.1%)	15(39.5%)	4(10.5%)	0(0%)	38
2018	서울시	6(27.3%)	5(22.7%)	1(4.5%)	6(27.3%)	4(18.2%)	22
	계	9(15.0%)	21(35.0%)	16(26.7%)	10(16.7%)	4(6.7%)	60

2018년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별 빈도를 살펴보면,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의 프로그램이 여전히 주를 이루었고, 캠프·기행형도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콘텐츠개발 유형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중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기관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의 경우, 2013년과 비교할 때 전체 프로그램 개수는 절반 가까이로 감소하였고, 그 중 40% 이상이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으로 진행되었다. 캠프·기행유형도 40%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데 비해, 연속강좌 형태는 대폭 감소하였고, 콘텐츠개발 유형의 프로그램은 실시되지

60) 조정아 외,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 p. 124.

않았다. 강연회·세미나·포럼 등 일회적인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것은 매년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 전문성이 심화되거나 성과가 쌓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일부 단체에서는 소통의 일방성이라는 강연회 방식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북콘서트 등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다.

연속강좌 유형은 동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기 때문에 참가자들간의 소통이 활성화되고, 참가자들을 후속 교육이나 실천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8년에 실시된 통일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연속강좌를 통해 통일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연속강좌를 통해 통일교육과 관련된 이론적 학습을 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통일교육 강의 실습을 해보는 방식으로 강사 양성을 진행하였다. 또한,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여러 유형을 결합하여 학습자들의 참여도와 흥미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캠프나 기행을 연속강좌의 마무리 형식으로 구성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홍사단에서는 2017년에 연속강좌 유형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통일교육 강사로 양성된 사람들을 2018년에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 및 진행자로 활용하기도 하였다.⁶¹⁾ 이는 통일교육협의회나 서울시 공모사업의 예산지원이 1년

61) 홍사단의 교육담당자는 2017년에 실시된 연속강좌 유형 프로그램의 성과를 2018년에 프로그램에서 활용하여 발전시킨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017년에는 평화통일교육 지도자를 양성했어요. 2018년에는 마을로 들어가서 풀뿌리평화통일교육을 하면 좋겠다. 이 분들이 마을공동체에서 활동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했어요. 지역에 찾아가서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쉬운 프로그램이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올 수 있어요. 지역을 선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들과 연계를 해서 진행을 했어요. 지역 안에 지속적으로 만나서 토론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지역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함께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했어요.” 자문회의 녹취록 (통일연구원, 2019.7.31, pp. 2~3.).

단위로 이루어지는 제약 속에서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통일교육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캠프·기행 형태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에서는 DMZ, 오두산전망대, 임진각, 제3땅굴과 같은 분단 현장에 국한되었던 장소가 부분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통일경제포럼의 기행은 적군묘지 등 기존의 안보교육에서는 방문하지 않았던 장소를 방문하여 6.25 전쟁의 역사를 평화의 관점에서 돌아보거나, 주로 반공안보교육 현장으로 활용되었던 DMZ를 남북간 경제협력과 평화의 공간으로 재해석하였다. 통일경제포럼의 프로그램은 교육방법 측면에서도 주목할만하다.⁶²⁾ 통일경제포럼의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며 전체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한다. 2018년에는 24명의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그 중 참가율 90%이상인 19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그리고 이들이 2019년 프로그램의 운영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각자

62) 이 단체의 교육담당자는 통일경제포럼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대로 구성된 학생을 모집해서 운영을 했어요. 전문가 연속강연 전에 먼저 스터디를 따로 꾸려서 공부해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투표해서 그걸 각자 공부해서 발표를 하고 그 주제에 필요한 연속강좌 전문가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기행도 학생들이 먼저 장소를 선정하고 함께 간 강사가 보충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요. 저희는 통일경제포럼이니까 통일과 평화 그리고 경제를 결합해요. 파주 LCD단지는 독일도 그러했듯이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단다.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DMZ 근처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 구성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지지할 것이라는 맥락에서 공부하고 기행을 갔어요. 적군묘지를 갔을 때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 것도 없다는 그 자체가 충격인 거예요. 관광지가 아니니까요. 도라산역에서는 경의선 철도와 유령횡단철도가 연결되면 물류가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생각하는 거죠. 어디를 갈 것인지 기획단계에서부터 학생이 직접 참여를 해요. 사전자료도 서로 공유하고, 다른 통일교육 강연에 가면 연령대가 확 높아지지만 여기는 20대를끼리만 있으니까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잖아요. 중간에 세미나도 하거든요. 각자의 전공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 친구는 철원성터에 자기가 개발한 로봇으로 성터를 발굴하는 걸 아이디어로 계획서를 썼어요. 통일 관련 사회적 기업을 구상하기도 하고, 청년이 취업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으니까 통일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통일을 나의 먹고사는 일에 도움이 되는 걸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자문회의 녹취록(통일연구원, 2019.7.31, pp. 13~17.).

통일경제포럼에서 공부한 내용을 전공수업 시간에 발표하기도 하고, 각자의 전공을 반영한 기획안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이 자신의 일상이나 학습활동과 연결되는 구조이다. 기행 프로그램의 경우도, 다른 누군가가 기획한 곳에 일회적으로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주제와 목적을 고려해서 참가자 스스로 기행지를 결정하고, 그 장소에 관한 학습자료를 발굴하고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전학습을 진행한다. 기행 이후에는 그 과정을 영상자료로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 관심 있는 다른 시민단체나 일반인들과 공유한다.

한편, 일부 캠프·기행 형태의 체험학습은 극기체험이나 수련의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통일 역군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몇몇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안보교육과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문화공연·행사 유형의 프로그램으로는 글짓기 대회나 발표대회, 토크콘서트, 영화제, 문화제와 같은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가한 단체의 프로그램 중 문화공연·행사 유형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서울시가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을 실시하면서 2018년부터 통일교육의 다양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공모사업 유형을 시민교육형 사업과 콘텐츠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콘텐츠형 사업에 포함시켜 선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의 경우에는 주로 백일장, 경연대회 등의 형식이, 서울시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연극, 음악회 등 문화공연 형식이 주를 이루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가한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는 다른 분야에서 실시해왔던 ‘토론연극’을 통일교육 분야에 적용하는 시도를 하였다. 토론연극에서 연극의 내용은 완성된 채로 공연되는 것

이 아니라, 관객이자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이러한 방식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를 일방적으로 교육내용을 전달받는 대상의 위치에서 평화와 통일에 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 소통하는 참여자의 위치로 전변시킨다.

콘텐츠 개발 유형의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모사업 참가 단체에서 실시되었다. 콘텐츠 개발 유형의 통일교육을 실시한 네 단체 중 세 단체는 한반도문제와 관련된 평화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해왔던 기관으로, 그간의 평화교육 경험을 통일교육에 접목하여 각기 특색있는 평화·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일부 단체에서는 개발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와 SNS 카드뉴스 형식으로 공유하면서 콘텐츠를 확산하기도 하였으나, 타기관으로의 프로그램 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다.

(3) 교육 방향성, 교육내용 및 교육 대상

이 연구에서 검토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시민단체나 사회교육기관이 주체가 되어 시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통일부 등의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실시되었다. 분석 대상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실시된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기는 하였지만, 그밖의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외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단체 자체 사업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통일교육의 내용적 특성상 학습자가 교육비를 지불하고 교육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내용은 교육주체뿐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정책 방향성에 좌우된다. 통일부와 서울시가 요구하는 통일교육의 방향성은 한편으로는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기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된 대북·통일정책에 기반한다. 현 정부 들어 시민단체의 통일교육에서 ‘평화’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통일교육의 예산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방향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각 단체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상세히 살펴보면 서로 충돌하는 방향성과 내용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공모 안내문에 평화 지향적 방향성의 명시한 서울시 공모 프로그램의 경우, 평화와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다수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들여다보면, 평화와 통일을 다루는 관점은 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흥사단이나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한반도평화포럼 등은 좀더 직접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고, 통일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비해, 피스모모,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어린이어깨동무 등 평화교육 기반의 단체들은 평화를 중심으로 한반도와 분단문제를 다루고 있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다소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평화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북한문화 이해와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체들도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산하 단체들의 프로그램 목표로는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 제고, 평화통일의 중요성 인식 확산,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통일주역이라는 사명감 고취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통일교육지원법 2조의 통일교육 정의 조항과 통일부에서 제시한 통일교육의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IV장에서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통일교육원에서는 2018년에 기존의 『통일교육지침서』를 대신하는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세 가지 목표에 더하여 ‘평화의식 함양’,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통일교육의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협의회 산하 단체의 2018년 교육 프로그램 중 많은 부분이 ‘평화통일 실현의지 함양’이

나 ‘안보의식 제고’와 같은 기존 통일교육 목표를 표방하고 있을 뿐, 새롭게 추가된 평화나 민주시민의식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았다. 평화와 안보의 균형 면에서 일부 프로그램의 교육 방향성과 내용은 안보 쪽으로 치우쳐있는 경우도 있었다. 몇몇 단체들의 경우 국가관 확립, 정신력 강화, 애국심 고취 등 이전 정부에서 통일교육의 동의어로 여겨졌던 ‘나라사랑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준다.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평화교육의 방향성과 교육내용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특성과 역사를 반영하여 상당히 폭넓고 다양하게 구성돼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학습자의 관심과 성장을 중심에 놓는 ‘교육’이라는 의미보다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홍보수단이라는 의미를 통일교육에 부여해왔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이 자체의 재정구조에 기반해서 진행되기보다는 통일교육지원법에 기반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교육 대상 측면에서는 크게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특별한 구분 없이 성인 전체를 교육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여성, 20대 청년 등 대상을 특정한 프로그램도 간혹 있다.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지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중 일부는 학교현장에 강사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파견

교육 형태의 교육을 실시한 단체 중에는 평화교육이나 통일교육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교육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있지만, 연속강좌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육 참가자가 교육 수료 후 바로 파견교육 형식으로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있다. 보고된 교육대상자수로 추정하면,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교실 단위가 아니라 대규모 강연 형태로 교육이 실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외부 교육전문가에 의해 실시될 경우 장점이 있지만, 학교 현장이나 교육내용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강사나 운영자가 교육을 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IV.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과 쟁점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은 분단의 역사 속에서 분단과 남북 간의 대립, 분단으로 인한 폭력과 비평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점을 형성하고 공동의 영역을 만들어왔다. 특히 최근 들어, 평화교육 진영에서는 분단폭력을 한반도 비평화의 근본적인 문제로 보는 탈분단 평화교육의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통일교육 진영에서는 기존의 안보교육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평화 관점의 통일교육으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 공히 ‘평화’와 ‘분단’과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간에는, 아니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내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두고 다양한 입장의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앞 장에서 살펴본 각 단체의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 장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평화·통일교육’이라는 명칭으로 표방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결합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교육적 쟁점이 무엇인지 분석한다.⁶³⁾

1. 평화·통일교육: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전환?

가.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통일교육에서 ‘평화’의 키워드가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2000년 대 이후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치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속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성은 체제우위적 접근에서 평화공존적 접근

63) 이 장은 필자의 2019년 학술회의 발표문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과 새로운 접근: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결합을 중심으로”의 일부분을 앞 장의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실태를 바탕으로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으로 선회하였다. 과거의 통일교육이 ‘반공’과 ‘안보’를 중심으로 하여 일관된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전개되었다면, 2000년대 이후 통일교육은 안보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탈분단교육, 다문화이해·갈등해결교육, 북한이해교육 등 목적과 내용 면에서 다양하고 때로는 상이한 부분들로 구성되었다.⁶⁴⁾ 통일교육에서 ‘평화’의 문제의식 접목은 통일에 대한 시각 전환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것은 통일을 남북한의 정치체제, 사회체제가 단일화되는 것, 일순간의 정치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넘어서는 것이다. 즉,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 진전의 ‘과정’ 자체를 통일로 가는 장기적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통일이 제도보다는 사람의 통합이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볼 때, 통일교육의 중심적인 주제는 남과 북의 정체성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평화와 화해를 바탕으로 하는 이질적인 요소의 공존이 된다.⁶⁵⁾ 통일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것보다는 남북 간의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중심에 두며, 교육자 중심이기보다는 교육의 수요자를 중심에 두는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했다.⁶⁶⁾

당시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안보 중심적 통일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일부 교사들은 통일교육의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평화교육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통일정책이나 북한문제에 초점을 두었던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분단 폐해의 자각을 통해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냉전적 분단의식을 극복하려는 태도 형성을 강조하였다.⁶⁷⁾ 한편, II장에

64) 함택영 외, “남북한 평화체제의 건설과 통일교육,” 『국가전략』, 제9권 4호 (2003), pp. 52~55.

65)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p. 290.

66) 예를들어 박광기 외,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5).

살펴본 바와 같이, 평화교육 영역에서도 분단과 통일문제를 평화교육의 중심에 두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8년 소위 ‘보수정권’ 집권 이후 통일교육의 방향성은 이전 시기로 회귀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교육이 대북정책의 성과와 북한 변화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고 한반도 안보문제 및 북한의 전반적 실상 등에 대한 교육은 미흡하였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⁶⁸⁾ 북핵문제 지속과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건전한 안보관’이 강조되었으나, ‘건전한 안보관’의 의미와 안보와 통일의 관계는 명료화되지 못하였다.⁶⁹⁾ 결과적으로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은 안보교육으로 대체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담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중요한 사업으로 삼았고,⁷⁰⁾ 그 일환으로 통일교육을 강조하였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양적 확대가 추진되었고,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등 교육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은 일방적 홍보와 이벤트를 넘어서서 교육의 질적 심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⁷¹⁾ 2014년에 갑작스럽게 발표된 ‘통일대박론’은 일시적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갈수록 경색되는 상황 속에서 통일대

67) 김정수, “해외 평화교육 사례와 통일교육에의 적용 전망,” 『여성과 평화』, 제2호 (2002), p. 169.

68) 송정호·조정아,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정책과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평화학연구』, 제10권 1호 (2009), p. 169.

69)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p. 158.

70) 송영훈, “박근혜 정부 대내적 통일정책의 평가와 인식론적 성찰,”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p. 63.

71) 위의 글, p. 66.

박론은 한반도의 갈등적 상황을 강화하는 반복적 의식 프레임으로 작용하였고, 통일교육의 안보지향성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었다.⁷²⁾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 대신 ‘통일·안보교육’,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했는데, 기실 그 내용은 안보교육과 크게 다를바 없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기존의 안보중심적 통일교육에 대한 비판과 자기반성이 정부와 민간의 양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2018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 질서가 급격히 전환되면서, 통일교육에서 ‘평화’의 문제의식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한편에서는 ‘평화 통일교육’,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일각에서는 통일교육 자체를 ‘분단극복 평화교육’, ‘평화시대의 시민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⁷³⁾ 2018년 8월에 통일부가 발표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 평화·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면서, 현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성을 보여주는 통일교육의 명칭은 ‘평화·통일교육’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 특히 ‘평화’와 ‘통일’ 사이에 존재하는 ‘·’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나.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정부의 관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통일교육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하에, 통일교육의 방향성 전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72) 박찬석, “2016년 이후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제54호 (2017), p. 271.

73) 강순원, “분단시대의 통일교육에서 평화시대의 시민교육으로,”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2018) p. 101.

통일부는 2018년 8월에 기존의 『통일교육지침서』대신 『평화·통일 교육: 방향과 관점』을 발간하여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어 교육부는 2018년 11월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여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는 기존 정부 주도 통일교육과 연속성 상에 있으면서도 일부 차별성을 지니는 교육의 방향이 나타나 있다. 통일교육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지니는 이 책자의 내용은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중점 방향, 내용,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는 「통일교육 지원법」 2조에 근거하여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한 헌법 전문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 ‘안보’를 키워드로 하는 이와 같은 통일교육 개념은 그 자체로 특정한 교육 방향을 지시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상과 통일교육에 부여되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최근 학계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⁷⁴⁾

74) 김병연은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정의,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조항을 중심으로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통일교육지원법」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학교통일교육 개념이 명료하지 않으며, 강조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건전한 안보관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통일교육에서 민족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도덕과 통일교육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방안으로 제2조에서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개념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에서 통일교육의 보편원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제3조에서 이주민을 포용하는 새로운 공동체의식 형성을 강조하고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통일과 안보의 관계를 설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로는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평화의식 함양, △민주시민의식 고양의 다섯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이전의 『통일교육지침서』에서 통일교육의 목표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 정립’으로 제시되었다.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 제시된 목표 중 앞의 세 가지는 기존 통일교육의 목표와 동일하고, ‘평화의식 함양’과 ‘민주시민의식 고양’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평화의식 함양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차가 통일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문화적 충돌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와 관용의 정신, 평화의식을 함양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민주시민의식 고양과 관련해서는 통일의 미래상이 자유·민주·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국가이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⁷⁵⁾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 나타난 통일교육 목표의 변화는 평화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평화체제 구축기라는 한반도 체제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섯 가지 목표를 나열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얼핏 상충된 것으로 보이는 안보의식 제고와 평화의식 함양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다섯 가지 목표의 연관관계나 전체 교육목표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김병연, “통일교육지원법의 쟁점과 개정방안 연구-제2조 정의,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조항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제58호 (2018), p. 115.

75) 통일부 통일교육원,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서울: 늘봄플러스, 2018), p. 8. 이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의 내용 인용에 대한 개별 각주는 생략하였다.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는 열다섯 가지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정부 주도 통일교육에서 통일과 분단문제를 보는 관점을 보여준다.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은 다음과 같다.⁷⁶⁾

- ①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이다.
- ② 한반도 통일은 민족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이다.
- ③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 ④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다.
- ⑤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⑥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상대이다.
- ⑦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 ⑧ 북한은 우리와 공통의 역사·전통과 문화·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 ⑨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 ⑩ 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⑪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⑫ 통일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자유 인권 평등 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76) 위의 책, pp. 10~18.

- ⑬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 ⑭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⑮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육목표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평화에 대한 강조이다. 특히 통일지상주의를 경계하고 평화를 한반도 통일에서 우선되어야 할 가치로 천명하고 있다가, 급격한 통합이 초래하는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점진적, 단계적 방식으로 통일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기존의 『통일교육지침서』에 나타난 교육 방향성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한편, 여전히 통일교육의 쟁점 사항이 명료화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예를 들면, 통일국가의 상으로 “자유·인권·평등·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를 제시하는 동시에,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삼는” ‘민족공동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평화와 번영의 추진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튼튼한 안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화해·협력력을 통한 공존공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전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내용과 관련해서는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북한 이해, 통일의 과정과 미래상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관련 내용을 다룰 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분단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남북 분단의 발생과 고착화 과정에 관한 역사적 지식과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통일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분단의 폐해, 통일의 필요성 및 편익을 경제적, 사회적, 민족사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북한 이해 부분에서는 정치·외교, 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 부문으로 나누

어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과정과 미래상 부문에서는 분단 이후 통일을 위한 노력과 통일 추진의 원칙을 약술하고, 통일 한반도의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의 『통일교육지침서』가 상당히 세부적인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던 데 비해,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는 각각의 주제영역별로 주요 내용요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통일은 분단 구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통일은 유·무형의 편익을 가져온다.” 등 명제 형태의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간략하게 부연설명하고 있다.

교육방법으로는 변화하는 환경과 학습자 특성을 감안하여 학습자의 자발적인 탐구와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특히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 적용,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통일교육, △열린대화과 토론, 협동학습 등 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 △시청각 매체, ICT, 소집단, 체험학습, 북한이탈주민과 남북경협 유경험자 활용 등 학습자의 흥미를 증진하는 다양한 방법 활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가 새 정부의 통일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데 이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2018년 11월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여,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미래세대의 통일 역량 함양”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안보 중심, △

지식 전달 중심, △당위적, 거대 담론 중심 통일교육을 △평화와 번영 지향, △통일 역량 함양 중심, △구체적인 삶, 일상과 함께하는 통일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평화·통일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을 정책적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2월에 “2019 평화·통일교육 기본 계획”을 발표하여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사업 과제를 제시하였다.⁷⁷⁾ 이 계획에서는 △지구촌 시대 평화에 대한 상상력과 평화감수성을 촉진하는 클로컬 평화교육의 필요성 대두,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 및 정책적 요구 증가, △상호존중·협력을 바탕으로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 필요, △학습자가 행동주체로 성장하는 통일핵심역량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요청 증대가 “2019 평화·통일교육 기본 계획” 추진 배경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본 계획”의 목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의 비전 수립과 제시를 통한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패러다임 제시, △평화감수성 및 통일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적 기반 조성과 학교 안착 지원, △한반도 평화·공존·번영을 위한 신뢰·협력·연대 등의 실천으로 학생미래역량 함양 등을 제시하고 있다.⁷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평화 지향성과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를 보다 강조하고 있고, ‘통일 의지’ 함양이 아닌 ‘통일 역량’ 함양을 통일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부와는 약간의 차별성을 지닌다.

77) 서울시교육청, “2019 평화통일교육 기본 계획(안)” (서울: 서울시 교육청, 2019).

78) 위의 글, p. 8.

2. 평화·통일교육의 쟁점

혹자는 평화·통일교육을 “기존의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을 결합시키거나, 또는 평화 이론 및 관련 실행 원칙과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⁷⁹⁾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결합’은 그리 간단명료한 문제는 아니다. 통일교육이 정부기관에 의해 ‘평화·통일교육’이라는 공식적 명칭으로 지칭됨에 따라 평화교육의 지향성이 통일교육에 조화롭게 수용된 듯하지만, 그 결합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자의 지향과 강조점이 어긋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III장의 실태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교육뿐 아니라 평화교육도 자체 내에서 다양한 지향성과 내용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평화교육 자체가 단일한 지향성을 지니는 것이라는 오해를 경계하면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결합에 있어 나타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가. 한반도 평화실현에서 통일의 위상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결합에 있어 가장 뜨거운 쟁점은 한반도 평화실현에서 통일의 위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일교육 영역에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결합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나 평화교육 진영의 일부 논자들은 평화가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아니라 “분단의 극복, 곧 통일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

평화의 가치가 보편적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평화

79) 정주진, “평화화의 시각에서 본 평화·통일교육,” 『제7회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 자료집』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5.20.~5.26.), p. 197.

의 추구가 통일의 주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칫 두 국가로의 분리 혹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통한 분단의 유지로 기 능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의 문제는 보편적 가치이자 당연한 핵심적인 의제이지만 동시에 통일을 지향하는 목 적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요구되는 평화일 것이다. 통일 또한 한반도라는 특수성 속에만 갇 혀 있어서는 안 된다. 보편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통 일이어야 한다. 통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통일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⁸⁰⁾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분단의 평화화’가 아 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라는 점을 강조한다.⁸¹⁾ 통일은 비평화 를 가져오는 분단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고통의 원 인인 분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⁸²⁾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평화 를 포괄적으로 구상하지 않는 통일이나 통일을 적극적으로 사고하 지 않는 평화 모두 적실성을 갖기 어렵다.⁸³⁾

이와 달리,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분단의 문제를 다루는 입장, 특 히 ‘탈분단 평화교육’에서는 분단의 해소가 곧 통일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보지 않는다. 이들에게 통일은 탈분단의 동의어가 아니며, 이들 은 오히려 통일-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통일지상주의적 담론과 이 에 입각한 실행들-을 안보, 민족과 함께 분단의 수행성을 작동시키

80) 최혜경, “한반도평화 시대, 사회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모색,” 『제7회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 자료집』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5.20~5.26.), p. 147.

81) 정영철, “평화통일을 위한 길 찾기: 평화를 위한 통일, 통일을 위한 평화,” p. 62.

82) 이인정,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 과교육』, 제62호 (2019), p. 7.

83) 정용민,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교육, 시민성교육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교육 어 떻게 할 것인가』 (서울: 살림터, 2018), p. 104.

는 장치로 보기도 한다.⁸⁴⁾ 한반도 평화실현의 과정에서 통일은 미리 정해져 있는 유일한 해답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에서 모색하고 만들어 나갈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일 뿐이다. 최근에는 통일교육 담론과 실천 현장 속에서도 통일의 당위성을 문제시하는 입장이 대두되었다. 통일인문학은 통일의 당위성을 전제로 삼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러한 입장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유도하고, 이에 바탕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통일의 의미와 방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성찰하도록 한다.⁸⁵⁾

나. 통일교육에서 통일의 당위성 문제

한반도 평화실현에서 통일의 위상 문제는 “교육의 장에서 통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통일의 위상 문제와 교육에서 통일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지만, 그간 서로 분리되지 않은 채 다루어져 왔다. 전자는 통일이 한반도 평화실현의 유일한 종착점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하나의 대안에 불과하다고 보는지라고 하는 관점의 문제이다. 이와 달리, 후자는 관점 자체보다는 ‘교육’ 장면에서 통일문제, 보다 정확히는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통일의 당위성 또는 필요성을 전제하고 통일이라는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통일의지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전개할지, 분단 감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분단 해체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완전히 열어놓는 교육을 할지의 문제이다.

84) 문아영·이대훈, 『분단체제를 살아내며 넘나드는 탈분단 평화교육』, p. 19.

85) 오기성, “통일교육에서 평화인문학 및 통일인문학의 함의,” 『초등도덕교육』, 제61집 (2018), p. 325.

통일을 보는 관점은 다르더라도 통일문제를 교육의 장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해서는 합의의 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에서 통일의 위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와 통일의 당위성을 통일교육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문제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 평화·통일교육의 첫 번째 목표로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을 중점 방향의 첫 번째로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이다.”를 제시하고 있다. 통일부 주도의 평화·통일교육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통일의 당위성 각인과 통일의지 함양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일의 필요성을 주입하는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행동 주체로서 학습자가 성장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통일의 당위성, 필요성 문제를 교육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편, 평화교육 진영, 특히 탈분단 평화교육에서는 통일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탈분단 평화교육을 전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평화단체인 ‘피스모모’의 평화교육은 분단이 가져온 비평화를 알고 느끼고 이를 평화적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평화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단체제에 대한 이해와 탈분단의 문제를 다루지만, 통일교육원에서 교육목표로 삼는 것과 같은 통일의지 함양은 그 자체로는 교육의 목표가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통일을 주제로 하는 학습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가 따른다.

분단의 반대말은 통일일까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통일은 필

수적일까요? 모 아니면 도,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대립구도에 몰두하여 내용의 본질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갈등만 점점 첨예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화, 단순화할 수 없는 미묘하고도 무수히 많은 생각의 스펙트럼을 들여다보며, 분단을 넘어서는 평화의 반짝이는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활동입니다.⁸⁶⁾

피스모모의 탈분단 평화교육에서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비평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종착점이 아니라, 평화의 실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미래 한반도 사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피스모모는 기존 통일교육에서 북한을 적대시함으로써 적대와 불안을 조장해왔을 뿐만 아니라, 갈등은 축소하고 통일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다루어왔다고 비판한다. 과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통일이라는 결과를 미리 가정하고 주입해왔다는 것이다.⁸⁷⁾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탈분단은 곧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성찰하는 과정”이며, 탈분단 평화교육은 통일의 의지를 기르는 일이 아니라 분단을 성찰하고, 평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 실현에서 통일의 위상에 관한 관점 및 교육에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관련하여 피스모모의 탈분단 평화교육이 통일부의 통일교육 입장과의 대척점에서 있다면,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 및 분단과 통일 문제를 다루는 평화교육은 이 두 주체 사이의 스펙트럼 상의 한 지점에 위치한 입장을 보여준다.

86) 김영철·전세현, 『탈분단과 평화, 교실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교사를 위한 평화배움 교안 시리즈 3』 (서울: 피스모모, 2018), p. 17.

87) 위의 책, p. 4.

본 연구 진행 과정에서, 통일교육협의회에 소속되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 중 몇 단체를 초청하여 평화·통일교육 활동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집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교육에서 통일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 단체의 설명은 이에 관한 입장 차가 통일부와 민간단체 사이뿐만 아니라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시민단체들 간에도 존재함을 보여 준다. 세 단체 중 흥사단은 1913년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민족운동단체”로, 단체활동의 일환으로 통일교육 활동을 오랜 기간 활발하게 전개해온 단체이며, 통일교육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다.⁸⁸⁾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1997년 결성된 여성평화운동 단체로, 1990년대 후반부터 평화교육 차원에서 분단과 통일 문제를 다루어왔다. 통일경제포럼은 2016년도에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시민단체로, 통일과 경제문제와의 연관성을 중시에 두고 활동하고 있다.

흥사단: 북한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죠. 그게 완전히 주입식으로 딱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중략) 평화 기법을 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라, 친구들이 그걸 느끼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일방안은 뭘데, 북한은 뭘데, 우리가 합의를 했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지금 우리 통일방안 중에 어느 단계에 있을까?” 이거를 상상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저희는 들어가는 거죠.

88) 흥사단 홈페이지 <<http://www.yka.or.kr/html/introduce/introduce.asp>> (검색일: 2019.9.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교육은 완전히 참석자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끝나게 하지는 않아요. 좀 이렇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의 논의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피스모모와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프로그램에서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과정으로서의 통일이고, 통일을 할 거냐 말거냐는 열려있는 상태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 돼. 하나가 되는 통일을 이뤄야 돼.”라고 하진 않아요.

통일경제포럼: 저희는 열어놓는 결론으로 가요. 저희가 제일 중심으로 다루는 건 이 분단현실이 지금 청년들의 현실에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군대를 가야 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분단상황에서 비롯된 건데, 그러면 이 분단상황이 혹은 비평화상황이 어떻게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통일이 부담스럽다면 통일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고, 그럼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지부터 생각을해보자가 조금 더 중심이에요.⁸⁹⁾

위의 인용문을 통해 보면 홍사단은 주입식 교육을 경계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일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통일경제포럼은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면서도 분단 이후의 대안으로 통일을 제시하기보다는 답을 유보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또한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피스모모와 같이 평화교육 관점에서 분단문제를 다루지만, 피스모모보다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관한 논의를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9) 자문회의 녹취록(통일연구원, 2019.7.31.), pp. 30~32.

다. ‘적극적 평화’와 안보에 대한 관점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간의 또 하나의 쟁점은 ‘적극적 평화’의 개념 및 안보문제와 관련된다.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결합이 기본적으로 ‘적극적 평화’라는 평화개념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를 전쟁없는 상태라는 의미의 ‘소극적 평화’로만 해석한다면, 반공교육도 체제 경쟁을 강화하는 안보교육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평화교육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 평화’만을 강조할 때 ‘안보’나 ‘통일’ 문제는 항상 ‘국익’과 ‘체제 수호’를 위한 것이 되고, 통일교육은 분단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⁹⁰⁾ 따라서, 평화교육과 접점을 형성하는 통일교육에서 평화의 의미는 ‘소극적 평화’에 국한되지 않고, 분단을 명분으로 한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안보를 매개로 한 사회적 폭력의 확대 재생산 구조 약화, 분단의 일상에서 스며들어 있는 일상생활의 폭력적 구조 해체 등을 포괄하는 ‘적극적 평화’로 확대된다.⁹¹⁾

그런데 ‘적극적 평화’ 개념은 교육의 주제나 내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확산성을 지닌다. ‘적극적 평화’ 개념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 문제를 고찰하면, 분단체제에서 벗어나는, 또는 그 구체적인 종착점인 통일을 이루는 것은 남북간의 정치적 통합이나 물리적 장벽의 제거가 아니라 사회구조와 문화와 의식을 포함하여 평화를 가로막는 다층적 요소들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된다. 적극적 평화 관점에서 분단폭력은 남북간의 무력충돌처럼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적대와 경쟁을 지탱하는 군사주의와 안보중심주의, 이와 연결된 반생명문화, 서열주의, 가부장제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아니,

90) 정용민,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교육, 시민성교육이 필요하다.” p. 104.

91) 정영철, “평화통일을 위한 길 찾기: 평화를 위한 통일, 통일을 위한 평화.” p. 63.

이러한 주제들이 오히려 분단의 일상화 관점에서 전통적인 통일교육의 주제보다 더욱 큰 중요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교육 입장에서는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가 ‘물리적 분단’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⁹²⁾ 이러한 입장에서는 물리적 폭력의 해결을 넘어서서, 한국/한반도의 불평등, 가부장제, 군사주의, 서열주의, 분단체제, 인종주의, 반생명문화를 평화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구조적-문화적 폭력으로 위치 짓는다.⁹³⁾ 또한,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평화부재의 상황, 또는 평화를 가장한 비평화와 폭력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감수성, 전환의 의지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주제들을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다룰 것인가, 다룬다면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에서 통일교육 중심의 입장과 평화교육 중심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정부 주도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온 ‘안보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은 평화교육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된다. 평화교육 입장에서 보면 분단이 야기한 구조적 폭력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남과 북 모두의 ‘군비증강과 무장, 경쟁적 군사화와 이를 지탱하는 사회구조들’이다.⁹⁴⁾ 분단된 체제에서 한국의 국가운영 원리이자 이념의 주류에 안보주의가 있으며, 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내지 진보의 핵심이라고 본다.⁹⁵⁾ 따라서, 군사주의와 안보중심주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탈분단 평화교육에서 핵심적 의제가 된다. 다음

92) 문아영, “군사적 대립을 넘어서는 평화구축의 시대 교육의 준비와 역할,” 『반전 반군 사회를 지향하는 2018 아시아 평화교육 워크숍 자료집』, (2018) p. 9.

93) 이대훈, “평화역량과 평화교육의 적용,” 『제7회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 자료집』 (2019) p. 214.

94) 문아영, “군사적 대립을 넘어서는 평화구축의 시대 교육의 준비와 역할,” p. 8.

95) 이대훈, “인간과 문화 사이의 평화학,” 가톨릭대학 학술대회 발표문, (2017) p. 5.

과 같은 글은 탈분단 평화교육이 기존의 안보교육, 안보중심적 통일 교육을 보는 비판적 입장을 잘 보여준다.

안보교육은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외부의 적으로부터 어떻게 나와 우리 가족, 우리민족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위기상황이 왔을 때 적을 제압하고 무찌르기에 충분한 정신무장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철저한 안보교육으로 국가안보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중략) ‘안보’라는 주제는 항상 ‘평화’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때의 평화는 나와 나의 공동체의 평화이지 외부의 적의 평화는 고려되지 않는다. 내 가족의 안전함이지 적의 가족의 안전함은 아닌 것이다. ‘안보’를 통한 ‘항구적 평화’라는 것은 결국 나와 내 공동체 그리고 내 편, 나의 우방의 평화를 의미한다. 안보를 공고히 하자고 하면 할수록 평화는 요원해진다.⁹⁶⁾

탈분단 평화교육에서 안보문제를 다루는 목적은 ‘건전한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다. 탈분단 평화교육에서 안보문제에 관한 교육은 분단체제 하에서 군사주의, 안보주의가 작동해온 방식과 그 폭력성을 드러내는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통일부의 교육 방향과 다르다. 반면, 정부 주도 통일교육에서 안보의 문제는 ‘건전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 초점이 두어진다. 평화교육 관점에서 보면 ‘건전한 안보의식’을 제고하지는 것은 “군사주의적 안보관, 국가중심적 안보관, 애국심을 고취하는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간주된다.⁹⁷⁾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내에 ‘건전한 안보’와 관련된 첨예한 의견대립이 존재하지만, 정부의 통일교육이 표방하는 ‘건전한 안보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건전함의 기준을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96) 문아영, “군사적 대립을 넘어서는 평화구축의 시대 교육의 준비와 역할,” pp. 10~14.

97) 이대훈, “인간과 문화 사이의 평화학”, p. 5.

명료한 입장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

교육방법 측면에서 보면,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모두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을 말하고 있으나, 교육을 보는 근본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의 수업이 전개될 수 있다. 교육을 보는 관점의 한쪽 끝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올바른 지식과 관점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는 ‘계몽’의 관점이 자리하고, 다른 쪽 끝에는 학습자가 스스로의 경험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식 구조를 형성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구성적 과정-즉 학습-을 돕는 것을 교육이라고 보는 관점이 존재한다.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다양한 실천들은 이 양극단의 사이 어디쯤에 위치한다.

전자에 가까울수록 통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중립적’ 지식이 존재한다고 본다. 통일부가 취하는 입장이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 이 관점에서는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한 교육방법은 정답을 보다 효율적으로 습득하거나 잘 깨우쳐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올바른 관점과 지식이 무엇인가는 종종 정권의 성향이나 대북정책 방향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 좌우된다.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 ‘올바른 북한관’이 제시되었는데,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는 ‘균형 있는 북한관’으로 수정되었다. ‘올바른 북한관’이 올바른 여부를 결정하는 모종의 주체에 의해 ‘정답’이 결정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균형 있는 북한관’은 서로 다른 북한관이 있고, 그 중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입장을 모두 살펴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균형’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의미하듯 다양한 입장과 대안이 교육의 장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⁹⁸⁾ 이

는 다양한 관점의 존재와 학습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계몽’의 관점에서 약간은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점에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은 이전 정부의 『통일교육지침서』보다 진일보한 것이고, 보다 학습자 중심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계몽’의 관점과 반대편의 끝에는 학습의 주도권을 교사나 교사가 대행하는 국가가 아닌 학습자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본 피스모모의 탈분단 평화교육에서는 ‘교육’이라는 용어보다 ‘배움’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는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특정한 지식을 전달하거나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가르침의 측면보다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능동적인 사고와 활동을 통해 깨닫고 변화해나가는 측면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의 “발화를 요약하고 연결시키는 다리와 실타래” 역할을 할 뿐이다.⁹⁹⁾ 평화·통일교육에서 다루는 분단의 역사나 북한문제, 남북관계 현안 등이 피스모모의 탈분단 평화교육에서도 다루어지지만, 통일교육원의 교육처럼 각 내용 영역의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분단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학습 참가자들 간에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매개물로 교육내용이 배치된다. 이런 교육에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면서 협력의 대상인 이중적 존재이다.”와 같이 학습상황의 외부에서 주어진 정답은 없다.

98) 독일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제시되었던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두 번째 항은 학문과 정치에서 대립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대립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하며, 상이한 입장과 선택가능성을 무시하거나,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이다. Bernd H. Binger,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기능과 역할,” p. 62.

99) 문아영·이대훈, 『분단체제를 살아내며 넘나드는 탈분단 평화교육』, p. 70.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는 탈분단 평화교육에서도 통일부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 바람직한 교육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학습자의 자발적 탐구와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강조한다. 피스모모의 탈분단 평화교육 교안을 보면, 교육은 도입활동, 본활동, 닫는 활동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¹⁰⁰⁾ 도입활동은 본격적인 학습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 과정과 문화, 분위기, 방식을 제안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피스모모가 제시하는 토론 또는 대화의 방식은 “뭐든지 괜찮아”, “달라도 괜찮아”, “낮설어도 괜찮아”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된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탈분단 평화교육의 교육방법뿐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적 관점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즉, 정해진 답을 향해 가는 교육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정답도, 절대적 오답도 없고, 학습 참가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며, 익숙하고 일상적인 답을 낮설게 봄으로써 비판과 대안의 창출을 격려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통일교육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활동은 주제토론과 갈등 분석으로,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통일과 분단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과정이다. 본활동은 영상분석 등의 활동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스펙트럼 토론’이나 ‘월드카페토론’과 같이 특정한 질문이나 주제에 대해 소그룹별로 이야기하고 자신과 다른 참가자들의 생각을 비교하고 발표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이때, “통일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다.”, “통일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등과 같은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제한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아닌 열린 토론 방식을 취한다. 찬

100) 이하 교육방법은 김영철·전세현, 『탈분단과 평화, 교실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교사를 위한 평화배움 교안 시리즈 3』, pp. 71~75.를 요약함.

반을 나누는 이분법적 논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민주적 토론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견해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원칙으로 삼은 것은 △무리한 합의나 결론 추구 지양, △이질적인 존재들이 만나 다양성을 드러내고 소통하는 공동의 경험에 의미 부여, △경청, 질문, 이해, 연결, 종합, 성찰의 대화 추구 등이다.

일반적인 통일교육 장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은 단순히 기술적, 방법론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의견의 경청과 소통 못지않게 “민주적 토론과 소통을 통한 비판적 분석”이 강조된다. 이는 평화교육이 본질적으로 기존의 삶과 사회 관행 속에 다양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폭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적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의 삶의 방식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시된다.¹⁰¹⁾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교육의 또 다른 예로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의 토론연극 프로그램 사례를 들 수 있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에서는 1997년부터 토론연극 형식으로 공연을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통일을 주제로 토론연극을 진행하고 있다. 토론연극은 일상의 불편함이나 문제들을 주제로 연극을 구성해서 공연하면서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결론 부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평화란 무엇인가?”, “통일이란 무엇인가?”, “평화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등

101) 이대훈, “평화역량과 평화교육의 적용,” p. 215.

의 주제로 참가자들이 메모를 작성해서 붙이는 작업을 한다. 프로그램 도입부에서 참가자들이 쓴 메모 속의 이야기를 모아 관객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연극을 시작하게 된다. 극의 내용은 분단과 통일 문제와 관련된 딜레마 상황을 다룬다. 사건들이 누적되면서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배우들의 연기를 끝내고, 진행자가 관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후의 전개상황을 함께 이야기로 만들어보도록 한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중 몇몇 의견을 선택해서 관객들이 직접 참가하여 세 번 정도 다른 귀결을 갖는 극을 만들고 이에 관해 함께 토론해나가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관계자는 토론연극의 방법적 특징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회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바람직하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질문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도해보도록 관객들을 직접 무대에 서게 하는데, 잘 되지 않는 상황을 겪어보게 합니다. 그럼 이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동원해서 바꿔보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게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¹⁰²⁾

통일교육원과 평화교육 단체들의 교육방법은 학습자의 능동성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지만 강조점은 서로 다르다. 통일교육원의 교육방법은 학습자의 특성과 흥미를 고려함으로써 학습자들을 교육과정에 끌어들이어 교육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와 달리, 몇몇 민간단체들의 교육방법은 정답이 제시되지 않는 교육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과 의사소통 및 경청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102) 자문회의 녹취록(통일연구원, 2019.7.31.), p. 20.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방법론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북한 문제를 다룰 때, 통일교육원의 평화·통일교육에서는 ‘북한의 이중성’을 고려하고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의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북한에 대해 ‘균형적 인식’이 가능하도록 교육하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균형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육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토론, 협동학습 등 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 시청각 매체, ICT, 소집단, 체험학습, 북한이탈주민과 대화 등을 그야말로 ‘방법’일 뿐 그 자체가 ‘균형적 인식’이라는 교육 방향의 구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아마도 ‘균형적 인식’은 수업을 이끄는 교사에 의해 제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듯하다. 반면, 피스모모의 탈분단 평화교육이나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의 토론연극에서는 참가자 누구나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일상에 녹아있는 분단폭력과 비평화에 관해 말하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분단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분단에 대한 성찰과 평화 모색은 분단, 평화와 관련된 내 안의 이야기를 찾아 꺼내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비교하고 연결시킴으로써 발전된다. 인식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면, 균형의 지점은 교육 참가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 그때그때 구성된다.

V. 결론: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점과 과제



1. 요약

이 연구는 한반도 평화협력의 시대에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근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남북한의 평화협력과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는 시기에, 평화교육의 확대와 통일교육의 평화지향적 전환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 접근가능성을 모색하고 접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 또는 ‘분단’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키워드들이 각각의 교육 속에서 어떻게 위치지어지고 어떻게 교육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시기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방향성 모색을 위해 평화교육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교육 현장과 이론적 논의의 장에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간에 어떠한 접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쟁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II장에서는 평화교육 역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평화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싹트고 발전해나가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문제에 대한 고민과 그 교육적 해결 모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평화교육 실천, 평화교육 연구, 평화운동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평화교육의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 평화교육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평화교육의 역사는 1980년대 - 1990년대 초반까지의 평화교육 모색 시기, 1990년대 중반 - 2000년대 중반의 평화교육 구체화와 도약 시기, 2000년대 후반 - 현재까지의 평화교육의 세분화와 비균질적인 활성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평화교육 모색 시기에는 서구의 평화교육을 소개하고 한국의 평화교육을 모색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평화교육은 반평화적인 요인으로서 분단구조를 주요하게 보고 처음부터 분단 극복과 민족화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시기 평화교육은 독립적 영역으로 현장에서 실행되는 정도는 약했지만, 일부 학교 교사들의 의식적 노력과 시민평화운동을 토양으로 교육실천의 싹이 텄다. 이 시기 평화교육의 역사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사회의 평화교육이 도입시기부터 분단과 통일의 요소들을 그 내용으로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평화교육은 처음부터 분단 극복과 민족화해를 염두에 둔 구체적인 맥락에서 구성된 기획이었던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평화교육이 구체적인 내용성을 갖추어가면서 성장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평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시민단체들이 출현했다. 시민단체들은 평화교육만을 활동의 목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평화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평화교육도 실시했다. 또한, 평화교육의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비록 총론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이 여전히 강했지만, 시민단체들의 평화교육은 평화에 관한 지식과 태도, 기술, 실천을 고려한 다양한 영역을 섭렵하고 개인에서 글로벌까지 관통하며 다차원으로 접근하였다.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은 민주·민중·민족문제로 환원되는 거대담론에서 글로벌 사회에서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생활정치로 확장되고 이동했다. 일상에서의 비폭력성, 상생적 관계 형성, 다문화, 생태 보전, 젠더평등 등 다양한 관점을 살린 평화교육이 다원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안보통일교육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평화적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에는 평화교육의 내용이 세분화되고 다양한 주제와 분야로 확산과 적용이 시도되었다. 평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들이 출현하면서 평화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세분화되고 프로그램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지향성은 복합성을 띠게 되었다. 주체성, 자아성찰, 인권의식, 생명존중, 다문화주의, 남북관계, 사회정의 등과 같은 가치와 지향들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부분적으로 혹은 다중적으로 결합되었다. 또한, 평화교육의 학습모델이 구상되고 교육매뉴얼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시민단체들의 평화교육은 점차 학교, 공공기관, 지역 등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확산되었으나, '평화'의 개념과 범위를 둘러싼 상이한 입장이 경합하면서 평화교육은 비균질적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의 평화교육은 일상의 차원에서부터 글로벌한 차원까지 내다보면서 다차원적인 평화인식을 도모하는 가운데, 한국의 분단현실을 평화만들기 구성에서 주요한 교육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분단현실을 고려한 대표적인 교육 모델로 생태평화교육과 탈분단평화교육이 등장하였다.

III장에서는 사회교육 영역에서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현재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라는 명칭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각의 교육실천들 속에서 양자가 어떻게 공통된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교육목적, 대상, 교육내용, 방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 시기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특히, 다양한 평화교육 실천 속에서 비평화의 근원으로서 분단문제를 다루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화·통일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통일교육 실천 속에서 평화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특정한 틀로 유형화하기 어려운

다양성을 지니며,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통해 그 특성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형식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강좌, 강연·세미나·포럼, 캠프·기행, 문화공연·행사, 콘텐츠 개발 유형, 상시프로그램형으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유형화하였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평화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 국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영역 전반에 걸쳐 비평화와 폭력을 검토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을 지향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민간단체들의 평화교육은 각 단체가 표방하고 있는 평화교육의 개념과 성격에 따라 갈등전환교육,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탈분단 평화교육, 여성주의/젠더평화교육, 상호이해평화교육, 생태평화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6개 주제영역 내에서 총 7개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분단 및 통일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와 연결되는 주제의식을 담은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주체 측면에서, 통일교육이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한 국고지원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전적으로 시민사회 주도로 시작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개별단체들의 정부 간 협업 역시 단체의 활동 주제에 따라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실행되어 왔다. 교육 유형별로 보면, 연속강좌형과 강연·세미나·포럼형에는 2017년 이전부터 정례적으로 운영되어 온 연례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특정 이슈 및 상황에 따라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 캠프·기행형도 대부분 정례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행사·공연형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피스모모에 의해 진행되었다. 콘텐츠 개발형 프로그램의 경우, 연중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거

나 특정 계기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시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교육의뢰를 받아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단체가 직접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가장 많은 상시프로그램 교육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곳으로는 초·중·고등학교를 들 수 있는데, 각각의 단체들은 교육기관의 꾸준한 교육요청에 따라 연중 상시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 방향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평화교육을 주제로 활동하는 평화교육 단체들 안에서도 단체의 주안점에 따라 평화교육의 방향성이 균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통일에 방점을 두는 평화교육 단체와 탈분단에 방점을 두는 평화교육 단체, 일상적 차원에서 개인과 공동체 내 관계 중심의 평화교육에 방점을 두는 단체와 개인의 정치성과 국제정치를 연계하는 데 방점을 두는 단체 등 평화라는 광의 개념 안에서 다양한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평화라는 주제에 접근해가는 진입 지점과 방법론이 단체별로 조금씩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여성, 평화, 안보와 성평등한 한반도 이니셔티브 구상 프로젝트’처럼 평화라는 주제와의 연계 속에서 여성의 참여 및 유엔 결의안 1325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한국DMZ평화생명동산처럼 환경과 생태를 중심으로 평화에 대해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는 한편, 피스모모의 모모평화대학처럼 평화라고 하는 광의의 개념을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속에서 접목시켜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다.

평화교육의 범위 역시 학교교육의 주제로 평화를 다루는 것에서부터 학교교육의 과정을 평화적으로 만드는 것,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 및 실행에 평화의 가치를 반영하고 그 결과로 평화를 증진하는 것까지를 동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 등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평화교육이 다루는 주제의 층위 역시 개인 간의 관계에서부터 집단 간 관계, 국가 간 관계까지 두루 포함하는 형태로 매우 다층적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개인과 개인 간의 비폭력적인 대화를 시작으로 그룹 내 비폭력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정을 다루며, 회복적 정의를 통해 공동체 내의 포괄적인 의사소통을 다루고 있다. 여성주의 및 젠더관점의 평화교육의 경우, 여성의 관점에서 남성 중심으로 쓰여진 역사를 재조명하며 여성의 목소리로 통일과 평화에 대한 서사를 쌓아나가고 있다.

교육 대상 면에서는 참가자 그룹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넓게 열려있는 가운데, 특정 연령대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그룹을 세분화하여 개별 집단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도 눈에 띈다.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민족담론 중심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며,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적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국제사회와 동북아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조망하고, 평화의 관점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시민들과의 연대 속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들은 반공·안보·나라사랑교육의 흐름 속에서 정부 주도 교육과정이 민주시민성 형성을 어떻게 방해하였는지를 탈군사주의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적극적 관점의 평화에 대한 이해를 교육에 반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회복적 생활교육의 사례처럼, 일상영역부터 전쟁의 문제까지 두루 다루는 다양한 평화교육의 주제들은 정부주도의 교육과정과 만났을 때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국가안보와 군사안보, 군비축소 및 군사주의의 문제는 명시적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평화교육 분야의 성평등 논의는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그치고 있으며,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민성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콘텐츠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통일교육 부분에서는 2018년에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28개 단체와 서울시에서 공모한 평화·통일교육 사업에 선정된 18개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총 60개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분석하였다. 교육 실시 주체별로 보면,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는 대부분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로,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의 통일교육 활동은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전문성 면에서 편차가 존재하는데, 매년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주로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전문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들도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에 참가한 단체 중 절반 정도는 북한 및 통일과 통일교육 관련 단체이지만, 절반 정도는 기존에 통일교육 활동을 주된 영역으로 하지 않았던 교육, 문화, 역사 관련 단체이다. 이는 평화·통일교육의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참가 단체들 간에 전문성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프로그램 성과의 공유 및 공동평가를 통해 단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교육협의회와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모두 참여한 단체 중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년 활발

한 통일교육 및 평화교육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의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내용이나 방법 측면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의 프로그램이 여전히 주를 이루었고, 캠프·기행형도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콘텐츠개발 유형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기관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의 경우, 2013년과 비교할 때 전체 프로그램 개수는 절반 가까이로 감소하였다. 강연회·세미나·포럼 유형과 캠프·기행 유형 프로그램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데 비해, 연속강좌 형태는 대폭 감소하였고, 콘텐츠개발 유형의 프로그램은 실시되지 않았다. 강연회·세미나·포럼 등 일회적인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것은 매년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 전문성이 심화되거나 성과가 쌓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여러 유형을 결합하여 학습자들의 참여도와 흥미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캠프나 기행을 연속강좌의 마무리 형식으로 구성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캠프·기행 형태의 체험학습은 DMZ, 오두산전망대, 임진각, 제3땅굴과 같은 분단 현장에 국한되었던 장소가 부분적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청년 참가자들이 주축이 되어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며 전체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한 일부 단체의 프로그램은 특히 주목할만하다. 한편, 일부 캠프·기행 형태의 체험학습은 극기체험이나 수련의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였고, 기존의 안보교육과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프로그램도 있었다. 문화공연·행사 유형의 프로그램으로는 글짓기 대회나 발표대회, 토크콘서트, 영화제, 문화제와 같은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콘텐츠 개발 유형의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모사업 참가 단체에서 실시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통일부나 서울시 등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정책 방향성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개별 단체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상세히 살펴보면 서로 충돌하는 방향성과 내용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평화와 통일을 다루는 관점은 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산하 단체들의 프로그램 목표로는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 제고, 평화통일의 중요성 인식 확산,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통일주역이라는 사명감 고취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통일교육지원법 2조의 통일교육 정의 조항과 통일부에서 제시한 통일교육의 목표를 반영한 것이지만, 시민단체들의 평화교육과 달리 평화의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몇몇 단체들의 경우 국가관 확립, 정신력 강화, 애국심 고취 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 기존의 통일교육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평화교육의 방향성과 교육내용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특성과 역사를 반영하여 상당히 폭넓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학습자의 관심과 성장을 중심에 놓는 ‘교육’이라는 의미보다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홍보수단이라는 의미를 통일교육에 부여해왔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이 자체의 재정구조에 기반해서 진행되기보다는 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교육 대상 측면에서는 특별한 구분 없이 성인 전체를 교육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여성, 20대 청년 등 대상을 특정한 프로그램도 간혹 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중 상당수는 학교현장에 강사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파견교육 형태의 교육을 실시한 단체 중에는 평화교육이나 통일교육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교육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있지만, 연속강좌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육 참가자가 교육 수료 후 바로 초·중·고등학교에 파견되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있어, 강사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는 면이 있다.

IV장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평화·통일교육’이라는 명칭으로 표방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앞 장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근에 있어서의 교육적 쟁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각 쟁점에 대한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내의 다양한 입장을 고찰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통일교육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하에, 통일교육의 방향성 전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통일부는 2018년 8월에 기존의 『통일교육지침서』 대신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발간하여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어 교육부는 2018년 11월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여 학교통일교육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는 기존 정부 주도 통일교육과 연속성 상에 있으면서도 일부 차별성을 지니는 교육의 방향이 나타나 있다.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는 「통일교육 지원법」 2조에 근거하여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한다. 통일교육 목표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평화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평화체제 구축

기라는 한반도 체제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다섯 가지 목표를 나열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각각의 목표간의 연관관계나 전체 교육목표의 구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평화 지향성과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를 보다 강조하고 있고, ‘통일 의지’ 함양이 아닌 ‘통일 역량’ 함양을 통일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부와 차별성을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결합에 있어 나타나는 주요 쟁점 네 가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쟁점은 한반도 평화실현에서 통일의 위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평화가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아니라 “분단의 극복, 곧 통일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달리,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분단의 문제를 다루는 입장, 특히 ‘탈분단 평화교육’에서는 통일은 탈분단의 동의어가 아니며, 오히려 통일지상주의적 담론과 이에 입각한 실행들을 문제시한다.

두 번째 쟁점은 통일교육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이다. 통일의 당위성 또는 필요성을 전제하고 통일이라는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통일의지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한편에 있고, 분단 감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분단 해체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완전히 열어놓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른 편이 있다. 통일부 주도의 평화·통일교육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통일의 당위성 각인과 통일의지 함양이다. 이와 달리,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일의 필요성을 주입하는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행동 주체로서 학습자가 성장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평화교육 진영, 특히 탈분단 평화교육에서는 분단체제에 대한 이해와 탈분단 문제를 다루지만, 통일교육원에서 교육 목표로 삼는 것과 같은 통일 의지 함양은 그 자체로는 교육의 목표가 되지 못한다.

세 번째 쟁점은 ‘적극적 평화’의 개념 및 안보문제와 관련된다. 평화교육 관점에서는 물리적 폭력의 해결을 넘어서서, 불평등, 군사주의, 가부장제, 반생명문화 등을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비해, 통일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안보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정부 주도 통일교육에서 통일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안보의식’ 고취는 민간기관 통일교육에서도 적용된다. 이와 달리, ‘안보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은 평화교육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탈분단 평화교육에서 안보문제에 관한 교육은 분단체제 하에서 군사주의, 안보주의가 작동해온 방식과 그 폭력성을 드러내는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 통일교육의 방향과 다르다.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내에 ‘건전한 안보’와 관련된 첨예한 의견대립이 존재하지만, 정부의 통일교육이 표방하는 ‘건전한 안보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건전함의 기준을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료한 입장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 쟁점은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모두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을 말하고 있으나, 교육을 보는 근본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의 수업이 전개될 수 있다. 교육을 보는 관점의 한쪽 끝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올바른 지식과 관점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는 ‘계몽’의 관점이 자리하고, 다른 쪽 끝에는 학습자가 스스로의 경험과 활동을 통

해 자신의 인식 구조를 형성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구성적 과정-즉 학습-을 돕는 것을 교육이라고 보는 관점이 존재한다.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다양한 실천들은 이 양 극단의 사이 어디쯤에 위치한다. 전자에 가까울수록 통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중립적’ 지식이 존재한다고 본다. 통일부가 취하는 입장이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 ‘계몽’의 관점과 반대편의 끝에는 학습의 주도권을 교사나 교사가 대행하는 국가가 아닌 학습자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 존재한다.

2.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은 분단의 역사 속에서 분단과 남북 간의 대립, 분단으로 인한 폭력과 비평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점을 형성하고 공동의 영역을 만들어왔다. 평화교육의 역사 고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평화교육은 그 태생에서부터 분단의 극복과 민족화해라는 문제를 중심에 놓았다. 한국에서 평화교육은 우리 사회의 폭력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분단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점에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은 태생에서부터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이라는 출발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육실천과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육실천의 현재 모습 속에는 교육의 방향성, 내용, 주체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과 강조점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통일교육 영역에서 최근 평화·통일교육이라는 명칭으로 기존 통일교육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에

서 통일의 위상, 통일의 당위성 문제, 적극적 평화와 안보문제, 학습자의 주도성 등을 다루는 관점에서 평화교육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이분법적 구도로 보고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쪽을 대체하거나 양자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 양자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한반도 분단과 통일문제를 평화의 관점과 가치에 입각해서 다루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교육 방향성 정립과 사회적 논의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 및 통일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방향성 정립과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통일부,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 의해 제시된 평화·통일교육은 ‘평화’라는 단어를 덧붙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평화의 관점과 가치를 반영한 교육으로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방향성은 교육주체에 따라 상당히 폭넓은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평화교육 단체들 속에서는 한반도 평화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탈분단에 초점을 두느냐 통일을 상징하느냐, 개인적 차원의 평화부터 국제적, 전 지구적 차원의 평화까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통일 자체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통일의지를 기르는 교육에 집중하기보다는 한반도의 비평화구조와 분단폭력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느끼도록 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통일교육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통일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통일의 지 함양을 중요한 교육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시하는 통일교육의 명칭이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바뀌었지만, 수사적 차원에서 평화를 덧붙이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인 방향성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에, 본문에서 살펴본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을 명료화하고 이를 통해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근을 모색해갈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방향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변화해왔는데, 이는 평화교육과 달리 국가주도성이 큰 통일교육은 국가적 어젠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통일정책 홍보의 일환으로 여겨져왔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이 정치교화의 수단,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¹⁰³⁾ 평화교육은 직면한 비평화의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향이자 방법이므로, 통일교육을 한반도의 평화교육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명칭에 ‘평화’를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다양한 관점을 지닌 교육주체들 간의 열린 토론의 장에서 평화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사회, 남북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러한 가치를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쟁점을 공론화하며 교육주체들 간의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나. ‘역량’ 중심으로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내용체계 개편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를 ‘역량’ 중심으로 재편하고,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과를 통해 평화의 가치와 역량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통일교육은 기존의 지식전달교육, 통일외지

103) 조정아, “2030 세대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통일교육연구』, 제15권 2호 (2018) p. 32.

함양 중심의 교육에서 핵심역량 함양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이를 중심으로 내용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최근 평화교육이 강조되면서, 일각에서는 학교교육 내에서 통일교육을 평화교육으로 대체해야 한다거나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통합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명칭으로 교육하느냐가 아니라 평화교육이든 통일교육이든 민주시민교육이든 그것을 통해 학습자를 어떤 역량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시킬 것인가이다. 특히 학교교육 내에서 평화교육의 주류화는 평화교육이라는 과목을 만들거나 평화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다른 교육을 흡수하는 평화교육의 영역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평화의 가치가 모든 교육의 내용과 교육과정에 전반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를 역량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된다.

교육 분야에서 역량은 “단순히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과제 수행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전략 등을 재조정하고 능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교육 분야에서 역량은 지식, 기능, 전략, 태도, 가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적용하여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⁰⁴⁾ 21세기 미래 사회를 전망하여 1997년부터 수행된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는 생애에 걸쳐 청소년과 성인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 및 능력 요인을 분석해서 제안하였다.¹⁰⁵⁾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2015

104) 윤종혁 외,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을 위한 현황분석과 향후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6), p. 12.

105) “현재 OECD는 변화된 사회 환경에 비추어 DeSeCo 프로젝트의 결과를 점검하고 이

년 9월에 핵심역량을 반영한 새 교육과정을 고시한 바 있다.¹⁰⁶⁾ 이러한 교육과정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평화교육과 통일교육도 교육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개편하여야 한다.

평화교육 부문에서는 일찍이 평화역량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박보영은 평화교육을 “인간 삶의 중층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살리는 관계를 형성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평화교육에서 함양해야 할 평화역량을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다.¹⁰⁷⁾ 박보영에 의하면 평화역량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 다층적 차원을 갖는다. 자신과의 관계 차원에서 평화역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과 자긍심, 자아실현을 위한 배움의 능력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화역량은 관용과 공존, 평화적 의사소통의 능력이다.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평화역량은 참여와 자치 비판의 능력이며, 자연과의 관계에서 평화역량은 소비주의의 극복과 생태계 보존의 역량이다. 그러나 각각의 능력의 합이 평화역량의 총체라고 볼 수 없으며, 다양한 평화역량이 통합되고 조정

를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개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용적 교육과정 개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적은 2030년에 나타날 학생을 둘러싼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지, 이들 역량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개념 틀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미경 외, 『21세기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OECD Education 2030』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p. 11.

106) “2015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 핵심역량을 도입하여 교육과정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총론에서 제시한 가치와 교육과정 구성 방향에 입각하여 교과 역량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역량 함양을 위해 교과 교육 내용체계를 핵심 개념과 기능 중심으로 정선하고 재조직하였다. 더불어서 제시된 역량과 내용 체계의 변화에 맞게 교수 학습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향 및 지침을 총론 및 교과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다.” 위의 책, pp. 48~49.

107) 박보영, “평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의 탐색,” 『교육사상연구』, 제23권 1호 (2009), p. 84.

되는 능력으로서 총체적인 평화역량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¹⁰⁸⁾

통일교육 부문에서는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가 시작단계이다. 박성춘 등은 경기도교육청의 통일교육 교과서 개발의 일환으로 통일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통일핵심역량 개념을 적용하였다.¹⁰⁹⁾ 이들은 통일핵심역량을 “통일이전, 통일과정, 통일 이후 단계에서 인적, 제도적, 환경적으로 복잡한 사회통합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평화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으로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를 ‘화해역량’, ‘평화역량’, ‘통합역량’으로 제시하였다.¹¹⁰⁾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서 추구하는 역량에 대한 탐구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박보영과 박성춘 등의 시론적 탐구를 통해 볼 때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역량이 상당 부분 중복되거나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내용체계를 역량중심으로 재편하면, 평화교육이나 통일교육이나, 양자의 통합이나 하는 논의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든 평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든, 아니면 민주시민교육이나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든 각각의 교육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역량과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각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는 역량을 더해나가는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 또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과 대상,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역량의 수준과 범위를 배치할 수 있다. 짧은 교육 프로그램은 이중 특정 범위나 특정 층위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면 되고, 보다 체계적 교육이 가능한 학교교육이나 장기적 교육은

108) 위의 글, pp. 86~87.

109) 조정아, “2030 세대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p. 35.

110) 박성춘 외, “통일시대를 위한 평화시민 교육과정(안)” (경기도교육청, 2015); 통일교육을 역량중심 교육으로 개편하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조정아, “2030 세대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참조.

역량의 위계를 고려하여 보다 광범위한 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통일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적극적 평화나 안보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 쟁점이 되는 교육내용 요소를 명료화하고, 전반적인 내용 체계 개편을 통해 통일교육에서 평화지향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간 가장 큰 관점의 차이가 보이는 문제인 안보 문제를 평화·통일교육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을 항상 안보교육과 같이 결합하여 사고해왔던 관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은 한반도 분단과 전쟁, 북한과의 적대적 대립이라는 상황 속에서 반공교육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통일교육 안에서는 안보의 문제가 통일의 문제와 구분되지 않았으며, 이때 안보는 북한을 겨냥한 국가적 차원의 안보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구시대의 틀이 평화체제 구축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도 유효한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통일교육에서 안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해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건전한 안보’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그를 반영하여 평화의 관점에서 안보에 대해 재해석하는 것이다. 항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간안보’나 평화교육 일각에서 말하는 세계적 또는 동북아 수준의 거시 안보 관점에서 안보문제를 다루고 이를 한반도 분단과 통일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안보교육과 평화·통일교육을 분리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에서 안보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관점 전환 없이는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재정립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다. 민간 영역의 자율성 확대와 거버넌스 구축

민주적인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며,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평화교육은 민간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부분적으로 단체 간 소통과 공동사업을 도모하고 있고, 일부 시·도교육청이 사업공모 형식으로 민간단체와 약한 연계를 형성하고 있다.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민간단체들 간의 거버넌스 체계는 현재와 같이 민간 주체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민 사회 주도로 이루어져온 기존의 평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가 민간단체의 평화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은 주로 공모사업을 통한 개별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사업예산 지원에 국한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산발적이고 단기적인 프로그램 운영만이 가능하며, 민간단체가 교육적 역량과 전문성을 쌓아가거나 장기적,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거나 단체간의 연대를 통한 사업을 도모하는 것은 어렵다. 공모를 통해 정부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고 실적을 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참가하는 단체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공모방식의 보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주도성이 강한 평화교육과 달리, 통일교육은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정부기관과 연계되어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방향성 면에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통일교육은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가 거버넌스 체제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부가 거버넌스 관리 양식을 주도하는 집권형 또는 정부가 거버넌스 전반을

관리하면서 거버넌스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관리형 거버넌스의 특징을 띠다고 볼 수 있다.¹¹¹⁾ 통일교육 거버넌스는 비정부 행위자들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한된 영향력을 지니면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조로 개편하여야 한다. 정부 이외의 다양한 주체들의 성장과 역할 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방적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규칙과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조정과 협력 기능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¹²⁾

또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실시 주체들 간에 교육의 쟁점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공론화를 진행함으로써 평화의 가치와 역량이 반영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 방향성 및 원칙에 관해 합의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공유하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의 장에서 논쟁적 문제를 다룰 때 견지해야 할 원칙을 설정하도록 한다.¹¹³⁾ 그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교육 방향성을 민간 교육주체들에게 주입 또는 강요하거나 다양한 교육 주체들 간에 교육방향성 일치와 교육내용 통합을 선부르게 시도하기보다는 다양한 교육주체가 각자의 지향성과 교육내용, 방법을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정부 기관이 직접적으로 거버넌스 체계에 개입하는 것보다 통일연구원이나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이 거버넌스의 구성원으로서 민간 교육주체들의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일정한 역할을

111) 김국신·박형중·강동완,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374; 거버넌스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는 김형수, “한국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성과 실행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51집 (2009) 참조.

112) 조정아, 『상생공영시대의 통일교육거버넌스 구축 실행방안』, (서울: 통일부, 2009), p. 76.

113) 조정아, “2030 세대의 통일인식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p. 33.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시대적 과제와 평화지향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관계 법령 정비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역량중심으로 통일교육의 내용 요소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지원법은 분단 이후 다양하게 전개되어 오던 통일교육을 초당적 합의 하에 추진할 필요성에서 1999년 2월 5일에 제정하여, 8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통일교육의 정당성을 강화하며,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자는 것이었다.¹¹⁴⁾ 이후 수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지만, 법령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통일교육 개념을 규정하는 조항은 제정 시기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은 제정 이후 20년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현재의 한반도 상황 속에서 통일교육에 요구되는 평화의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핵심조항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통일교육지원법은 ‘제2조 정의’에서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고,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11조 고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통일부 등 정부 지원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민간단체 통일교육은 거의 대부분 통일

114) 소성규,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3호 (2019), pp. 291~293.

교육지원법 제2조의 통일교육 개념 규정과 이를 반영하여 작성된 통일부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이래 줄곧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기능하였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 등 이 조항의 핵심어들은 정치적으로 다른 해석의 여지를 안고 다른 해석의 여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부정책과 다른 관점을 취하는 통일교육을 차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¹¹⁵⁾ 통일교육지원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¹¹⁶⁾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체제 경쟁적이고 이념대립이 반영된 남한 중심 사고의 산물임을 부정할 수 없다.¹¹⁷⁾ 현실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고발조항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나 논의를 불러낼 수 있는 통일교육을 하는 것을 꺼려하게 만들고, 정부가 제시한 정답 중심의 통일교육을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민족공동체 의식에 대한 강조나, 건전한 안보관 확립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건전한 안보관 부분은 통일교육을 안보교육과 결합시키는 법적 근거가 된다. 앞서 살펴본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몇몇 기관들의 평화·통일교육이 명칭만 ‘평화’를 표방할 뿐 실제로 안보교육으로 진행된 것도 이러한 법적 기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육 개념 조항에 평화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민족공동체의식’이 다문화사회로

115) 조정아, “2030 세대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p. 32.

116) 김병연, “통일교육지원법의 쟁점과 개정방안 연구-제2조 정의,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조항을 중심으로,” p. 119.

117) 위의 글, p. 120.

의 변화나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학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통일교육의 개념, 통일교육의 원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의식, 통일과 안보의 관계 설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재검토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통일교육지원법을 사회 변화와 평화·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국신·박형중·강동완.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2007.
- 김영철·김성오·박숙영·정주진. 『평화교육 사례분석 및 실행방안 연구』.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2017.
- 김영철·전세현. 『탈분단과 평화, 교실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교사를 위한 평화배움 교안 시리즈 3』. 서울: 피스모모, 2018.
- 데이비드 히스 지음, 고병헌 옮김.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서원, 1993.
- 문아영·이대훈. 『분단체제를 살아내며 넘나드는 탈분단 평화교육』. 서울: 피스모모, 2018.
- 박광기 외.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박광기·박채복·유진숙·차조일·설규주·박정란.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박성용 외.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매뉴얼』. 수원: 경기도교육청, 2014.
- 윤종혁·김은영·최수진·김경자·황규호.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을 위한 현황분석과 향후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6.
- 이동기·송영훈. 『평화·통일교육 추진전략 연구』.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 이미경·이영미·이근호·김영은·이주연. 『21세기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OECD Education 2030』. 서울: 한국교육과

- 정평가원, 2016.
- 이세기 외. 『한국YWCA 80년사 : 생명의 바람으로』. 서울: 대한YWCA 연합회, 2006.
- 이현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25년사』. 서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2.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교육위원회. 『이겨려 살리는 통일』.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출판국, 2001.
-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 2003.
- 정현백·김엘리·김정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 정현백·김정수.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 조정아 외.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조한혜정·이우영 공저. 『탈분단시대를 열며』. 서울: 삼인, 2000.
- 통일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의 길을 찾다!! 2018 사회통일교육 자료집』. 서울: 통일교육협의회, 2018.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 _____.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2. 논문

- 강순원. “분단시대의 통일교육에서 평화시대의 시민교육으로.”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2018.
- 고경민. “제주의 새로운 평화실천 프로그램을 위한 방향과 과제.” 『제주 발전포럼』. 가을호 63호, 2017.
- 권혁범. “한반도 분단현실과 통일교육의 방향: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탈분단 시민교육을 향하여.”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2000.

- 김병연. “통일교육지원법의 쟁점과 개정방안 연구-제2조 정의,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조항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제58호, 2018.
- 김엘리. “여성들이 하는 군축 반전운동.” 심영희·김엘리 편저. 『한국 여성평화운동사』. 한올아카데미, 2005.
- 김윤용. “특집: 한국교육에서 평화교육의 가능성.” 『우리교육』, 10월호, 1991.
- 김정수. “해의 평화교육 사례와 통일교육에의 적용 전망.” 『여성과 평화』, 제2호, 2002
- 김형수. “한국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성과 실행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51집, 2009.
- 문아영. “군사적 대립을 넘어서는 평화구축의 시대 교육의 준비와 역할.” 『반전 반군사화를 지향하는 2018 아시아 평화교육 워크숍 자료집』, 2018.
- 박보영. “한국의 평화교육연구사.” 『기독교교육논총』, 11집, 2005.
- _____. “평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의 탐색.” 『교육사상연구』, 제23권 1호, 2009.
- 박신향. “PBL수업과 강의식 수업 비교를 통한 수업 방식 선호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9호, 2016.
- 박찬석. “2016년 이후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제54호, 2017.
- 소성규.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3호, 2019.
- 송영훈. “박근혜 정부 대내적 통일정책의 평가와 인식론적 성찰.” 『통일 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 송정호·조정아.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정책과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평화학연구』, 제10권 1호, 2009.
- 안승대.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연구』,

- 제10권 1호, 2013.
- 오기성. “통일교육에서 평화인문학 및 통일인문학의 함의.” 『초등도덕교육』. 제61집, 2018.
- 오인탁. “평화교육의 개념과 우리교육의 과제.” 『초등우리교육』. 10월호, 1991.
- 이대훈. “인간과 문화 사이의 평화학.” 『가톨릭대학 학술대회 발표문』. 2017.
- _____. “평화역량과 평화교육의 적용.” 『제7회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 자료집』. 2019.
- 이삼열. “평화교육의 철학과 실천방법.” 『현대평화사상의 이해』. 서울: 한길사, 1992.
- 이인정.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제62호, 2019.
- 이장원. “80년대의 교사운동.” 『민중교육 2』. 서울: 푸른나무, 1988.
- 이종태. “분단시대의 학교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분단시대의 학교교육』. 서울: 푸른나무, 1989.
- 장종철. “한반도의 평화신학 정착: 한반도의 기독교 평화교육.”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6권 1호, 1989.
- 정영수.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교육학연구』. 제31권 5호, 1993.
- 정영철. “평화통일을 위한 길 찾기: 평화를 위한 통일, 통일을 위한 평화.” 『한반도 평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살림터, 2018.
- 정용민. “평화적 갈등해결의 학교 적용과 평화교육의 필요성.” 『학교통일교육 자율연수 자료집』. 서울학교통일교육연구회, 2002.
- _____.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교육, 시민성교육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살림터, 2018.
- 정주진. “평화학의 시각에서 본 평화·통일교육.” 『제7회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 자료집』. 2019.
-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 _____. 『상생공영시대의 통일교육거버넌스 구축 실행방안』. 통일부, 2009.
- _____. “2030 세대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통일교육연구』. 제15권 2호, 2018.
- _____.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과 새로운 접근: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결합을 중심으로.” 『제7회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 자료집』. 2019.
- 최혜경. “한반도평화 시대, 사회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모색.” 『제7회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 자료집』.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
- 함택영·구갑우·김용복·이향규. “남북한 평화체제의 건설과 통일교육.” 『국가전략』. 제9권 4호, 2003.
- 홍민.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 센터 역음.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 파주: 한울, 2015
- Binger, Bernd H..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제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
- Galtung, Johan. “Cultural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27(3). 1990.
- Harris, Ian. “History of Peace Education” In *Handbook on Peace Education*, edited by G. Salomon and Ed Cairns.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0.

3. 기타자료

『인제인터넷신문』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2013 평화교육 추진계획,” 2013.

교육부.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2018.

대화문화아카데미 <<http://www.daemuna.or.kr/ko/about-daemuna-academy>>.

박성춘·이향규·조정아·정현곤. “통일시대를 위한 평화시민 교육과정 (안).” 경기도교육청. 2015. (미발행 자료)

비폭력평화물결 <<http://peacewave.net/>>.

서울시. “2019평화통일기본계획” <beseo.sen.go.kr>.

서울시교육청. “2019 평화통일교육 기본 계획(안).” 서울시 홈페이지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7006822?tr_code=m_open>.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http://www.whrd.or.kr/>>.

이재영. 『회복적 정의의 이해』. 한국평화교육훈련원 <http://kopi.or.kr/?page_id=10#data-05>.

통일교육협의회 <<http://www.tongiledu.org/sub/sub.html?oneNum=1&twoNum=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http://www.peacewomen.or.kr>>.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http://www.spark946.org/data/>>.

피스모모 <<https://peacemomo.org/intro>>.

피스모모 이슈브리프. Vol.12 “2019 한국 평화교육 톨아보기 #2 : 시도 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계획.” <<https://peacemomo.org/boardPost/108859/12>>.

한국평화교육훈련원 <http://kopi.or.kr/?page_id=10#data-05>.

한국DMZ생태평화동산 <<http://dmzecopeace.com>>.

홍사단 홈페이지 <<http://www.yka.or.kr/html/introduce/introduce.asp>>.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통일교육 지원법」 10조.

「헌법」 4조.

피스모모 문아영 대표와의 인터뷰 (2019.10.4., 트렌스).

박정은. 자문회의 발제자료 (2019.8.19., 통일연구원).

이대훈. 자문회의 발제자료 (2019.6.11., 통일연구원).

최혜경. 자문회의 발제자료 (2019.5.10.,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녹취록 (2019.7.31., 통일연구원).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17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 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12,0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 민	6,0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예의 함의(1부)	전병근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예의 함의(2부)	전병근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Study Series〉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2018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현상백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외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외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이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옥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운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19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홍민 외 20,5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변경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중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중호 외 12,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2018-0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나용우 외

〈Study Series〉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2019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욱,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중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 민 외	21,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정은이 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창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성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안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Study Series>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	--	----------------

-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Baek, Sangme
-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Park, Juhwa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욱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욱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욱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욱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기타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아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7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		
연락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원 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함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